

국립국어원 2016-01-22

발간등록번호
11-1371028-000631-01

작문(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문법 교육 자료 개발

연구책임자: 이삼형



국립국어원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작문(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문법 교육 자료 개발”에 관하여
귀 원과 체결한 연구용역 계약에 의하여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연구 책임자: 이삼형(한양대학교)

연구 기관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책임자 이삼형

공동 연구원 김혜정, 최형용, 김정선

연구 보조원 김시정, 김형석

요약문

1. **과업명:** ‘작문(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문법 교육 자료 개발’

2. **과업의 목적:** 본 연구는 2015년에 수행한 ‘작문(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문법 내용 개발’ 연구 사업에서 선정된 작문(쓰기)을 위한 문법 내용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교육 자료를 개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배경:** ‘작문(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문법 교육 자료 개발’ 연구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인 문법 교육 자료가 부족하다.

둘째, 실용 문법에 대한 교육적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셋째, 작문과 문법의 관련성에 대한 주목이 필요하다.

넷째, ‘작문(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문법 내용’ 교육 과정의 구체화가 요구된다.

4. **연구 내용:** ‘작문(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문법 교육 자료 개발’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업 1】 국민의 작문(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실용 문법 교육 자료 개발

【과업 2】 국민의 흥미 고취와 모든 세대에 유익한 작문 교육 자료 개발

【과업 3】 쉽고 재미있게 익힐 수 있는 학습 문제와 해결 방안 제시

【과업 4】 ‘말하기, 듣기, 쓰기’의 국어 능력 향상 사업과의 연계성 구현

5. **연구 결과:**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작문(쓰기)와 실용 문법의 교육을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국어 문법에 대한 기초 지식을 이해하고, 실제 작문(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작문과 문법 지식 내용을 교육 자료로 흥미있게 구성한 실용 문법 교재로서의 기능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교육 자료는 ‘제1부 작문을 위한 기초 문법’과 ‘제2부 글의 종류에 따른 문법’으로 구성하였다. 제1부는 언어 층위별로 단원을 배열하였으며, 제2부는 일반 성인이 자주 접하는 문종을 선정하여

단원을 구성하였다.

- 제1부: ‘음운/표기, 어휘, 문장, 담화’ 층위로 구분
- 제2부: ‘보고서, 안내문, 건의문, 논설문, 초대글, 감사글, 수필, 기행문’ 선정
- 각 단원은 학습 내용과 학습 활동으로 구성함.

6. 결과물: 최종보고서 50부, 요약보고서 20부

Abstract

1. **Task Title:** Development of Grammatical Education materials for Improvement of Writing Ability

2. **Purpose of Task:** This study desires to develop detailed educational resource by reflecting grammatical contents for writing selected in a research project 'Developing the grammatical contents for the writing comprehension improvement' conducted in 2015.

3. **Background of Task:** Necessities of the research 'Development of Grammatical Training Resource for Improvement of Writing Ability' are as follows:

First, detailed grammatical training resources are insufficient targeting the general public.

Second, educational demand for practical grammar is raised.

Third, it is need to attention the relevance of the composition and grammar.

Fourth, it is necessary to give shape to a curriculum 'Grammatical Contents for the writing comprehension improvement.

4. **Study Contents:** Study contents of 'Development of Grammatical Education materials for Improvement of Writing Ability' are as follows:

[Task 1] Development of practical grammatical training resource to improve writing ability of the people

[Task 2] Selection of writing resource that is to arouse interest of the people and is of benefit to all ages

[Task 3] Suggestion of learning problems and solutions that are easy and fun to learn

[Task 4] Realization of connectivity with ‘speaking, listening, and writing’ of Korean Language Ability Improvement Work

5. Research Find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study used a method that gets closer to education for writing and practical grammar synthetically.

The results of this study have a function as a practical grammar textbook which comprehends the basic knowledge of Korean grammar and constructs interesting contents of writing and grammar knowledge to improve real writing ability as a educational resources.

The educational materials developed in this study consisted of 'Part 1, Basic Grammar for Writing' and 'Part 2, Writing and grammar according to the division of writing'. The units are composed by following: Part 1 is arranging the unit by language level, and Part 2 is selecting the type of language frequently encountered by the general adult.

- Part 1: classification of 'Phonetic/notation, vocabulary, sentence, discourse' level
- Part 2: selection of ‘reports, notices, suggestions, logical writings, invitations, thank-you letter, essays, travel essays’
- Each unit consists of learning contents and learning activities.

6. Output: 50 final reports, 20 summary reports.

차 례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1.1 연구의 목적	1
1.2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 내용	4
3. 연구 추진 과정	5
II. 작문(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자료의 구성	9
1. 교육 자료 개발의 배경 및 개발 방향	9
1.1 교육 자료 개발의 정책적·사회적·교육적 배경	11
1.2 교육 자료의 개발 방향 수립	10
2. 교육 자료 개발의 절차와 교육 내용 제시 원리	12
2.1 교육 자료 개발의 절차	12
2.2 작문(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문법 교육 내용 제시 원리	16
3. 교육 자료의 체제	18
3.1 제1부 ‘작문을 위한 기초 문법’의 구성 체제	18
3.2 제2부 ‘글의 종류에 따른 문법’의 구성 체제	22
4. 교육 자료의 특성	29
5. 교수요목	31
III. 종합 및 제언	35
1. 종합	35
2. 정책 제언	37
<참고 문헌>	11
<부록>	45

I .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1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2015년에 수행한 ‘작문(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문법 내용 개발’ 연구 사업에서 선정한 쓰기를 위한 문법 내용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교육 자료를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작문(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문법 교육 자료’는 실용 문법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육 자료이다. 그리고 실생활에서 접하는 다양한 문종의 글을 쓰는 데에 필요한 문법 지식을 확인하고, 연습할 수 있는 교양서 또는 교재의 성격도 지닌다.

1.2 연구의 필요성

1)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실용적인 문법 교육 자료의 부재

현행 문법 교육은 고등학교 선택 과목인 ‘독서와 문법’ 교과서를 중심으로 고교 과정에서 종결된다. 이에 따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혹은 세대를 넘어 범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법 교육 관련 교재나 자료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작문과 문법은 실질적으로 교육적 연구가 매우 높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두 영역의 실용적 교육이 모색되지 않았다.

작문 교육은 고등학교 선택 과목인 ‘화법과 작문’ 교과서를 중심으로 고교 과정에서 일부 선택적으로 교육되다가 대학 교양 과정에서 ‘대학 작문’의 형태로 학습되기도 하나, 이 또한 인문, 자연 계열로 구분하여, 각 전공의 형식화된 절차를 익히는 글쓰기에 치우치고 있다.

한편 문법 지식은 실제 글을 쓰는 데 중요하게 작용하지만, 문법을 바탕으로 한 작문 교재가 개발되지 않았으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작문 교재

나 자료도 거의 없는 편이다. 따라서 작문을 위한 문법 내용(1차 연구)을 바탕으로 ‘작문-문법’ 교재를 개발하면, 실제적인 글쓰기에 작동하는 문법 지식의 역할과 가능성, 지식 통합의 효과 등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평생 교육 증진과 국민 복리 향상의 관점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국어 능력으로서의 작문(쓰기)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교재를 마련하여 국가 경쟁력 및 국민의 언어생활을 개선토록 할 수 있다.

2) 실용 문법에 대한 교육적 요구

문법 내용이 단순히 학문적 탐구의 대상이거나 이론적 지식으로만 실재한다면, 문법의 제 가치를 실현시키지 못하고 교육으로부터 외면 받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문법의 본령은 언어 현상의 기술과 해석에 있으므로 그 일면에는 이론적인 면에 더하여 실용적인 면도 함께 갖추고 있다.

특히 교육의 장에서는 모어를 사용하는 학습자가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데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의사소통능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정규 교육을 마친 성인이라든가 고등학교까지의 국어 교육이 완전하지 않아 문법이 요구되는 경우, 교정적 언어 교육(prescriptive approaches, Halliday 1976)으로서 문법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에는 인간의 문식 활동이 인터넷의 웹을 기반으로 읽고 쓰는 매체 환경으로 바뀌고 있으며, 쓰기 능력이 단순히 글을 쓰는 행위가 아니라, 다른 시공간의 사람들에게 일시에 전파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의사소통 행위로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빠른 정보 처리 속도와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하는 매체 환경으로 인해 잘못된 언어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성인 문식성 신장과 교정, 사실이나 정보를 전달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등의 다양한 작문 상황에서 잘못된 언어 사용을 바로잡아 줄 문법 지식이 요구된다. 또한 고등학교까지의 문법 교육 성과를 정리하고, 이를 발전시킨 실용 문법을 통해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을 꾀하는 교육 자료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즉 실용 문법으로서 작문 능력 신장을 위한 문법 내용이 구체적인 자료로 마련됨으로써 현행 문법 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고 새로운 문법 교육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3) ‘문법’의 분리, 작문과 문법의 관련성에 대한 주목 필요

이번 2015년에 개정, 고시되고, 2018년부터 적용되는 국어과 교육과정에 의하면, 기존의 ‘독서와 문법’ 과목은 분리되어 각각 ‘독서’와 ‘언어와 매체’ 과목으로 나뉜다. 새로이 문법 지식을 담당하게 될 ‘언어와 매체’ 과목은 ‘독서’나 ‘작문’과의 관련성이 더 낮아져 이전에 비해 실용 문법으로서의 성격이 약해지게 된다. 문법은 이론으로 가르쳐지고, 읽고 쓰는 등의 실제적인 언어생활에서 문법이 어떻게 작동하고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려가 점차 약해지고 있다.

언중의 일상적 언어생활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문법 지식이 필수적이다. 그 중에서도 작문 능력과 문법 간의 관련성과 교육적 중요성에 대해서는 익히 주목되어 왔다. 예컨대, 대학생 기초 교양 과목 ‘글쓰기’ 강좌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보면, ‘정서법과 표기, 어휘 능력, 문장의 형식 및 문법적 요소들’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기초적인 글쓰기의 어려움이 크다는 연구 보고가 많다. 즉 문법 지식은 성인의 글쓰기와 읽기, 말하기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초중등 문식성(literacy) 교육 이론을 통해서나 유럽의 자국어 교육 상황을 보면, 그 어떤 과목들에 비해 가장 관련성이 높은 영역으로 작문과 문법을 들고 있으며, 이 둘의 통합에서 오는 교육적 효율성(synergy)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화법과 작문’이라는 통합 과목은 있지만, ‘작문’과 ‘문법’과의 통합 과목이나 통합적 교재의 개발 가능성 등이 고려되지 않았다.

‘작문(쓰기)’ 및 ‘문법’ 두 영역의 통합성을 모색하고, 이를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 자료 개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이에 대한 학문적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4) ‘작문 능력 향상을 위한 문법 내용’ 교육과정의 구체화 요구

1차 년도에 수행된 ‘작문 능력 향상을 위한 문법 내용 개발’의 성과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교육 자료, 교재 개발로 이어질 필요가 제기된다. 일반 사회인이나 전 국민이 활용될 수 있는 교육 자료를 개발하기 위하여 이미 교육과정 등이 개발된 바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작문(쓰기) 능력을 실용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 교육 자료를 개발함으로써 국어 능력 개발 사업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그 성과를 효과적으로 확산할 수 있다.

2. 연구 내용

1) 국민의 작문 능력 향상을 위한 실용 문법 교육 자료 개발

본 연구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배포 가능한 교육 자료를 개발하였다. 이는 작문을 위한 교양서 및 실용 문법서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 교육 자료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될 수 있는 자기 주도적 학습 교재의 형태를 취하였다. 특히 국어문화학교의 작문 특별 과정이나 일선 학교의 방과후 학습, 일반인의 교양 함양을 위한 학습 등에서 모두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도서를 개발하였다.

2) 작문에 대한 국민의 흥미를 고취하며, 모든 세대에 유익한 작문 교육 자료 개발

학생부터 일반 성인을 포함한 다양한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하되, 작문의 주제, 내용, 장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문의 다양한 경험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문학/비문학의 쓰기를 모두 다룸으로써 다양한 작문 활동의 경험이 제공될 수 있도록 자료를 개발하였다.

3) 쉽고 재미있게 익힐 수 있는 학습 활동과 예시 답안 제시

학습 문제는 기입형, 단계적 서술형, 논술형 등 다양한 형태로 제시하고, 구체적인 작문 상황과 연계한 형태로 제시함으로써 학습자의 부담을 줄이고 작문과 문법의 연계성을 높여 쉽고 재미있게 익힐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해결 방안은 학습자의 이해를 고려한, 충실한 내용을 제공하며, 학습 문제의 의도 해설 및 예상 답안 등을 다양하고 체계적으로 제공하였다.

4) 말하기, 읽기, 듣기, 쓰기의 국어 능력 향상 교육 과정 개발 사업 연계성 유지

본 연구는 화법, 작문, 독서 영역과 연계한 실용 문법 교육을 통해 국민의 국어 능력을 향상하고자 하는 국어 능력 발전 사업의 전체 틀 속에서 수행되었다. 작문 능력 향상을 위한 문법 교육 자료는 실제 국어 사용 능력 신장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3. 연구 추진 과정

1) 연구 절차와 방법



[그림 1] 연구 절차와 방법

2) 연구 추진 일정

연구 기간은 2016년 4월 29일 ~ 11월 30일까지로 총 7개월이다. 월별 주요 연구 추진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추진 일정

단계	세부연구 내용	1	2	3	4	5	6	7	8
연구 계획수립	전체 진행 계획 확정	○							
	분과별 업무 분담	○							
이론 연구	선행 문헌 검토 및 분석	○	○						
교육자료의 성격 및 개발 방향 수립	기존 작문 교재 분석	○	○						
	교육자료 개발 방향 확정	○	○						
교육자료의 체제 개발 및 단원 구성안 수립	교육자료의 체제 개발		○						
	단원 구성안 수립		○						
	전문가 자문		○						
문법 내용 구조화 및 학습 문제, 해결 방안 개발	문법 내용 선정 및 구조화		○	○					
	학습 문제 출제			○	○	○	○		
	해결 방안 제시			○	○	○	○		
	중간 보고					○			
전문가 검토 및 수정 보완	전문가 자문						○		
	수정 보완						○	○	
종합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

3) 주요 협의회 내용

연구진은 20여 회의 내부 협의회와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를 열어 연구를 원활히 진행하였으며, 2차의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통해 연구 내용에 대한 외부 점검을 실시하였다. 각 회의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착수 보고회

- 날짜: 2016년 5월 25일(수)
- 장소: 국립국어원
- 참여자: 국립국어원 관계자, 연구진, 평가위원

<주요 내용 및 결과>

- 제1부에서는 기존의 문법 교육 자료와 차별화 될 수 있도록 실제적인 문법 내용만을 핵심적으로 기술한다.
- 제2부에서는 해당 갈래의 모범이 될 만한 텍스트의 선정과 분석을 통해 앞서 배운 개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2) 1차 자문위원회

- 날짜: 2016년 8월 23일(화)
- 장소: 한양대학교
- 참여자: 연구진, 자문위원단

<주요 내용 및 결과>

- 제1부 작문을 위한 기초 문법 세부 내용의 설정이 타당하다고 판단.
- 일반 국민들이 어렵게 느낄 수 있으므로 쉬운 용어로 기술할 부분이 약간 보임.
- 제2부의 문종 중심의 단원 설정은 기본적인 문법지식을 바탕으로 하지만 문종별로 강조되는 문법 지식이 있기 때문에 유의미하다고 판단함.

(3) 중간 보고회

- 날짜: 2016년 8월 30일(금)
- 장소: 국립국어원
- 참여자: 국립국어원 관계자, 연구진, 평가위원

<주요 내용 및 결과>

-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과 앞으로의 일정 보고.
- 교육 자료의 대상에 구체적인 서술 필요하다는 의견에 성인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서술하도록 함.
- 학습자의 자율 학습이 가능한 형태로 교육 자료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특히 2부의 학습 문제를 작문의 과정별로 개발하여 학습자가 스스로 글을 완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길잡이나 해결 방안 등이 보완되어야 함.

(4) 2차 자문위원회

- 날짜: 2016년 10월 29일(금)
- 장소: 한양대학교
- 참여자: 연구진 전원, 자문위원단

<주요 내용 및 결과>

- 학습 활동에 대한 검토.
- 출제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운 문항에 대하여 일부 수정함.
- 전체적으로 발문 방식을 통일함.

(5) 결과보고회

- 날짜: 2016년 11월 24일(목)
- 장소: 국립국어원
- 참여자: 국립국어원 관계자, 연구진 전원, 평가위원

<주요 내용 및 결과>

- ‘글의 갈래’라는 용어 대신에 ‘글의 종류’로 표현하도록 함.
- 일부 학습 문제 및 발문의 수정이 필요함.

Ⅱ. 작문(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자료의 구성

1. 교육 자료 개발의 배경 및 개발 방향

1.1 교육 자료 개발의 정책적·사회적·교육적 배경

본 교육 자료는 크게 네 가지 측면의 정책적·사회적·교육적 배경을 고려하여 개발된 것이다. 이에 교육 자료의 개발 배경을 살펴도록 한다.

첫째, 사회가 고도화됨에 국민의 문식성 함양에 대한 필요성이 따라 점차 증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 문식성 신장은 거시적으로 사회의 긴밀성과 소통성을 강화하고, 텍스트 및 문자에 대한 이해를 높여 국가 경쟁력의 제고에 기여한다. 따라서 이러한 능력의 함양을 위한 노력은 국민의 언어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측면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일반 국민들의 국어 능력과 교양을 높일 수 있는 수단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일반 국민들은 학령기의 교육을 지나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형태의 어문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나, 국어 능력의 신장과 세련화는 평생에 걸친 과업이다. 또한 글쓰기는 지식의 고하나 교육 수준을 막론하고 그 필요성이 매우 높으면서도 누구나 어려움을 느끼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국민의 작문(쓰기) 능력을 위한 교육 자료의 개발은 국어 능력을 높일 뿐 아니라, 국민의 어문 생활에 나타나는 실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셋째, 글쓰기의 종류나 장르에 입각한 실용적 글쓰기 교육 내용의 필요성이다. 수필, 소설, 설명문 등의 작문 갈래는 담화 공동체의 관습이나 양식에 따른 것이므로 해당 언어문화의 사용 규칙이나 관습 등을 반영하고 있다. 그동안의 글쓰기 교육 내용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바른 글을 쓰기

위한 방법이나 전략이 제시되었을 뿐, 실제 글쓰기에 작동하는 국면인 글쓰기의 종류나 장르가 고려되지 못했다. 이러한 측면에 초점을 맞춘 교육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국민의 작문 교육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넷째, 문법의 실용성을 강화한 문법 교육 내용의 개발 및 제공의 필요성이다. 일반적 의미에서의 ‘문법’이란 언어 현상의 기술과 이론적 해석 등에 중점을 두기에 실제의 어문생활과는 괴리를 보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규범 문법이 존재하긴 하지만, 이는 문법성의 정오(正誤) 판단에 활용될 뿐이고, 작문 등의 실제 언어 사용을 위해서는 보다 절차화되고 실용적이면서도 수월성 있게 개발된 문법 내용의 개발과 제공이 필요하다. 문법의 실용성을 강조한 교육은 국민의 어문 생활 개선에 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1.2 교육 자료의 개발 방향 수립

본 교육 자료는 다음과 같은 개발 방향을 수립하여 교육 자료에 반영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교육 자료의 개발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언어의 다양한 차원을 총체적으로 반영한 교육 자료이다. 국어 능력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차원이 상호 연계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담화 상황 및 맥락에 대한 고려 능력까지 포함해야 하므로 다각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이에 국어의 하위 영역인 음운에서 담화에 이르는 언어 층위의 통합적 접근을 추구하여 국어 능력의 모든 하위 영역을 고루 신장할 수 있도록 체제를 구성하였다.

둘째, 국민의 작문 환경 및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 자료이다. 작문 능력과 문식성은 개인의 직업적 삶뿐만 아니라 관계적, 의례적 측면의 다양한 삶을 보다 풍요롭고 의미 있게 영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국민이 수행하는 주요 작문의 국면을 구체화하여 교육 자료에 반영함으로써 실제 작문 능력의 발휘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 자료를 구성하였다.

셋째, 일반 국민 또는 사회인, 학생 등 국민 모두가 손쉽게 활용 가능한 교육 자료이다. 국민의 국어 능력은 한국인이 평생 동안 길러야 하는 항구적인 발전 가능 영역이므로 이를 발달시키기 위한 교육 자료는 모든 계

층의 국민의 수월성 있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교육 자료의 내용과 활동을 다양한 난도(難度)의 텍스트와 활동 등으로 구체화하고, 연령층이나 지식 수준이 낮은 국민에서부터 비교적 높은 수준에 있는 국민들에게 이르기까지 폭넓은 계층의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각각의 활동에 적절한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누구나 이를 통해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형태로 개발하였다.

넷째, 실용 문법 내용을 개발, 구현한 교육 자료이다. 현행 문법 교육은 대체로 초, 중, 고교 동안에만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특징이 있으며 대체로 교과서에 담긴 학교 문법의 형식적 개념을 습득하는 데 기울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법은 그 기술 방향을 언어 사용의 측면에서 수정하면, 언어에 대한 메타적 앎으로서 그 사용 면의 실질적 지식을 밝히는데 적절한 체계로 탈바꿈할 수 있다. 작문을 위한 실용적 문법 내용을 개발하여 본문과 활동에 반영함으로써 언어의 사용과 표현 측면에 기여하는 실용 문법 내용을 익힐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다섯째, 작문과 문법을 통합한 새로운 형태의 교육 자료이다. 전통적인 형식주의 작문이론에서 출발하여, 최근의 통합적 문법 교육론, 표현 문법론 등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적 지향들이 작문과 문법의 통합을 추구하고 있다. 작문은 언어 사용의 행위로 존재하는 것이며 문법은 언어 사용의 기저적 지식으로 존재하는 바, 양자를 통합하는 접근을 취함으로써 문법 교육의 실용성을 제고하고 동시에 작문 교육의 체계성을 높인 것은 언어 교육의 새로운 관점을 구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교육 자료 개발의 절차와 교육 내용 제시 원리

2.1 교육 자료 개발의 절차

본 연구의 교육 자료 개발 절차는 ‘이론 연구 → 교육 자료의 체제 수립 및 단위 구성 → 교육 내용 구조화 → 학습 활동 개발 → 예시 답안 및 해설 개발 → 교재 초고 자문 및 피드백 → 최종 완성’으로 이루어졌다. 각 과정에서 수행된 과업과 그에 따른 주요 사항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이론 연구

본 연구에서 개발하는 교육 자료는 작문(쓰기) 교재이면서 동시에 문법 교재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근래 작문 이론에서도 문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논의들이 등장하고 있다. 작문에서 강조되어야 하는 요소로 사회적 규범이나, 관습, 문종 등을 지적하며, 담화 공동체 내에서 의미를 구성하는 능력을 기른다는 점에서 원활한 소통의 기제로서 문법적 지식에 주목하고 있다(박태호 1996, 전은아 1998). 한편에서는 장르 중심의 작문 교육에서도 문법을 언급하고 있는데, 김혜선(2012)에서는 장르나 문종은 내, 외적 관습에 따라 형성된 결과인 바, 이에 대한 체계화는 문법 내용을 통해 구현 가능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언어의 여러 기능 영역의 기초 핵심 지식으로서 존재하는 문법은 독서, 작문, 화법, 문학 등의 영역과 통합 논리를 세울 수 있다는 주장은 여러 논의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민현식 2010, 임규홍 2010). 정희모(2013)에서는 작문에서 문법 교육은 인지 발달과 교육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성인의 경우, 표기, 통사, 텍스트 요소의 문법적 내용을 통해 교육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이삼형 외(2013, 2014, 2015)에서도 독서와 문법, 작문과 문법과의 관계를 밝히고, 문법 지식과 실제 국어 활동과의 연계를 시도한 바 있다.

2) 교육 자료의 체제 수립 및 단원 구성안 수립

본 교육 자료는 일반 성인이 자신의 작문 및 문법 수준에 따라 자유롭게 진도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이를 위하여 교재의 내용을 크게 2부로 구분하되, 제1부에서는 글의 갈래와 무관하게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문법 내용을 제시하고, 제2부에서는 주로 글의 종류와 문법 내용을 연관지어 제시하였다.

제1부에서는 학교 문법을 토대로 하여 작문(쓰기)에 필요한 문법 내용을 음운/표기, 어휘, 문장, 담화 층위에서 고루 포함하였으며, 언어 층위를 단원으로 구성하였다. 제2부에서는 국민이 언어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글의 종류를 중심으로 종류별 개념과 특징, 문법 내용 등을 제시하였다. 글의 유형 구분은 설명, 설득, 친교 등 글의 목적에 따르기도 하지만,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글의 목적보다 개별 글의 종류를 중심으로 학습 동기를 지니기에 단원 구성을 글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였다.

특히 본 교육 자료에서 선정한 종류는 국립국어원(2015)의 연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국립국어원(2015)에서는 일반 성인은 보고서, 기획서 등의 업무용 글뿐만 아니라 축하문, 조의문, 격려문 등 사회적 인간관계 유지를 위한 글도 비교적 자주 작성하고 있었으며, 업무와 관련된 글(보고서, 기획서 쓰기, 공문, 업무용 이메일)이나 민원, 상담글 등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글쓰기에서 특히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본 교육 자료는 글의 성격을 사회적인 글과 개인적인 글로 구분하여 총 8개의 종류를 선정하여 단원으로 구성하였다.

본 교육 자료의 전체 단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부 작문을 위한 기초 문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맞춤법에 맞게 글쓰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글맞춤법의 원리 (2) 띄어쓰기와 문장부호 2. 어휘 사용에 유의하며 글쓰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어휘의 체계와 작문 (2) 어휘의 의미와 작문 3. 문장 구조에 유의하며 글쓰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장 성분과 어순 (2) 문장 구조와 의미 (3) 문법 요소의 쓰임
------------------	--

	4. 통일성과 응집성에 유의하며 글쓰기 (1) 통일성과 글의 의미 (2) 응집성의 개념과 종류
제2부 글의 종류에 따른 문법	1. 보고서 2. 안내문 3. 논설문 4. 건의문 5. 초대글 6. 감사글 7. 수필 8. 기행문

3) 교육 내용 구조화

본 교육 자료의 교수요목은 학교 문법이라는 일반 국민에게 익숙한 문법 체계를 취하되, 그 중에서 작문에의 활용도가 높은 영역을 국립국어원(2015)의 관련 부분을 참조하여 선정하였다.

이때 선정된 교수요목은 아직까지 추상적인 상태이므로 단원의 내용 및 성격에 맞도록 정교화하는 작업이 다시 이루어졌다. 교수요목을 정교화하는 것은 추상적인 지식이 실제 텍스트의 독해에 적용되는 정도를 더욱 높이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렇게 마련된 교수요목은 대체로 하나의 활동에 적용될 수 있는 정도의 내용 범위(size)로 재조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교수설계이론에서는 최종 목표를 고려하여 전체 교육 내용을 마련하고, 이를 한 차시에 실제 수업이 가능한 정도의 난이도 및 학습량을 고려함으로써 전체 교육 내용을 다수의 수업 단위로 분할하는데, 본 교육 자료는 하나의 활동을 통해 학습자가 쉽게 소화가 가능한 정도의 내용 범위만을 한 개의 교수요목으로 분할함으로써 자칫 일어날 수 있는 학습에의 부담이나 지루함을 줄일 수 있도록 의도하였다.

본 교육 자료의 교수요목은 제1부와 제2부가 달리 선정되었다. 제1부에서는 언어 층위별로 단원이 구성되었으며, 이때 교수요목은 해당 층위의 문법 내용 가운데 작문에의 필요성을 우선 기준으로 하여 선정하였다. 반면에 2부에서는 작문과 문법의 통합의 관점에서 작문에서의 교수요목과

문법에서의 교수요목이 두루 포함되었다. 작문에서는 각 갈래별 개념과 기능, 장르적 특징 등을 다루었고, 문법에서는 각 유형의 작문에 필요한 문법 내용을 언어 층위별로 개발·선정하였다.

4) 학습 활동 개발

본 교육 자료는 단원별로 학습 내용을 제시하고, 해당 단원에서 학습한 내용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다. 그리고 교육 자료의 단원 성격에 맞게 학습 활동도 달리 설정하였다.

제1부의 단원에서는 학습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한 활동으로 비교적 난이도가 평이한 수준으로 개발하였다. 학습 활동의 유형도 학습자들이 지루하지 않고 스스로 학습이 가능하도록 단답형, 줄긋기 등 쉽고 재미있게 구성하였다.

제2부에서는 학습 내용의 확인 문제부터 작문과 관련된 문법 지식을 다양한 상황에 적용하는 문제를 두루 포함하였다. 글의 유형별로 학습한 문법 내용을 학습 활동으로 구성하여 충실한 문법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특히 한 편의 글을 완성하는 활동을 포함하여 작문 과정에 문법 지식이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작문(쓰기) 능력의 향상을 위한 문법 교육 자료라는 교재의 본령을 추구한 결과이다.

5) 예시 답안 및 해설 개발

문법에 대한 수용 정도나 능숙도에 따라 비교적 쉬운 활동도 학습자에게는 그 풀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활동의 풀이에 대한 용이한 해설과 예시 답안의 제시가 필요하다. 본 교육 자료에서는 모든 활동에 길잡이를 제공하여 학습 활동의 해결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예시 답안과 필요한 경우에는 해설을 덧붙여 각 활동의 해결만이 아니라, 관련 지식의 습득도 용이하게 하였다.

6) 교재 초고 자문 및 피드백

본 교육 자료는 현장 및 학계의 전문가를 섭외하여 개발된 교육 자료에

대한 자문과 피드백을 받았다. 주요 피드백 내용은 구성의 측면, 활동의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되었다. 먼저, 기초 문법과 글의 종류의 체계는 실용 문법서로서의 성격을 잘 드러내 것이고, 교육 자료의 대상자를 보다 일반 국민 중 직장인을 주요 대상으로 설정하여 교육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였다. 제1부 작문을 위한 기초 문법 세부 내용의 설정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제1부의 단원명이 문법 층위를 기준으로 명명되어 학습자가 어렵게 느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문법 전문 용어를 지양하고 쉽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단원명으로 수정하였다.

다음으로, 활동 측면은 작문(쓰기)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활동은 배제하고 학습 내용에 다루었던 내용은 학습 활동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그리고 제2부에서 한 편의 글을 작성하는 학습 활동의 경우, 글 쓰는 단계를 순차적으로 제시하고, 교육 자료에 충분한 지면을 제공하여 학습자가 완성된 글을 쉽게 쓸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7) 피드백 반영 확인 및 최종 완성

본 교육 자료는 현장 교사 및 학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으로부터 받은 자문 내용을 적절히 반영하고 이를 다시 검토 받는 과정을 거쳐 최종 완성되었다.

2.2 작문(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문법 교육 내용 제시 원리

본 연구에서 개발하는 작문(쓰기) 능력의 향상을 위한 실용 문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영하였다.

1) ‘작문(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문법 내용 개발’(국립국어원, 2015) 결과 활용

본 연구에서는 기 수행 과제인 ‘작문(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문법 내용 개발’에서 선정한 문법 내용을 토대로 하여 음운/표기부터 담화까지 다양한 층위가 포함되도록 하였다.

<표 2> 문법 내용의 층위 및 세부 내용

층위	구분	세부내용
음운/표기	한글 맞춤법과 작문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부호
	음운 변동과 작문	교체, 첨가, 탈락, 축약
어휘	어휘 체계와 작문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어휘의 의미와 작문	어휘의 다양한 의미, 어휘의 의미 관계
	어휘의 양상과 작문	지역 방언, 금기어와 완곡어, 관용 표현, 전문어, 신어/유행어, 남성어와 여성어, 세대 방언
문장	문장 성분과 작문	문장 성분의 종류, 문장 성분 간의 호응, 문장의 어순
	문장 구조와 작문	문장의 짜임, 중의적 문장
	문법 요소와 작문	종결 표현, 피사동 표현, 높임 표현, 인용 표현
담화	통일성과 작문	글의 계층적 구조
	응집성과 작문	지시, 접속, 대응, 생략, 담화표지어

2) 작문(쓰기)에 기여할 수 있는 문법 내용 선정하여 배열

문법 내용은 일반 국민이 작문(쓰기) 능력을 향상하는 데에 필요한 것으로 선정하여 구조화하였다. 문법 층위 중 작문(쓰기)에 관여하는 정도를 고려하여 내용을 선정하였으며, 이를 음운/표기, 어휘, 문장, 담화 층위의 순서로 문법 내용을 배열하였다.

3) 글의 갈래별 쓰기에 필요한 문법 내용 선정

작문(쓰기)의 구체적 실체는 갈래를 중심으로 수행되므로 국민이 자주 접하거나 어려워하는 글의 유형을 선정하고, 각 글의 종류별 쓰기에 필요한 문법 내용을 추출하여 교육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이는 국민의 국어 생활 전반에 필요한 실용 문법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작문과 문법의 실질적 통합을 의미한다.

4) 다양한 수준의 문법 내용이 분포하도록 구조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법 교육 자료이므로 다양한 수준의 학습자를 상정하여 기초적인 수준의 문법 내용부터 심화된 내용까지 고루 분포되도록 하였다. 학교 문법을 기본으로 하여 이론 문법 내용 가운데 실제 국어 생활에 필요한 문법을 선정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교육 자료의 체제

3.1 제1부 ‘작문을 위한 기초 문법’의 구성 체제

본 교육 자료의 전체 구성 방식은 크게 제1부와 제2부로 구분되어 있으며 두 부분은 그 교육 내용의 성격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교육 자료의 제1부는 ‘작문을 위한 기초 문법’을 제시한 것으로 ‘소단원 학습 내용 안내 - 학습 내용과 작문의 관계 기술 - 본문 학습 내용 - 학습 활동’의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작문을 위해 사용되는 기초적인 문법 내용을 학습하도록 구성한 것으로 실용적인 문법 지식을 손쉽게 확인, 숙달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다.

1) 제1부 표지와 차례

일종의 대단원에 해당하는 제1부 표지는 해당 부분을 구성하는 체계를 구조화하여 제시하고 각 소단원의 쪽수를 표시하였다. 각 소단원의 배치는 언어 층위와 실용성을 고려하여 순서대로 배열하였으며 ‘맞춤법에 맞게 글쓰기, 어휘 사용에 유의하며 글쓰기, 문장 구조에 유의하며 글쓰기, 통일성과 응집성에 유의하며 글쓰기’로 구성하고 필수적인 내용 단위를 중심으로 소단원을 구성하였다.

또한 학습 내용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의 체계가 순서대로 제시되어 있어, 교육 자료를 활용하는 학습자가 학습의 목적에 따라

제1부 작문을 위한 기초 문법

1. 맞춤법에 맞게 글쓰기..... 3	
(1) 한글 맞춤법의 원리 - 소리와 표기의 전소(轉寫)..... 3	
(2) 띄어쓰기와 문장 부호..... 13	
2. 어휘 사용에 유의하며 글쓰기..... 19	
(1) 어휘의 적절한 선택과 사용..... 19	
(2) 어휘의 체계와 양상..... 24	
(3) 어휘의 다양한 의미와 의미관계..... 31	
3. 문장 구조에 유의하며 글쓰기..... 36	
(1) 문장 성분과 어순..... 36	
(2) 문장 구조와 의미..... 42	
(3) 문법 요소의 쓰임..... 46	
4. 통일성과 응집성에 유의하며 글쓰기..... 54	
(1) 통일성과 글의 의미..... 54	
(2) 응집성과 표현의 효과..... 59	

적절한 내용을 선택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네 가지의 단원 명칭 및 소단원은 성공적인 작문의 기초가 되는 문법적 측면을 초점화하여 제시한 것으로 문법을 중심으로 한 작문의 학습 방향을 안내하고 있다.

2) 소단원 학습 내용 안내



소단원 학습 내용 안내는 구체적인 교육 내용이 제시되는 데 앞서 일종의 길잡이의 역할을 한다. 학습 내용과 관련된 배경지식이나 경험 등을 활성화하여 후속되는 본격적인 학습에 도움을 주고, 적절한 그림이나 실생활 사례 등을 제공함으로써 학습 동기를 유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4. 통일성과 응집성에 유의하며 글쓰기

(1) 통일성과 글의 의미

<소단원 학습 내용 안내>

다음 그림은 음식 재료가 조화롭게 이룬 비빔밥으로, 여러 가지 재료가 뒤섞여 새로운 맛을 내는 음식이다. 이 그림을 보고, 글에서 통일성을 갖추는 것이 왜 중요한지 생각해 보자.

음식의 재료가 조화롭게 갖추어져 있을 때, 보기에 좋고 맛도 좋듯이, 글에서도 각 문단의 내용들이 주제와 관련성을 갖고 조화롭게 연결되어 있을 때 통일성 있는 글이 된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제시된 사진은 소단원 학습의 내용을 은유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통일성 있는 글은 한 편의 비빔밥과 같다는 은유를 사진으로 보여줌으로써 학습 내용에 대한 거리감을 해소하고 추상적인 문법 개념을 보다 쉽게 받아들이도록 한 것이다.

3) 학습 내용과 작문의 관계 기술

실제 작문에서 문법적 지식이 어떠한 기능이나 역할을 하는 지가 인지되지 못하면 일부 개념어나 지식, 전략 등이 학습될 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없다. 이에 학습하는 내용과 작문의 관계를 기술함으로써 학습자가 이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문장 구조와 작문의 관계>

- ▶ 문장은 ‘주어-서술어’의 수에 따라 홑문장과 겹문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 나타나는 문장은 홑문장, 두 번 이상 나타나는 문장은 겹문장이라 한다.
- ▶ 일반적으로 의미를 보다 명료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홑문장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나, 홑문장과 겹문장은 정보의 제시와 사태의 표현이라는 관점에서 다양하게 선택되어 사용될 수 있다.
- ▶ 하나의 문장이 둘 이상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장을 중의적 문장이라 한다. 중의적 문장은 피하는 것이 좋으나 글의 효과를 위하여 의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소단원에서 의도한 학습 내용이 작문과 관련되는 측면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작문과 문법의 관련성은 본문이나 활동의 학습을 추동하는 인지적 조직자의 역할을 하며, 작문과 문법의 연계 학습을 목표로 실제 교수·학습의 현장에서 활용될 때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4) 학습 활동

학습 활동은 두 가지 측면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첫째는 본문에서 제시한 문법 내용을 확인, 적용하는 측면이 있고, 둘째는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기 어려운 학습 내용을 보완적으로 제시하는 측면이다.

한편 학습 활동은 대체로 해결을 위한 지식의 동원이나 사고 측면에서 난도가 낮은 것부터 높은 것으로 진행되도록 배치하였으며, 다양한 삽화나 텍스트 등을 제시하여 학습 활동 수행에 있어서 흥미를 잃지 않도록 제시하였다.

3. 문장 구조에 유의하며 글쓰기

【학습 활동】

- ㉠ 다음 문장이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도록 () 안에 있는 말을 적절하게 바꿔 보자.

이 꽃은 영희가 (받다) 꽃이다.

※ 길잡이

‘꽃’을 수식하는 문장성분이 되도록 관형사절로 만들어 본다.

- ㉡ 다음 물음에 답해 보자.

- ① 다음 문장은 중의적으로 해석된다. 해석이 가능한 의미들 모두 써 보자.


영수는 차를 샀다.

- ② 중의적인 해석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자.

※ 길잡이

중의성 해소는 합성어를 통해 새로운 어휘를 생성하거나 수식하는 성분을 통해 가능하다.

- ㉢ 다음 광고에서 중의적인 표현을 찾고, 그 효과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중의적 표현	
	표현 효과	

※ 길잡이

광고에서 독자의 주의를 끌기 위한 장치로 쓰고 있는 중의적인 표현을 찾아본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학습 활동은 그 해결에 있어서 작문에 필수적이거나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지식의 확인, 적용 등을 의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의 수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길잡이’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활동에서 제시되는 예문이나 텍스트는 실제 작문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실생활의 사례 등을 활용하였다.

3.2 제2부 ‘글의 종류에 따른 문법’의 구성 체제

본 교육 자료의 제2부는 ‘글의 종류에 따른 문법’을 제시한 것으로 ‘대표 글의 확인 및 동기유발 - 작문 측면의 교육 내용(갈래의 개념, 기능, 특징) 제시 - 글의 종류별 문법 내용(음운/표기, 어휘, 문장, 담화 층위) 제시 - 예시문 분석과 본문 학습 내용 적용 - 학습 활동’의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실제의 작문이 글의 종류에 따라 달리 실현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글의 갈래가 지닌 특징과 문법 내용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구성한 것이다.

1) 제2부 표지와 차례

제2부 표지는 해당 부분을 구성하는 체계를 구조화하여 제시하고 각 소단원의 쪽수를 표시하였다. 각 단원의 배치는 글의 갈래를 중심으로 하되, 작문 행위의 존재론적 양태가 사회와 개인의 양 극성 사이의 어느 지점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단원을 배열하였다. 즉 가장 사회적이고 형식적, 관습적 규범이 강하게 작동하는 글의 종류부터 시작하여, 개인적인 성격이 강조되는 갈래의 순서대로 단원을 배열한 것이다.

제2부의 순서는 보고서, 안내문, 논설문, 건의문, 초대글, 감사글, 수필, 기행문의 순서로 배열되어 있다. 이는 글의

종류에 따른 사회성과 개인성의 양 극단을 고려하여 배열한 것이다.

제2부 글의 종류에 따른 문법

1. 보고서.....	71
2. 안내문.....	87
3. 논설문.....	100
4. 건의문.....	114
5. 초대글.....	125
6. 감사글.....	136
7. 수필.....	145
8. 기행문.....	161

3) 작문 측면의 교육 내용 제시

단순히 문법 내용을 제시하면 학습 내용과 작문과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글의 종류의 개념, 특징, 기능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작문의 측면에서 기반적 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2부 글의 종류에 따른 문법

가. 수필의 개념과 기능

수필이란 특별히 정해진 형식이 없이 인생이나 자연 또는 일상생활에서의 느낌이나 체험을 자유롭게 표현한 글을 말한다. 이 중에서도 경수필은 일상에서 느낀 다양한 체험이나 감상, 깨달은 점 등을 자유롭게 쓴 글이다.

수필은 일상에서 느낀 깨달음이나 정서를 순화하는 기능이 있고, 무심코 넘길 수 있는 소중한 생각을 정리하고 보존할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자신의 누리집이나 블로그에 수필과 같은 글을 써서 많은 이에게 공감을 얻기도 한다. 수필쓰기는 달라진 언어 환경에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사회적 참여 행위가 되고 있다.

나. 수필의 특징

수필은 흔히 글쓰기가 독자에게 직접 말하는 형식으로 표현되므로 작가의 개성이 잘 드러나고, 글감으로 선택한 소재나 주제를 중심으로 글의 내용이 전개된다.

수필은 시나 소설과 달리, 일정한 형식이 없이 글쓰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이나 주제를 중심으로 이들 진술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일이 중시된다. 이에 따라 수필의 구성은 글쓰기가 일상생활에서 느낀 것이나 깨달은 개인적 체험 가운데 글로 표현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여 그것을 독자에게 잘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을 생각하면 된다.

예컨대 작가가 겪은 흥미 있는 사건의 과정을 소개하고 싶다면, ‘발단-전개-위기-절정-결말’과 같은 소설적 방식을 취할 수도 있고, 잡지에 실린 짧은 경험담과 같이 ‘체험-느낀 점’의 단순한 방식을 취할 수도 있으며 자신의 주장을 중심으로 이들 논리적 순서에 따라 풀어 나갈 수도 있다.

수필은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글이지만, 수필 또한 어디까지나 글쓰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수필의 개념과 기능, 특징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은 작문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는 지식이지만 이후 문법 내용을 학습하는 데 바탕이 되는 내용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예컨대 수필의 특징은 문법 내용의 통일성과 관련되는 바, 이러한 학습 내용의 제시가 필요할 것임을 미리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4) 글의 종류별 문법 내용 제시

각 글의 종류별로 작문에 나타나는 특징을 분석하여 이를 언어 층위별로 정리하여 문법 내용을 제시한 것이다. 작문을 위한 문법 내용은 음운/표기, 어휘, 문장, 담화 차원으로 체계화하되 이를 구체적 항목과 예문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2. 안내문

다. 안내문과 문법

㉠ 표기
 안내문은 한글맞춤법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조사와 합성어와 같이 반드시 띄어써야 할 단어를 붙여쓰지 않도록 하며, '삼가하다→삼가다', 연결어미 '-구(→고)'의 구어형과 같이 흔히 틀리기 쉬운 단어도 유의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예) 휴먼자 깨서는(→휴먼자께서) 별도의 휴먼 구역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숙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말이나 소란한 행동을 삼가하십시오(→삼감시다).

의려어를 사용할 때에는 의려어 표기법에 맞는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예) 열자 출입문이 안 열릴 경우, 출입문 측 의사 옆 아래쪽에 설치된 출입문 비상록크(→비상 꼭) 커버를 열고 손잡이를 몸쪽으로 잡아 당긴 후, 출입문을 좌우로 열어 개방한다.

㉡ 어휘
 안내문은 정보 전달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글이므로 전문적인 용어는 삼가도록 하고 애매모호한 표현도 피하는 것이 좋다.
 (예) 소화전함을 열고 관창(노즐)을 잡고 적재된 호스를 함 밖으로 고집어 낸다.
 위 예문에서 관창과 노즐은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말이므로 좀 더 쉬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문맥에 맞는 정확한 어휘를 사용하되, 흔히 혼동하기 쉬운 '개발-개발' 등의 어휘는 사용에 더욱 주의할 기울여야 한다.
 (예) 우리는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증진과 문화향수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문화 강좌를 적극 개발(→개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내문에는 누구나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외국어나 불필요한 한자어 사용을 지양하여야 한다.

69

위에서 볼 수 있듯, 각 층위에서 바라볼 수 있는 문법 내용이 항목화되어 정리되어 있고 적절한 예문을 통해 해당되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전통적인 문법 내용과 달리 현상이나 추상적 개념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작문을 구사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사용 측면의 문법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실제 작문을 위하여 활용될 수 있는 지식을 제공한 것이다.

5) 예시문 분석과 본문 학습 내용 적용

작문 중심적 측면과 문법 중심적 측면의 학습 내용을 이해한 바탕에서 해당 갈래에 속한 글에 대하여 실제로 분석해 보는 것이다. 총괄적인 측면에서 해당된 글의 분석이 있으며, 언어 층위별의 분석도 제공된다.

1. 보고서 제2부 글의 종류에 따른 문법

라. 예시문

1 항토자원 관련 부처 간 연계 협력 체제의 구축

☐ 사업 개요

- 관계 부처 간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항토자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육성 추진
- 항토자원 관련 업무 수행에 대한 정보의 교환 및 활용을 통해 중복 투자 등 비효율성 문제 해소

☐ 추진 계획

- 항토산업 육성을 위한 관계 부처 간 MOU 체결(※11.3월)
 - 농림수산업부,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 ※ 특허청과는 핵심 자원의 지식재산등록 공동 추진 협의 완료(※11.3월)

<항토산업 육성 관계 부처 역할 분담(안)>

행안부	농식물부	지경부	문광부	특허청
종합적인 육성 지원, 항토자원 DB조달 구축	농수산물의 가공·마케팅 등 산업화	지역 연구사업 및 지역 특성화 사업	주요 항토 산업의 육성	지식재산권등록

- 부처별 지원사업의 연계협력 추진
 - 항토자원 육성 업무의 상호 성과의 공동 관리, 예산 사업의 연계 등

☐ 추진 일정

① 관계 부처 간 의견 조율
 행안부→관계 부처
 (※11.2월)

→

② MOU 협약안 작성 및 상호 협의
 관계 부처
 (※11.3월)

→

③ 상호 협력을 위한 MOU 체결
 관계 부처
 (※11.3월)

- 보고서는 공식적인 글이므로 '농림수산업부, 지식경제부'와 같이 관계 부처의 정식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② 문장

- '육성 추진, 협의 완료' 등과 같이 동결어미를 생략한 명사형으로 표현하여 내용을 간결하고 요약적으로 제시하였다.
- 관형어, 부사어 등을 사용하지 않고 주요 내용 중심으로 문장을 구성하여 정확한 정보 전달을 돕고 있다.

③ 담화

- 내용의 계층 구조를 드러내기 위해 특수 기호(□, ○, -)와 들여쓰기를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
- 도표와 좌표표 등을 이용하여 내용을 시각화하여 요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예시문 분석>

보고 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인 '사업개요'를 서두에 제시하고,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추진 일정'의 순으로 구성하여 보고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① 어휘

- 비교적 많이 알려진 약어인 'MOU'를 사용하여 간결하게 표현하고 있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갈래의 전형적 성격을 반영하고, 앞서 학습한 내용을 적용하기 적절한 글을 제시함으로써 학습 내용의 정착 및 수준의 심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6) 학습 활동

학습 활동은 작문과 관련된 문법적 지식을 다양한 상황에 맞게 적용하도록 하되, 단순한 측면의 적용에서 실제 한 편의 글을 완성해가는 순서로 제시되어 있다. 즉 해당 갈래의 글을 쓰는 데 활용될 수 있는 지식이나 기능을 익힐 수 있도록 활동을 수행하되 최종적으로는 해당 갈래의 글을 한 편 쓸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③ 다음 상황에 필요한 안내문을 작성해 보자.

상황	초등학교 운동장을 하고 후, 주말 동안은 개방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함.
----	--

① 위의 상황에 필요한 정보를 정리해 보자.

-
-
-

※ 곁잡이

안내문의 구조와 안내의 목적을 생각해 본다.

2. 안내문

② 위의 상황을 알리는 안내문을 제목을 작성해 보자.

※ 곁잡이

안내문의 제목에 안내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되도록 한다.

③ ①과 ②의 내용을 바탕으로 아래 안내문의 구조에 맞춰 작성해 보자.

※ 곁잡이

- 제목: 안내문의 제목은 안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 안내 내용: 안내의 목적과 안내 내용을 간결하고 정확하게 제시한다.
- 발송 주체와 날짜: 안내하는 주체와 날짜를 표시한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학습 활동의 최종 국면에는 해당 글의 종류에 속한 한 편의 글을 전체적으로 완성할 수 있도록 학습 활동이 제시되어 있다. 이는 작문을 위한 문법의 학습을 단순히 지식의 습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수행으로 확장시키고자 한 것이다.

4. 교육 자료의 특성

1) 학습 대상

본 교육 자료는 주로 정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마친 수준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개발하였다. 이는 현재의 국민 교육 수준을 고려해 볼 때, 평균적인 국어 능력을 지닌 일반 국민 전반을 대상으로 개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높은 수준에서 낮은 수준에 이르는 다양한 학습자가 이 교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문의 문법 내용 서술은 문법적 개념어나 난해한 개념 등은 최대한 배제하고 가급적이면 직관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선택하였다. 그리고 활동 제시에는 그것의 해결과 관련되는 일종의 지침을 친절하게 제공함으로써 활동의 평가나 측정이 아니라 실제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익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2) 내용

본 교육 자료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배포, 출판 가능한 교육 자료를 개발하는 것이 목표이다. 따라서 대상 학습자가 지닌 것으로 예상되는 수준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에 기존 학습의 연계선 상에서 학습될 수 있도록, 현행 교육과정인 ‘독서와 문법’ 교육과정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가급적이면 어렵거나 난해한 문법 내용은 배제하였으며 보다 실용적인 면이 강한 내용을 선별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기존의 문법 교육이 언어 사용 영역과의 통합성을 적절히 구현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글의 종류에 따른 사용 규칙이나 규범 등도 폭넓은 의미의 문법으로 해석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실용 문법의 교육 내용을 다양하게 제시하였다.

3) 구성

본 교재는 크게 보면 ‘문법 내용 제시-활동’이라는 이원적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1부에서는 작문을 위한 기초 문법을 제공하여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부에서는 작문의 갈래를 중심으로 문법 내용을 초점화 함으로써 학습자의 다양한 요구에 따라 선택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각각의 대단원은 쉬운 활동에서부터 어려운 활동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 음운·표기에서 담화에 이르는 활동이 균형 있게 배치되어 있으므로 어떤 대단원을 먼저 학습하거나 혹은 나중에 학습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도록 구성하였다.

한편, 대체로 음운·표기, 어휘, 문장, 담화 층위의 순으로 활동을 배치하여 교수·학습 상황에서 계열성에 따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점차 단순한 지식이나 기능의 확인, 숙련화에서 시작하여 다양한 작문 상황에 따른 실제 쓰기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발전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5. 교수요목

본 연구에서 개발한 교수요목은 제1부 작문을 위한 기초 문법과 제2부 글의 종류에 따른 문법으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제1부는 언어 층위별로 단원을 구성하여 본문의 학습 내용과 학습 활동의 의도를 정리하였으며, 제2부는 글의 종류를 단원으로 구성하였는데, 각 단원별 학습 내용을 작문과 문법으로 나누어 기술하고, 학습 활동의 의도를 정리하였다.

제1부 작문을 위한 기초 문법

단원명	학습 내용		활동 의도
	소단원 구분	본문	
1. 맞춤법에 맞게 글쓰기	(1) 한글 맞춤법의 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칙에 반영된 한글 맞춤법의 두 원리 - 음운 변동과 한글 맞춤법 - 불규칙 용언과 한글 맞춤법 - 사이시옷의 표기 - 같은 소리, 다른 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글 맞춤법의 원리 이해하기 - 한글 맞춤법에 어긋난 예 찾기 - 음운 현상과 표기의 관계 이해하기 - 표기에 따른 불규칙 용언의 의미 이해하기 - 잘못된 사이시옷 표기 찾기 - 의미에 따른 같은 소리, 다른 표기 이해하기
	(2) 띄어쓰기와 문장 부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띄어쓰기의 원리 - 띄어쓰기에 따른 의미 차이 - 문장 부호의 역할 - 문장 부호에 따른 특별한 표현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띄어쓰기에 따라 단어와 구 구별하기 - 띄어쓰기에 따른 의미 차이 이해하기 - 구체적인 예들에 띄어쓰기 적용하기 - 문장 부호 사용에 따른 의미 차이 이해하기 - 문장 부호의 표현 효과 이해하기
2. 어휘 사용에 유의하며 글쓰기	(1) 어휘의 적절한 선택과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휘의 의미와 용법 - 어휘의 정확한 의미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맥에 따라 어휘 사용하기 - 어휘를 통한 문장 완성하기

단원명	학습 내용		활동 의도
	소단원 구분	본문	
	(2) 어휘의 체계와 양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휘의 체계와 사용 효과 - 어휘의 양상과 사용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휘의 체계에 따라 구분하기 - 한자어 사용의 효과 알기 - 외래어 사용의 효과 알기 - 어휘 양상에 따른 효과 알기 - 문맥에 따른 관용어 사용하기
	(3) 어휘의 다양한 의미와 의미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휘의 의미 종류 - 어휘의 의미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연적 의미, 내포적 의미 구분하기 - 어휘의 다양한 의미 알기 - 어휘의 의미관계와 작문의 효과 이해하기
3. 문장 구조에 유의하며 글쓰기	(1) 문장 성분과 어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장 성분의 종류 - 문장 성분 간의 호응 - 문장의 어순과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장 성분의 분석하기 - 어순의 효과 알기 - 문장 성분 간의 호응에 맞게 쓰기
	(2) 문장 구조와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장의 짜임 - 중의적 문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겹문장 만들기 - 중의적 문장의 의미 해석 - 중의적 표현의 효과 알기
	(3) 문법 요소의 쓰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결표현 - 피사동 표현 - 높임 표현 - 인용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사동 문장 만들기 - 피동 표현의 오류 알기 - 높임 표현 바르게 사용하기 - 인용문 형식 알기 - 인용문의 표현 효과 알기
4. 통일성과 응집성에 유의하며 글쓰기	(1) 통일성과 글의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성의 개념 - 글의 계층적 구조와 통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일관성 파악하기 - 주제문과 뒷받침문장 연결하기 - 통일성을 고려하여 개요짜기
	(2) 응집성과 표현의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집성의 개념과 종류 - 지시의 개념과 기능 - 접속의 개념과 기능 - 대용의 개념과 기능 - 생략의 개념과 기능 - 담화 표지어의 개념과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집성을 높이는 문법적 장치 알기 - 지시, 접속, 대용, 생략 장치 파악하기 - 담화 표지어의 종류와 기능 알기

제2부 글의 종류에 따른 문법

단원명	학습 내용		활동 의도
	작문	문법	
1. 보고서	- 보고서의 개념과 기능 - 보고서의 갈래적 특징	표기 어문규범, 띄어쓰기	- 정확하고 간결한 문장 쓰기 - 어문규범에 맞게 쓰기 - 보고서의 특성 알기 - 보고서 작성해 보기
		어휘 관용표현, 줄임말 (약어)	
		문장 문장 구조, 능동문, 종결 표현	
		담화 구조 표지	
2. 안내문	- 안내문의 개념과 기능 - 안내문의 갈래적 특징	표기 어문규범, 외래어 표기	- 정확하고 간결한 문장 쓰기 - 안내문의 특성 알기 - 안내문 작성해 보기
		어휘 어휘의 의미, 외국어/한자어	
		문장 문장 구조, 문장성분 간의 호응, 종결 표현	
		담화 담화 구조, 구조 표지	
3. 논설문	- 논설문의 개념과 기능 - 논설문의 장르적 특징 - 논설문의 문법적 특징과 관용 표현	표기 맞춤법, 띄어쓰기	- 어법에 맞게 표현하기 - 문맥에 맞게 적절한 어휘 사용하기 - 주술 호응, 부사어 호응 고려하여 쓰기 - 지시, 대용 표현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 한 편의 논설문 써 보기
		어휘 신문에 자주 쓰이는 고사성어	
		문장 높임, 시제, 부사어, 주술 호응, 간결체	
		담화 지시, 대용, 논설문의 구조, 문제와 해결 구조	
4. 건의문	- 건의문의 개념과 기능 - 건의문의 장르적 특징 - 건의문의 문법적 특징과 관용 표현	표기 맞춤법, 띄어쓰기	- 어법에 맞게 표현하기 - 문맥에 맞게 적절한 어휘 사용하기 - 부사어 호응, 주술 호응 고려하여 쓰기 - 접속 표현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 건의문의 요건 알기 - 한 편의 건의문 써 보기
		어휘 효과적인 어휘, 혼동하기 쉬운 어휘	
		문장 주술 호응, 주장 표현 종결어미, 인용 표현	
		담화 지시, 접속, 담화 표지어, 건의문의 형식	

단원명	학습 내용		활동 의도
	작문	문법	
5. 초대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대글의 개념과 기능 - 초대글의 갈래적 특징 	표기 문장 부호, 띄어쓰기, 맞춤법	- 올바른 띄어쓰기 이해하기
		어휘 초대글에 나타나는 특정 어휘, 유의어	- 초대글의 특정 어휘 이해하기
		문장 높임 표현, 도치	- 정확한 높임 표현 사용하기
		담화 지시어, 반복	- 올바른 지시어 사용하기 - 한 편의 초대글 써 보기
6. 감사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글의 개념과 기능 - 감사글의 갈래적 특징 	표기 띄어쓰기, 맞춤법	- 올바른 띄어쓰기 이해하기
		어휘 감사글에 나타나는 특정 어휘	- 감사글의 특정 어휘 이해하기
		문장 높임표현, 도치, 인용	- 정확한 높임 표현 사용하기
		담화 접속 표현에 따른 통일성과 응집성	- 접속 표현에 따른 통일성과 응집성 이해하기 - 한 편의 감사글 써 보기
7. 수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필의 개념과 기능 - 수필의 갈래적 특징 	음운 음절 및 음운 반복, 음운의 교체, 첨가	- 대화의 인용을 통한 도입하기
		어휘 유의어, 관용표현, 유행어, 신어	- 유의어나 관용 표현 사용 효과 알기
		문장 성분 생략, 성분 도치, 문장의 길이	- 수필의 명사형 종결의 효과 알기
		담화 통일성, 내용 전개 방식	- 한 편의 수필 써 보기
8. 기행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행문의 개념과 기능 - 기행문의 특징 	어휘 방언, 고유명사	- 설의 표현, 시제, 명사형 표현의 사용 효과 알기
		문장 의문문, 시제, 인용 표현, 비유적 표현	- 기행문의 갈래적 특징 알기
		담화 내용 전개 방식, 담화 표지어	- 여행지 풍경 묘사하기 - 한 편의 기행문 써 보기

Ⅲ. 종합 및 제언

1. 종합

본 연구의 목적은 작문(쓰기) 능력의 향상을 위한 문법 교육 자료를 개발하는 데에 있다. 이는 2015년에 수행한 ‘작문(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문법 내용 개발’의 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일반 국민이 문법 지식을 활용하여 실질적으로 작문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 자료로 구체화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교육 자료는 국민의 흥미와 모든 세대에 유익한 작문 교육 자료로, 실용서·교양서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작문(쓰기) 능력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활동과 해결 방안을 개발하며, 이러한 사업 수행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와 국어 능력 향상 사업과 연계성상에서 구현되었다.

본 연구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작문(쓰기)와 실용 문법의 교육을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러한 일환에서 본 교육 자료는 학교 문법을 토대로 하여 기초 문법 지식을 학습하고, 이를 다양한 작문 목적과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학습 내용 제시와 학습 활동, 해설로 내용을 구조화하였으며, 이들은 상호 연계하는 방식으로 개발되었다. 또한 이 교육 자료는 다양한 배경을 지닌 일반 국민들이 각자의 요구에 따라 자기 주도형 학습의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기관이나 학교 등에서도 수업 교재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본 교육 자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교육 자료는 크게 제1부 작문을 위한 문법과 제2부 글의 종류에 따른 문법으로 구분하고, 제1부는 음운/표기, 어휘, 문장, 담화의 언어 층위별로 단원을 구성하였으며, 제2부는 보고서, 안내문, 건의문, 논설문, 초대글, 감사글, 수필, 기행문의 총 8개의 갈래로 단원을 구성하였다. 총 12개의 단원에서 70여개의 학습 활동, 해결방안을 개발하였다. 글의 종류별로는 작문에서의 학습 내용과 문법에서의 학습 내용을 모두 제공하고, 학습 활동에서 단순 지식이나 기능의

확인에서부터 다양한 작문 상황에서의 실제 쓰기 활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교육 자료를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작문(쓰기)와 문법 측면의 교양 교육, 실용 문법 내용의 구체적 제시, 향후 국어 능력 향상 사업의 모범 사례로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정책 제언

본 연구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언어 사용의 양상을 문법과 연계함으로써 국민의 국어 능력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국어 능력 향상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된 것이다.

여기서는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이라는 측면에 주목하여 향후 사업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언하도록 한다.

○ 작문, 독서에 관련된 국어 능력 개발 사업 성과물의 보급, 배포 및 확산

국립국어원(2013), 국립국어원(2014), 국립국어원(2015) 등과 본 연구를 통하여, 독서(읽기) 영역과 문법의 연계 가능성, 작문(쓰기) 영역과 문법의 연계 가능성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교육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국민의 국어 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적 수월성도 증명되었다. 문법을 통한 문식 능력 향상 사업의 성공적 수행은 실제 국민에게 사업의 성과물을 제공하기 위한 기반 작업을 완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 등을 편성하여 본 연구의 성과물인 ‘작문(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문법 교육 자료’에 더하여 이미 수행되어 개발된 성과물인 ‘독서(읽기) 능력 향상을 위한 문법 교육 자료’의 출판 및 보급, 배포하는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업의 성과물은 도서 형태의 인쇄 매체로 출판, 보급하거나 이러닝(e-learning) 학습 콘텐츠, 스마트 폰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적용하여 각급 학교나 공공 기관 등에 배포한다면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어문화 학교에서도 활용하도록 한다.

○ 문식성 기반의 국어 능력 발전 사업 추진

현재 수행된 국어 능력 발전 사업의 성과는 ‘문법’과 개별 언어 사용 영역과의 통합을 시도한 것으로 학계의 일부 부정적 전망과는 달리, 언어 사용(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과 연계 가능성이 가장 어려운 영역인 문법을 상호 통합한 구체적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작문과 문법, 독서와 문법으로 분과적으로 수행되었던 국어 능력

발전 사업을 한층 고도화하여 사업의 효과성과 적용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다. 이는 국어 능력의 범주를 문식성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이러한 관점에서 ‘작문-문법-독서’의 형태나 ‘작문-문법-화법-독서’ 등의 융합형 사업으로 국어 능력 발전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실제 언어 사용의 국면에 더욱 근접한 국어 능력 발전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소외 계층의 문식성을 지원하는 교육 내용 개발 사업 추진

SNS나 다양한 매체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함에 따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신 문식성과 복합 양식 문식성 기반의 국어 능력에 대한 규정과 교육 내용의 마련이 요청되고 있다. 바뀌어가는 매체 환경은 종전과는 다른 언어 사용 방식과 규범이 자리잡아 가고 있으나 이는 사회의 주도적 계층에게는 큰 문제가 없으나 노년층이나 다문화 가정 등 계층적으로 소외된 계층은 이러한 언어의 변화에 더욱 소외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식성의 변화는 또 다른 불평등과 사회 불안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소외 계층의 문식성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교육 내용 개발 사업의 기획과 추진이 시급하다. 이를 위하여 소외 계층에게 요구되는 구체적인 국어 능력을 조사, 개념화하고 교육 내용으로 구체화하고, 관련 교사 교육 사업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 고영근 외(2009), 『한국문학작품과 텍스트 분석』, 집문당.
- 고영근·구본관(2008),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 교육과학기술부(2009),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 교육과학기술부(2009), 『국어과 교육과정』.
- 교육과학기술부(2011), 『국어과 교육과정』.
- 교육인적자원부(2007), 『국어과 교육과정』.
- 교육인적자원부(2008),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2 국어』.
- 구본관(2010), “문법 능력과 문법 평가문항 개발의 방향”, 『국어교육학연구』 37, 국어교육학회.
- 국립국어원(2013), “독서(읽기) 능력 향상을 위한 문법 내용 개발”, 국립국어원.
- 국립국어원(2014), “독서(읽기) 능력 향상을 위한 문법 교육 자료 개발”, 국립국어원.
- 국립국어원(2015), “작문(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문법 내용 개발”, 국립국어원.
- 김동환(2008), “텍스트언어학에 입각한 문학텍스트 분석 가능성”, 『인문과학연구』 9, 대구가톨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김봉순(2010), “국어교육을 위한 텍스트 분류 체계 연구 -읽기와 쓰기 영역을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39, 국어교육학회.
- 김은성(2008), “국어 문법교육에서 텍스트 처리의 문제”, 『국어교육학연구』 33, 국어교육학회.
- 김정선·이삼형·정재찬·김혜정·최형용(2014), “독서문법 내용 개발을 위한 기초 조사”, 『한국언어문화』 53, 한국언어문화학회.
- 김종률(2011), “국어과 통합 교육을 위한 문제해결 방안 연구 - 화법·작문·독서에 관련된 사고를 중심으로”, 『청람어문교육』 44, 청람어문학회.
- 김주환(2010), “국어과 교육과정의 통합성 연구”, 『새국어교육』 85, 한국국어교육학회.
- 김혜숙·고희성·김규훈·박윤조·이미정(2012), 『문법교육과 텍스트의 만남: 실천적 탐색과 적용』, 동국대학교 출판부.
- 김혜숙(2011), “통합적 문장교육의 교수-학습 방안 연구 - 맥락과 텍스트 중심의 활동 교재 구안을 위하여”, 『새국어교육』 89, 한국국어교육학회.
- 김혜정(2004), “읽기 쓰기 통합 활동에서 의미 구성의 내용과 이행 과정 연구”, 『독서연구』 11, 한국독서학회.
- 김혜정(2009), “국어과 교육과정 내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읽기 쓰기 영역의 내용 선정에 대한 학문적 타당성 및 외연 검토-”, 『작문연구』 8, 한국작문학회.
- 김호정(2006), “담화 차원의 문법 교육 내용 연구”, 『텍스트 언어학』 21, 한국텍스트언어학회.

- 남가영(2011), “문법교육용 텍스트의 개념 및 범주”, 『국어교육』 136, 한국어교육학회.
- 남미혜·이은경(2005),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공지문 쓰기』, 커뮤니케이션 북스.
- 노명완·박영목(2008), 『문식성 교육 연구』, 한국문화사.
- 류보라(2010), “국어 교과서의 통합 단원 구성방식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29, 국어교육학회.
- 민현식(2009), “국어 능력 실태와 문법 교육의 문제점”, 『국어교육연구』 44, 국어교육학회.
- 민현식(2010), “통합적 문법 교육의 의의와 방향”, 『문법교육』 12, 한국문법교육
- 박갑수(1994), 『국어문체론』, 대한교과서.
- 박정진(2005), “국어 교과서 개발을 위한 방향 탐색”, 『국어교육』 118, 한국어교육학회.
- 박종미(2012), “문법 능력과 쓰기 능력의 상관성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형우(2009), “문법 교육과 관련된 탐구 학습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새국어교육』 32, 한국국어교육학회.
- 박형우(2010), “문법 영역 교육과정의 구성 방안 연구”, 『청람어문교육』 41, 청람어문교육학회.
- 서정수(1999),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문장력 향상의 길잡이』, 한강문화사.
- 서 혁(1991), “단락·문장의 중요도 파악과 단락의 주제문 작성능력이 요약에 미치는 효과: 설명문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 혁(1996), “담화의 구조와 주제 구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서 혁(2006), “국어교육 연구의 현황과 발전 방향: 읽기·독서 영역을 중심으로”, 『교과교육학연구』 10,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교과교육연구소.
- 성낙수(2004), “국어 문법 교육의 문제점 - 고등학교『문법』을 중심으로-”, 『문법교육』 1, 한국문법교육학회.
- 송현정(2010), “문법 과목의 영역 구조와 내용”, 『국어교육』 131, 한국어교육학회.
- 신명선(2006), “통합적 문법 교육에 관한 담론 분석”, 『한국어학』 31, 한국어학회.
- 신명선(2008), “읽기교육과 문법”, 『문식성교육연구』, 한국문화사.
- 신호철(2007), “국어교육의 상보적 통합 - 문법 영역을 중심으로”, 『문법 교육』 7, 한국문법교육학회.
- 신호철(2009), “국어교육에서 연계성의 개념과 양상 - 문법 영역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81, 한국국어교육학회.
- 양세희(2012), “문장 교육과 읽기 교육의 통합 방안”, 『국어교육학연구』 43, 국어교육학회.
- 오현아(2011), “국어교육: 화제-초점 중심의 텍스트 구조 유형화에 대한 고찰 -설득 텍스트를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87, 한국국어교육학회.
- 우문영(2009), “통합적 국어교육 방법 연구”, 『한어문교육』 20,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 이관규(2009), “통합적 문법교육의 의의와 방법”, 『문법교육』 11, 한국문법교육학회.
- 이관규(2011), “통합적 국어교육의 가치와 '독서와 문법'”, 『국어교과교육연구』 18,

작문(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문법 교육 자료 개발

국어교과교육학회.

- 이관희(2009), “문법교육 위계화를 위한 방법론 개발 -품사 교육을 대상으로”, 『문법교육』 10, 한국문법교육학회.
- 이도영(1998), “언어사용 영역의 내용체계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삼형(1994), “설명적 텍스트의 내용 구조 분석 방법과 교육적 적용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삼형(1999a), “인지적 읽기 모델의 비판적 고찰: 스키마 이론의 독해관과 읽기 지도 모델을 중심으로”, 『독서연구』 4, 한국독서학회.
- 이삼형(1999b), “텍스트 구조 분석 연구 -화제 전개를 중심으로”, 『텍스트언어학』 6, 한국텍스트언어학회.
- 이삼형(1999c), “텍스트언어학의 응용: 텍스트 이해와 추론”, 『텍스트언어학』 7, 한국텍스트언어학회.
- 이삼형(2010), “‘문법 영역’과 ‘작문 영역’의 통합 문제”, 『문법교육』 12, 한국문법교육학회.
- 이삼형·김시정(2014), “‘독서 문법’의 가능성 탐색”, 『국어교육』 145, 한국어교육학회.
- 이삼형·김중신·김창원·이성영·정재찬·서혁·심영택·박수자(2001), 『국어교육학』, 소명.
- 이삼형·김중신·김창원·이성영·정재찬·서혁·심영택·박수자(2007), 『국어교육학과 사고』, 도서출판 역락.
- 이영주(2007), “통합적 문법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고등학교 국어교과서 국어 지식 영역을 중심으로”, 『문법교육』 7, 한국문법교육학회.
- 이은희(1999), “텍스트언어학의 응용: 접속 구성과 언어 이해 교육 - 언어 이해 과정을 중심으로-”, 『텍스트언어학』 7, 한국텍스트언어학회.
- 이은희(2008),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과 텍스트 중심 접근”, 『텍스트언어학』 25, 한국텍스트언어학회.
- 이재승(1992), “통합 언어(whole language)의 개념과 국어 교육에의 시사점”, 『국어교육』 79, 한국어교육학회.
- 이재승(2004), “언어 기능 통합 지도의 배경과 층위”, 『한국초등국어교육』 25,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 이재승(2006), “통합적 국어교육의 개념과 성격”, 『한국초등국어교육』 31,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 이지영(2006), “한국어 학습자의 구어 담화 능력을 배양을 위한 담화 정보 활용”, 『한국어교육』 17,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이지호(1998), “국어과 통합 교육의 논리”, 『국어교육』 98, 한국국어교육학회.
- 임규홍(2007), “담화문법 교육에 대하여”, 『문법교육』 2, 한국문법교육학회.
- 임규홍(2010), “문법과 독서의 통합성”, 『문법교육』 12, 한국문법교육학회.
- 전영주·서혁(2007), “텍스트 기반 문장종결 표현 교수·학습 방법”, 『교과교육학

- 연구』 11, 이화여자대학교 교과교육연구소.
- 전은주(2010), “화법과 문법의 통합 교육 내용 구성”, 『문법교육』 12, 한국문법교육학회.
- 정보근(2011), 『쉽게 쓰는 보고서의 비밀』, 시간여행.
- 정재찬(2012),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국어과 교육과정’의 적용을 위한 고등학교 선택 과목 교과서 개발 방향”, 『국어교육』 137, 국어교육학회.
- 정준섭(1996), 『국어과 교육과정의 변천』,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제민경(2011), “텍스트 중심 문법교육의 방향 탐색: 신문 텍스트의 ‘전망이다’ 구문을 중심으로”, 『국어교육』 134, 한국어교육학회.
- 주세형(2005), “통합적 문법 교육 내용 설계의 원리와 실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주세형(2006), “문법 지식과 국어학적 지식의 지평 확장”, 도서출판 역락.
- 최영환(1998), “기능과 전략 중심의 교육과정 설계 방안”, 『국어교육』 95, 한국어교육학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4), 『국어과 교육과정 실태 분석 및 개선 방향 연구』.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국어 교과서 개발의 기본 방향』.
-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2), 『한국의 직업지표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허재영(2004), “문법 교육 과정의 변천”, 『문법교육』 1, 한국문법교육학회.
- Anderson, John R.(1983), *The Architecture of Cogni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 Beaugrande, R. & Dressler, W.(1981), *Introduction to Text Linguistics*, Longman Linguistics Library; 26.
- Beers, K.(2001), *Contextualizing grammar*, Voices from the middle.
- Berkenkotter, C.(1981), *Understanding a Writer's Awareness of Audience*, College Composition and Communication.
- Berkowitz, S., & Taylor, B. M.(1981), *The effects of text type and familiarity on the nature of information recalled by readers*, In M. Kamil(ed.), *Directions in reading: Research and instruction*.
- Brinker, K.(1988), *Linguistische textanalyse: eine einguehrung in grundbegriffe und mehtoden*, Berlin: Erich Schmidt.
- Brown, H. Douglas.(2000),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Longman.
- Brown, H. Douglas.(2001), *Teaching by principles: An interactive approach to language pedagogy*, Longman.
- Bruner, J. S.(1963), *The process of educat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Carter, R., McCarthy, M.(1997), *Grammar, tails, and affect: Constructing expressive choices in discourse*, *Text*, Vol.17 No.3 [1997].
- Carter, R., McCarthy, M.(2004), *Talking, Creating: Interactional Language, Creativity, and Context*, *Applied linguistics* Vol.25 No.1 [2004]

- Cox, Carole.(1988, 2005), *Teaching language arts: A student-and response- centered classroom*, Pearson Education, Inc.
- Cramer, Ronald L.(2004), *The language arts: A balanced approach to teaching reading, writing, listening, talking, and thinking*, Pearson Education, Inc.
- Durkin, D.(1981), *Reading comprehension instruction in five basal reader series*, Reading Research Quarterly.
- Flower, L. S. & Hayes, J. R.(1981), *A Cognitive Process Theory of Writing*. College Composition and Communication.
- Fontaine S. I.(1984), *Evidence of Audience Awareness in the Writing and Writing Processes of Nine-and Eighteen-Year Olds*.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 Halliday, M.A.K. & Hasan(1989), *Language, Context, and text: aspects of language in a social-semiotic perspective*, Oxford University press.
- Halliday, M.A.K. & Kress, Gunther R.(1976), *Halliday: system and function in language: selected papers*,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Halliday, M.A.K. & McIntosh, Angus. & Stevens, P.(1964), *The Linguistic Science and Language Teaching*, Longman.
- Heineann W. & Viehweger D.(1991), 백설자 역(2001), 텍스트 언어학 입문 (Textlinguistik: eine einfüfrung), 역락.
- Hillocks, G., Jr.(1987), *Research on written composition: New directions for teaching*, Urbana, IL: National Conference on Research in English and the ERIC Clearinghouse on Reading and Communication Skills.
- Hoover, W. A., & Gough, P. B.(1990), The simple view of reading. Reading and Writing,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2, p. 127-160.
- Johns, J. L., & VanLeirsburg. P.(1994), *Promoting the reading habits*, In E.H. Cramer & M. Castle(Eds.) *Fostering the love of reading*. DE: IRA.
- Jonassen, D. H.(1982), *The Technology of Text*, Educational Technology Pub.
- Jones, B. F.(1985), *Teaching cognitive strategies and text structures within language arts program*, In J. W. Segal et al (Eds.) *Thinking and learning skills*.
- Kintsch, W.(1998), *The role of knowledge in discourse comprehension: A construction-integration model*, Psychological Review.
- Kintsch, W., & Van Dijk, T. A.(1978), *Toward a model of text comprehension and production*, Psychological Review.
- Knapp Peter · Watkins Megan(2005), 『*Genre, text, grammar: technologies for teaching and assessing writing*』 .
- Langer, J. A. & Fihan. S.(2000), Writing and reading relationships: constructive tasks. In R. Indrisano & J. R. Squire(Eds.). *Perspectives on writing*. IRA.

- Larsen-Freeman, Diane.(2003), *Teaching language: from grammar to grammaring*, Boston: Thomson/Heinle, c2003.
- Mathewson, G. C.(1994), *Model of attitude influence upon reading and learning to read*, In R. D. Ruddell, M. R. Ruddell. & H. Singer (Eds.), *Theoretical models and processes of reading* (4th ed.). DE: IRA
- Mckenna, Michael C. · Dougherty Stahl, Katherine A(2009). 『*Assessment for Reading Instruction*』 .
- Meyer, B. J. F., & Rice, G. E.(1984), *The structure of text*, In P. D. Pearson, R. Barr, M. L. Kamil, & P. Mosenthal(eds.), *Handbook of reading research*, White Plains, NY: Longman.
- Noguchi, R. R.(1991), *Grammar and the teaching of writing: Limits and possibilities*, National Council of Teachers of English.
- Noyce, R. M., & Christie, J.F.(1983), Effects of an integrated approach to grammar instruction on third graders' reading and writing, *Elementary School Journal*.
- Nystrand, M.(1987), *The role of context in written communication*, In R. Horowitz, & S. J. Samuels (Eds.), *Comprehending oral and written communication*. New York: Academic Press.
- Paris, S. G., Lipson, M. & Wixson, K. K.(1983), *Becoming a strategic reader*,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 Peter Knapp & Magan Watkins(2005), *Genre, text, grammar: technologies for teaching and assessing writing*, Univ of New South Wales.
- Strickland, D. S., L. Galda, B.E. Cullinan.(2004), *Language Arts Learning and Teaching*, Thomson Learning Academic Resource Center.
- Thornbury, Scott.(1999, 2nd. 2000), *How to teach grammar*, Longman.
- Van, Dijk(1977), 『*Grammars and descriptions: studies in text theory and text analysis*』 , Research in text theory ; v. 1.
- Van, Dijk(1977), 『*Text and context: explorations in the semantics and pragmatics of discourse*』 , London: Longman, c1977.
- Weaver, C.(1996), *Teaching grammar in context: Why and how*. Portsmouth, NH: Heinemann.
- Weaver, C.(1998), *Teaching grammar in the context of writing*, In C. Weaver(Ed.)(1998), *Lessons to share: On teaching grammar in context*, Portsmouth, NH: Heinemann.
- Weaver, C. McNally, C., & Moerman, S.(2001), *To grammar or not to grammar: That is not the question!*, voices from the middle.
- 西田徹(2004), 김혜숙 역(2006), 『기획 · 제안서 작성 기술 200 무작정 따라하기』, 길벗.

작문(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문법 교육 자료

집필: 이삼형, 김혜정, 최형용, 김정선, 김시정

국립국어원

제1부 작문을 위한 기초 문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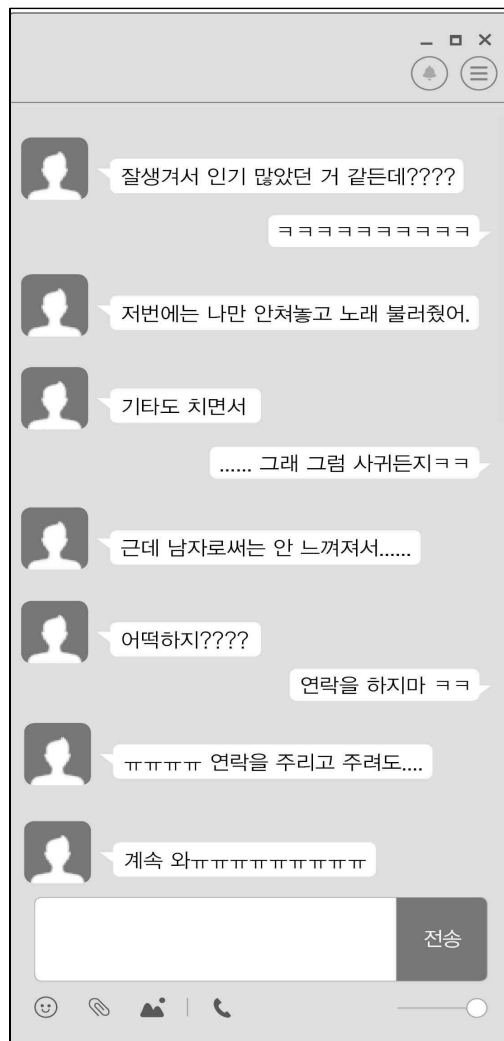
1. 맞춤법에 맞게 글쓰기	3
(1) 한글 맞춤법의 원리 - 소리와 표기의 친소(親疎)	3
(2) 띄어쓰기와 문장 부호	13
2. 어휘 사용에 유의하며 글쓰기	19
(1) 어휘의 적절한 선택과 사용	19
(2) 어휘의 체계와 양상	24
(3) 어휘의 다양한 의미와 의미관계	31
3. 문장 구조에 유의하며 글쓰기	36
(1) 문장 성분과 어순	36
(2) 문장 구조와 의미	42
(3) 문법 요소의 쓰임	46
4. 통일성과 응집성에 유의하며 글쓰기	54
(1) 통일성과 글의 의미	54
(2) 응집성과 표현의 효과	59

1. 맞춤법에 맞게 글쓰기

(1) 한글 맞춤법의 원리 - 소리와 표기의 친소(親疎)

<소단원 학습 내용 안내>

다음 문자 메시지에서 의미가 잘 통하지 않는 부분을 찾아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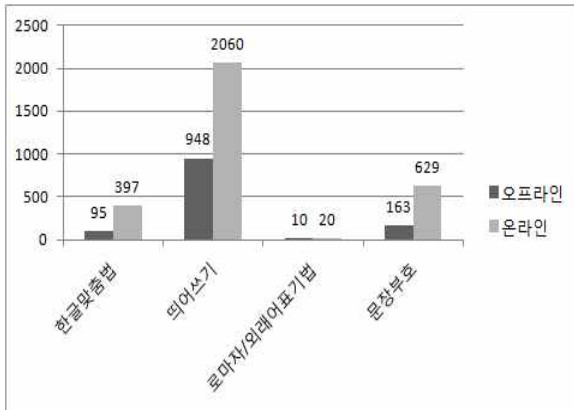


이 문자 메시지 가운데 ‘같든데’, ‘안쳐’, ‘남자로써’, ‘주리고 주려도’는

제1부 작문을 위한 기초 문법

각각 ‘갈던데’, ‘얹혀’, ‘남자로서’, ‘줄이고 줄여도’를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특히 최근에 한글 맞춤법 오류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 특히 높다는 다음 오류 출현 조사 결과도 참고할 만하다.



매체별 오류 출현 빈도

	오프라인	온라인
한글 맞춤법 오류	7.8%	12.8%
띄어쓰기 오류	78.0%	66.3%
로마자/외래어 표기법 오류	0.8%	0.6%
문장 부호 오류	13.4%	20.3%
	100%	100%

이것은 온라인에서의 글쓰기가 오프라인에서의 글쓰기보다 ‘소리’에 충실한 데 한 이유가 있다. 따라서 한글 맞춤법은 ‘소리’와 ‘표기’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집중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글 맞춤법과 작문의 관계>

- ▶ 한글 맞춤법은 한글로써 우리말을 표기하는 규칙의 전반을 의미한다.
- ▶ 한글 맞춤법은 국민의 어문 생활을 위해 제정된 것이며 한글 맞춤법에 맞는 표기는 자신의 의견을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토대가 되며, 이후에 창조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가. 총칙에 반영된 한글 맞춤법의 두 원리 - 표음주의, 표의주의

한글 맞춤법의 원리는 총칙 제1항에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소리대로’는 발음 나는 대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표음주의의 원리를 명시한 것이다.

(예) ‘꼬락서니’는 ‘꼴’에 ‘-악서니’가 결합한 것이지만 ‘소리대로’ 적은 것이다.

‘어법에 맞도록’은 뜻을 중심으로 적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표의주의의 원리를 명시한 것이다.

(예) ‘값이, 값도, 값만’은 [갑씨], [갑또], [감만], ‘먹다, 먹는, 먹으니’는 [먹따], [멍는], [머그니] 소리 나지만 ‘어법에 맞도록’ 적은 것이다.

따라서 ‘소리대로’ 적는 것과 ‘어법에 맞도록’ 적는 것을 잘 구별할 필요가 있다.

나. 음운 변동과 한글 맞춤법

음운 변동은 크게 교체, 축약, 탈락, 첨가의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들 가운데는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경우도 있다.

음운 변동	의미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않는 경우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경우
교체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음화 (예) 국민[궁민] - 유음화 (예) 신라[실라] - 된소리되기 (예) 국가[국까], 할 수[할 쑤] - 음절 끝소리 규칙 	두음법칙 (예) ‘경로’와 ‘노인’ (ㄱ→ㄴ)

제1부 작문을 위한 기초 문법

음운 변동	의미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않는 경우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경우
		(예) 낮[날] - 구개음화 (예) 굳이[구지]	
축약	두 개의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 로 바뀜	- 거센소리되기 (예) 입학[이팍]	
탈락	어떤 음운이 일정 한 환경에서 사라짐	- ‘ㅎ’ 탈락 (예) 좋은[조은]	- ‘으’ 탈락 (예) 씨(←쓰-+-어) - ‘ㄹ’ 탈락 (예) 나는(날-+-는) 다달이(달+달+이)
첨가	어떤 음운이 일정 한 환경에서 새로 생김	- ‘ㄴ’ 첨가 (예) 담요[담뇨]	- ‘ㄴ’ 첨가 (예) 사랑니(사랑+이)

다. 불규칙 용언과 한글 맞춤법

어간과 어미가 만나 예측되지 않는 방식으로 변화할 때는 이를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명칭	결합 어미	결과	표기 예	비고 (규칙 용언)
어간 불규칙	‘ㄸ’ 불규칙	‘으’를 가지고 있는 어미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ㄸ’ 탈락	짓다, 지어	씻다, 씻어
	‘ㄷ’ 불규칙	‘으’를 가지고 있는 어미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ㄷ’→‘ㄹ’	견다, 걸어	민다, 믿어
	‘ㅂ’ 불규칙	‘으’를 가지고 있는 어미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ㅂ’→‘오/우’	눕다, 누워	입다, 입어
	‘르’ 불규칙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르’→‘ㄹㄹ’	기르다, 길러	치르다, 치러
	‘우’ 불규칙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우’ 탈락	푸다, 퍼	주다, 쥐

어미 불규칙	‘여’ 불규칙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아’→‘여’	공부하다, 공부하여	잡다, 잡아
	‘러’ 불규칙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어’→‘러’	푸르다, 푸르러	치르다, 치러
	‘너라’ 불규칙	명령형 어미	‘아라’→‘너라’	오다, 오너라	잡다, 잡아라
	‘오’ 불규칙	명령형 어미	‘아라’→‘오’	달다, 다오	잡다, 잡아라
어간, 어미 불규칙	‘ㅎ’ 불규칙	‘으’를 가지고 있는 어미	‘ㅎ’ 탈락	파랗다, 파래서	좋다, 좋아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ㅎ’탈락, 어간 및 어미 모음→‘애/에’		

라. 사이시옷의 표기

사이시옷은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도 아니고 어법에 맞도록 적는 것도 아니므로 이를 밝혀 적는 다음의 경우에 대해 잘 알아 둘 필요가 있다.

1.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고랫재	킷밥	나룻배	나뭇가지	넋가
댓자리	뒷갈망	맷돌	머릿기름	모깃불
못자리	바닷가	맷길	벧가리	부싷돌
선진국	씻조각	아랫집	우렁잇속	잇자국
젓더미	조갯살	찾집	챗바퀴	킷값
핏대	햇별	헛바늘		

(2)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

멧나물	아랫니	틔마당	아랫마을	뒷머리
잇몸	갯목	넋물	빋물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

도리깃열	뒷웃	두랫일	뒷일	뒷입맛
베깃잇	웃잇	깃잇	나뭇잎	댓잎

2.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꿇병	머릿방	뱃병	봇둑	사갓밥
쌔강	아랫방	자릿세	전셋집	찻잔
찻종	춥국	콧병	탓줄	틔세
꿇기	햇수	횃가루	횃배	

(2)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

겻날	제삿날	훗날	틇마루	양칫물
----	-----	----	-----	-----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

가윗일	사삿일	예삿일	훗일
-----	-----	-----	----

3. 두 음절로 된 다음 한자어

곳간(庫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차간(車間)	뒷간(退間)
횃수(回數)				

‘치과’는 [치과]로 소리 나더라도 ‘치’나 ‘과’가 한자이므로 ‘치과’처럼 적지 않지만 ‘하굣길’은 ‘길’이 고유어이므로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다.

마. 같은 소리 다른 표기

동일한 소리를 가지지만 표기가 구분되는 것들이 있으므로 그 의미 차이와 함께 알아 둘 필요가 있다.

견잡다	견잡을 수 없는 상태.
겉잡다	겉잡아서 이틀 걸릴 일.
느리다	진도가 너무 느리다.
늘이다	고무줄을 늘인다.
다리다	옷을 다린다.
달이다	약을 달인다.
마치다	벌써 일을 마쳤다.
맞히다	여러 문제를 더 맞혔다.

1. 맞춤법에 맞게 글쓰기

부치다 힘이 부치는 일이다.
편지를 부친다.
빈대떡을 부친다.
식목일에 부치는 글.
회의에 부치는 안건.
인쇄에 부치는 원고.

붙이다 우표를 붙인다.
책상을 벽에 붙였다.
홍정을 붙인다.
불을 붙인다.
감시원을 붙인다.
조건을 붙인다.
취미를 붙인다.
별명을 붙인다.

이따가 이따가 오너라.
있다가 돈은 있다가도 없다.

조리다 생선을 조리다. 통조림, 병조림.
줄이다 마음을 줄인다.

【학습 활동】

- ① 다음 단어들을 ‘소리대로’ 적은 것과 ‘어법에 맞도록’ 적은 것으로 나누어 보자.

꼬락서니, 값도, 먹는, 길러

※ 길잡이

위 단어들을 발음해 보고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눈다.

- ② 다음 대화에서 한글 맞춤법에 어긋난 것을 찾아 바르게 고쳐 보자.

나윤: 어제 대학로에서 공연 표를 공짜로 나눠 줬대.
민희: 나도 갈걸! 우리 내일 같이 갈까?

※ 길잡이

된소리로 발음하는 어미 가운데 이를 된소리로 표기하는 것과 예사소리로 표기하는 것을 구별한다.

- ③ 다음의 광고들이 음운 현상을 이용하여 어떠한 효과를 의도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

가. 반하나? 안 반하나? <바나나맛 우유 광고>
나. 같이의 가치 <농협 광고>

※ 길잡이

광고 문구를 발음해 보고 이때 일어나는 음운 현상과 표기의 관계에 주목하여 표현 효과가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④ ‘이르다’를 이용하여 다음 글의 빈칸에 제시된 어미와 결합시켜 보자.

약속 장소에 (① ‘-었지만’) 시간이 너무 (② ‘-어서’)
공원 의자에 앉아 친구를 기다렸다.

※ 길잡이

‘이르다’는 ‘다다르다’의 의미를 가질 때와 ‘앞서거나 빠르다’의 의미를 가질 때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의 결합에서 나타나는 불규칙이 다르다는 점에 착안하
여 적절한 결합형이 무엇인지 생각한다.

⑤ 다음 식당 차림표 문구에서 사잇소리 표기가 잘못된 것을 찾아 바르게 고쳐 보자.

차림표	
※ 식사 북어국 - 6,000원 순대국 - 6,000원 김치찌개 - 6,000원 된장찌개 - 6,000원 회 - 싯가	※ 음료 커피 - 2,000원 사이다, 콜라 - 1,000원
학회 뒷풀이 시 음식값 10% 할인! 10인 이상 주문 시 커피값 할인!	

※ 길잡이

첫째, ‘고유어+고유어’, ‘고유어+한자어’, ‘한자어+고유어’인지 그렇지 않은지
를 구별하고 둘째, 후행 요소가 된소리가 되는지 판단한 후 셋째, 선행 요소가 모
음으로 끝나는지 확인한다.

6 다음 단어들의 의미를 고려하여 빈칸에 올바른 것을 넣어 보자.

가. 그러므로 / 그럼으로(써)

그는 부지런하다. () 잘 산다.

그는 열심히 공부한다. () 은혜에 보답한다.

나. 저리다 / 절이다

김장 배추를 ().

다친 다리가 ().

※ 길잡이

발음으로는 서로 구별이 되지 않지만 표기에 따라 의미가 구별되므로 사전을 찾아 의미를 구별해 보도록 한다.

(2) 띄어쓰기와 문장 부호

<소단원 학습 내용 안내>

다음의 글이 유머가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커플과 솔로의 차이점

커플: 사랑해 보고 싶어.
솔로: 사랑 해 보고 싶어.

윗글이 유머가 되는 것은 커플은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솔로는 사랑을 하고 싶은 사람이라는 의미를 띄어쓰기로 전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절하고도 분명한 의미 전달을 위한 띄어쓰기의 원리와 실체에 대해 학습할 필요가 있다. 문장 부호도 띄어쓰기와 마찬가지로 정확한 의사 전달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므로 함께 학습할 필요가 있다.

<띄어쓰기 및 문장 부호와 작문의 관계>

- ▶ 띄어쓰기와 문장 부호는 <한글 맞춤법>의 일부이지만 작문과 관련된 오류 가운데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글쓴이의 의도와 글의 내용이 달라지는 일이 적지 않으므로 별도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

가. 띄어쓰기의 원리

단어 단위로 띄어 적는 것이 원칙이므로 동일한 요소라도 단어의 일부 분인지 아니면 별도의 독립된 단어인지 구별할 필요가 있다.

(예) '은연중, 무의식중, 한밤중'의 '중(中)'은 한 단어로 굳어진 것이므로 붙여 적고 '학생 중, 꽃 중의 꽃, 회의 중'의 '중(中)'은 그 자체가 하나의 단어이므로 띄어 적는다.

(예) '새것, 새날, 새말'의 '새'는 한 단어로 굳어진 것이므로 붙여 적고 '새 기분, 새 학기, 새 건물'의 '새'는 그 자체가 하나의 단어이므로 띄어 적는다.

단어로 간주되는 것 가운데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적는다.

(예) '이거 얼마 만인가?', '집 떠난 지 삼년 만에 돌아왔다.'의 '만'은 시간을 나타내는 말 다음에 오는 의존 명사 즉 단어이므로 띄어 쓰고 '공부만 하다', '짐승만도 못하다'처럼 한정이나 정도를 나타내는 '만'은 조사이므로 붙여 적는다.

나. 띄어쓰기에 따른 의미 차이

다음의 말들은 띄어쓰기에 따라 의미 차이가 크므로 띄어쓰기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띄어쓰기	붙여 쓰기	의미 차이
시간이 아직 안 되다 아직 일정 수준이 못 되다 숙제를 아직 못 하다	마음이 안되다 심보가 못되다 노래를 못하다	붙여 쓰는 '안되다', '못되다', '못하다'는 '섭섭하거나 가엾어 마음이 언짢다', '성질이 나 품행 따위가 좋지 않거나 고약하다', '어떤 일을 일정한 수준에 못 미치게 하거나, 그 일을 할 능력이 없다' 등의 의미를 갖는다.
국가 간의 계약 가족 간의 우애	사흘간, 며칠간, 다년간 십여 년간, 한 달간	'사이'나 '관계'의 뜻을 가지는 '간(間)'은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쓰고 '동안'의 뜻으로 쓰이는 경우는 붙여 쓴다.

띄어쓰기	붙여 쓰기	의미 차이
그가 떠난 지 3년이 됐다.	그가 오는지 모르겠다.	‘경과한 시간’의 의미를 나타내는 ‘지’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김연옥 씨, 김 씨 (참고) 김 양, 김 선생, 김 교수, 김 장군, 김 사장	우리나라에는 김씨 성이 많다.	호칭어, 관직명 등은 띄어 쓰지만 성씨를 가리킬 때는 붙여 쓴다.

다. 문장 부호의 역할

문장 부호는 글의 구조를 분명하게 드러내거나 글쓴이의 의도를 전달하는 데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수단이다. 따라서 글의 의미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문장 부호를 적절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예) ‘키가 큰 친구의 언니’에서 키가 큰 사람은 ‘친구’일 수도 있고 ‘친구의 언니’일 수도 있다. 이 표현을 ‘키가 큰, 친구의 언니’와 같이 쓰면 ‘친구의 언니’가 키가 큰 사람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다.

(예) ‘하늘이 참 푸르다.’에 비해 ‘하늘이 참 푸르다!’는 화자의 주관적인 느낌이 더 강하게 전달된다.

라. 문장 부호에 따른 특별한 표현 효과

문장 부호	용례	표현 효과
물음표 ?	우리와 의견을 같이할 사람은 최 선생(?) 정도인 것 같다. 30점이라, 거참 훌륭한(?) 성적 이군. 우리 집 강아지가 가출(?)을 했어요.	물음표는 의문 이외에도 의심스러움, 빈정거림 등의 감정 상태를 드러내는 부호로 쓸 수 있다. 이런 감정 상태는 표현할 적절한 말이 없거나, 표현을 하더라도 구구하게 쓰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 해당 어구 뒤의 소괄호 안에 물음표를 쓰는 것으로써 그러한 감정 상태를 간편하게 표현할 수 있다.

제1부 작문을 위한 기초 문법

문장 부호	용례	표현 효과
느낌표 !	이게 누구야! 내가 왜 나빠!	형식은 의문문이지만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놀람, 항의, 반가움, 꾸중 등의 강한 감정 상태를 표현하는 문장에는 물음표 대신 느낌표를 쓸 수 있다.
쉼표 ,	여름에는 바다에서, 겨울에는 산에서 휴가를 즐겼다.	같은 말이 되풀이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부분을 줄여서 열거할 때는 쉼표를 사용하여 어구 간의 연결 관계를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다.
	갑돌이는, 울면서 떠나는 갑순이를 배웅했다. 철원과, 대관령을 중심으로 한 강원도 산간 지대에 예년보다 일찍 첫눈이 내렸습니다.	바로 다음 말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지 않음을 나타낼 때 쓴다. 이때 쉼표를 쓰지 않으면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말과 직접 관계를 맺는 것으로 잘못 해석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쉼표를 쓴다.
	내가, 정말 그 일을 오늘 안에 해낼 수 있을까? 이 전투는 바로 우리가, 우리만이, 승리로 이끌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끊어 읽지 않아도 되고 따라서 쉼표를 쓰지 않아도 되는 어구이지만, 끊어 읽음으로써 해당 어구를 두드러지게 하려는 의도로 특정 어구의 뒤에 쉼표를 쓸 수 있다.

【학습 활동】

① 다음 예들을 붙여 쓰는 것과 띄어 쓰는 것으로 나누어 보자.

헌-가방, 헌-것, 헌-숨, 헌-시계, 헌-책, 헌-집

※ 길잡이

붙여 쓰는 것은 사전에 하나의 단어로 등재되어 있고 띄어 쓰는 것은 그렇지 않으므로 사전을 찾아 확인하도록 한다.

② 다음 두 문장이 띄어쓰기에 따라 어떤 의미 차이를 가지는지 생각해 보자.

가. 저 밖에 아무도 없어요.
나. 저밖에 아무도 없어요.

※ 길잡이

명사로 쓰이는 ‘밖’과 조사 ‘밖에’의 의미 차이에 주의한다.

③ 다음 문장들을 올바르게 띄어 써 보자.

가. 지금까지이렇게살아왔는데갈데가있겠나?
나. 내마음대로아까보다더많이가져도되나요?
다. 생각한만큼물건이마음에드는지살펴보세요.

※ 길잡이

의존 명사와 어미, 의존 명사와 조사로 쓰이는 것들을 구별한다.

4] 다음 문장들에서 문장 부호가 사용되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생길지 생각해 보자.

가. 닭과 지네, 개와 고양이는 상극이다.
나. 돈, 돈이 인생의 전부이더냐?
다. 영호는 미소를 띠고 — 속으로는 화가 치밀어 올라 잠시라도 견딜 수 없을 만큼 괴로웠지만 — 그들을 맞았다.
라. 이번 시험의 범위는 3-78쪽입니다.

※ 길잡이

문장 부호와 없을 때와 있을 때 생기는 의미 차이, 의미 전달의 명료성에 주의한다.

5] 다음 시가 문장 부호의 측면에서 어떤 의미 전달에 기여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

동짓달에도 치자 꽃이 피는 신방에서 신혼 일기를 쓴다. 없는 것이 많아 더욱 따뜻한 아랫목은 평강 공주의 꽃밭 색색의 꽃씨를 모으던 흰 봉투 한 무더기 산동네의 맵찬 바람에 떨어져 흩날리지만 봉할 수 없는 내용들이 밤이면 비에 젖어 울지만 이제 나는 산동네의 인정에 곱게 물든 한 그루 대추나무 밤마다 서로의 허물을 해진 사랑을 꿰맨다..... 가끔 전기가 나가도 좋았다 우리는

-서울에 사는 평강 공주 中-

※ 길잡이

문장 속에서 ‘마침표’의 기능과 ‘줄임표’의 기능에 중점을 두어 살펴본다.

2. 어휘 사용에 유의하며 글쓰기

(1) 어휘의 적절한 선택과 사용

<소단원 학습 내용 안내>

다음의 사례를 보고, 작문에서 정확한 어휘를 선택,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글쓰기에서 얼마나 중요한 능력인지 생각해 보자.

미국 본사에서 근무하다가 지난주에 한국 지사에 발령받은 마이클 씨, 본격적으로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한 마이클은 한국어 공부에 열심이지만 알쏭달쏭한 한국어 어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모양도 비슷하고 의미도 너무 비슷한 말이 많았다.

할아버지가 꼬마 아이에게 ‘손자’라고 할 때도 있고, ‘손주’라고 할 때도 있잖아요? 둘이 뭐가 차이가 나는 건가요?

영순 씨는 자신 있게 도와주겠다고 말했지만, 마이클의 글을 보니 막상 확신하여 말하기가 쉽지 않았다. 영희 씨는 할 수 없이 한참 동안 국어사전을 찾아보고 나서야, 답을 해 줄 수밖에 없었다. 아직도 마이클의 말이 떠오른다.

“한국인인 영희 씨도 잘 모르시는 것을 보니, 저나 영순 씨나 한국어 실력이 비슷한 듯.” 유행어까지 써 가며 웃는 마이클이 그렇게 말미울 수 없었다.

<어휘의 적절한 선택과 작문의 관계>

- ▶ 우리말에는 비슷한 의미를 지니지만 상황에 따라 구분해서 사용해야 하는 어휘도 있고, 그 의미는 전혀 다르지만 모양이 비슷하여 혼동되는 어휘도 많다.
 - ▶ 이러한 어휘를 잘 구분하여 사용하면, 작문에서 정확한 의미를 표현할 수 있고,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다.
-

가. 비슷한 의미지만 구분해서 사용하여야 하는 어휘

	사용	예
‘연임’과 ‘중임’	‘연임(連任)’은 ‘정해진 임기(任期)를 마친 후에 다시 거둬서 그 임기의 직에 머무르는 일’을 말하고, ‘중임(重任)’은 ‘먼저 근무하던 직위에 거둬 임명되는 것, 또는 중대한 임무’를 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헌법은 대통령의 연임을 금하고 있다. - 이번 개각에서 국방부 장관은 중임되었다.
‘주기’와 ‘주년’	‘주기(周忌)’는 ‘사람의 사후 해마다 돌아오는 그 죽은 날, 즉 제삿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주년(周年)’은 ‘돌이 돌아온 해라는 의미’만을 지닌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해는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지 15 주기가 되는 해이다. - 2016년은 우리 학회가 창립한지 100 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너머’와 ‘넘어’	‘너머’는 ‘높이나 경계로 가로막은 사물의 저쪽 또는 그 공간’을 말하고, ‘넘어’는 ‘넘다의 활용으로 동작을 의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뒤뜰 돌담 너머, 붉은 지붕의 건물이 바로 그가 경영하는 모란 유치원이다. - 영철이는 부지런히 걸어서 산을 넘어 갔다.
‘갑절’과 ‘곱절’	‘갑절’은 ‘어떤 수나 양을 두 번 합한 만큼’을 말하고, ‘곱절’은 ‘일정한 수나 양이 그 수만큼 거둬짐’을 이르는 말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말로 갑절은 두 배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 영농 방식을 이처럼 개선하면 소득이 몇 곱절 높아지게 됩니다.
‘자주’와 ‘줄곧’	‘자주’는 ‘같은 일을 잇따라 잦게’를 의미하고, ‘줄곧’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의 의미를 지닌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수는 방학 동안에 하루 이틀 간격으로 자주 우리집에 왔다. - 영희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줄곧 게임만 하고 있다.
‘보존’과 ‘보전’	‘보존(保存)’은 ‘잘 보호하고 간수하여 남김’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보전(補填)’은 ‘부족한 부분을 보태어 채운다는 의미’를 지닌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 현장은 수사관들이 도착할 때까지 잘 보존되어 있었다. - 투자 손실을 부동산을 매각함으로써 보전하였다.
‘군색하다’와 ‘궁색하다’	‘군색하다’는 ‘필요한 것이 없거나 모자라서 딱하고 웅색하다’는 의미이고, ‘궁색하다’는 ‘아주 가난하다’는 의미를 지닌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제 살림살이가 꽤 갖추어져서 군색하지는 않은 지경이더구나. -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가세가 기울어 궁색한 살림을 꾸려 나가셨다.

나. 모양이 비슷하나 그 의미가 서로 다른 어휘

	의미	예
‘반증’과 ‘방증’	‘반증(反證)’은 ‘어떤 사실이나 주장이 옳지 아니함을 그에 반대되는 근거를 들어 증명하는 것’이고, ‘방증(傍證)’은 ‘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되지는 않지만, 주변의 상황을 밝힘으로써 간접적으로 증명에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에게 그 사실을 뒤집을 만한 반증이 없다. - 김 교수님의 해박한 강의는 평소에 얼마나 많은 독서를 하셨는지에 대해 방증하는 듯하다.
‘지향’과 ‘지양’	‘지향(志向)’은 ‘어떤 목표로 뜻이 쏠리어 향하는 것’이고, ‘지양(止揚)’은 ‘어떠한 것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는 아직도 이상을 지향하는 이상주의자이다. - 우리는 남북 사이의 이질화를 지양하여야 합니다.
‘재연’과 ‘재현’	‘재연(再演)’은 ‘한 번 하였던 행위나 일을 다시 되풀이하는 것’이고, ‘재현(再現)’은 ‘단순히 다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러한 비극을 재연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과제이다. - 20세기에 들어와서 미술은 재현, 즉 모방을 버리고 표현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학습 활동】

① 문맥상 ()에 알맞은 어휘를 골라 문장을 완성해 보자.

- ① [영희는 항상 조그만 일에 (빠져, 빠쳐) 토라지곤 한다.
김칫국에 무를 (빠져, 빠쳐) 넣었더니 훨씬 맛이 좋네요.
- ② [그는 바삭 마른 (검불, 덤불)을 쓸어 모아 모닥불을 지피곤 했다.
울창하게 우거진 나무 (검불, 덤불) 사이를 헤치고 군인들이 행군하였다.
- ③ [나는 학생들의 예기치 못한 질문 때문에 (곤욕, 곤혹)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어제 어머니께서는 길거리에서 낯선 사내에게 큰 (곤욕, 곤혹)을 치르셨다.
- ④ [그는 묻는 말에 (그저, 거저) “예, 예.” 하며 대답하였다.
땅을 (그저, 거저) 주다니? 세상에 어디 공짜가 있단 말이나?
- ⑤ [그녀는 한참 동안 서 (이따가, 있다가) 방금 막 떠났어.
지금은 할 이야기가 없으니 (이따가, 있다가) 해가 지면 이야기 하자꾸나.
- ⑥ [밥 먹은 그릇은 깨끗이 (부수어, 부시어) 놓아라.
쇠망치를 든 사나이들이 한쪽 벽을 (부수고, 부시고) 뒤로 물러섰다.
- ⑦ [고향의 정겨움이 이제는 (아득한, 아뜩한) 추억으로 남았다.
소식을 듣자 그녀는 벼락이 내리치는 것처럼 정신이 (아득하였다, 아뜩하였다).
- ⑧ [이 광목천의 (나비, 너비, 넓이)는 40센티미터가 된다.
방은 겨우 두 평 정도의 (나비, 너비, 넓이)에 불과하였다.
우리는 강을 가로로 건너질러서 그 (나비, 너비, 넓이)를 잰다.
- ⑨ [이제 가정의 행운을 기원하는 것으로 치사를 (가늠, 가름, 갈음)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정국에서는 도저히 앞날을 (가늠, 가름, 갈음)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경기는 선수들의 투지가 승패를 (가늠, 가름, 갈음)했다고 할 수 있다.

※ 길잡이

문맥이나 국어사전을 참고하여 올바른 어휘를 고른다.

② <보기>와 같이 제시된 단어를 사용하여 적절한 문장을 만들어 보자.

————— <보 기> —————

┌ 고치: 누에가 고치를 만들었네요.

└ 꼬치: 제가 자주 가는 선물집에서는 어묵을 꼬치에 꽂아 팔곤 합니다.

① ┌ 결단(決斷):

└ 결판:

② ┌ 낫다:

└ 낡다:

③ ┌ 붓다:

└ 분다:

④ ┌ 맞추다:

└ 맞히다:

⑤ ┌ 늘이다:

└ 늘리다:

⑥ ┌ 부딪히다:

└ 부딪치다:

⑦ ┌ 결재(決裁):

└ 결제(決濟):

⑧ ┌ 물색(物色):

└ 모색(摸索):

⑨ ┌ 임대(賃貸):

└ 임차(賃借):

⑩ ┌ 운영(運營):

└ 운용(運用):

※ 길잡이

두 어휘의 의미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문장을 지어 본다.

(2) 어휘의 체계와 양상

<소단원 학습 내용 안내>

어휘는 낱말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름대로의 체계와 다양한 양상을 지니고 있다. 글에 사용된 어휘의 체계와 양상에 따라 글의 느낌이나 효과는 사뭇 달라지게 된다. 다음 시에 쓰인 어휘와 그 효과에 대해 생각해 보자.

뒹락카노, 저 편 강기슭에서
니 뒹락카노, 바람에 불려서

이승 아니른 저승으로 떠나는 뱃머리에서
나의 목소리도 바람에 날려서

뒹락카노 뒹락카노
썩어서 동아 밧줄은 삭아 내리는데

하직을 말자, 하직을 말자
인연은 갈밭을 건너는 바람

뒹락카노 뒹락카노 뒹락카노
니, 흰 옷자라기만 필력거리고…….

- 박목월, <이별가> 中-

지역 방언이나 사투리를 적절히 사용하면, 고유한 정감을 형성하거나 소속감 등을 표현하는 데 효과적이다.

<어휘의 체계와 작문의 관계>

- ▶ 어휘의 체계는 어종에 따라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구분할 수 있다. 어휘의 체계를 고려하여 작문을 하면, 각 체계에 속한 어휘의 특성에 따라 독특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 어휘의 양상도 작문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어휘의 양상은 개별 어휘가 다양한 환경에 따라 분화된 것을 말한다. 어휘의 양상에는 지역 방언, 금기어/완곡어, 관용 표현, 전문어, 신어, 유행어 등이 포함된다. 어휘의 양상을 고려하여 작문을 하면, 글의 목적을 달성하고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

가. 어휘의 체계

체계	개념	작문에서의 의미
고유어	<p>‘고유어’는 ‘해당 언어에 본디부터 있던 말이나 그것에 기초하여 새로 만들어진 말’을 말한다. 국어 어휘의 약 26% 정도를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다. 예) 길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유어로도 충분히 의미 표현이 가능한 경우, 고유어를 사용하면 이해가 쉽고 아름다운 글이 된다. - 고유어는 우리 민족 특유의 정겨운 느낌이나 정서를 표현하는 데 유용하며 일상생활에 널리 쓰이는 어휘가 많아 독자에게 더욱 친근한 느낌의 글을 표현할 수 있다.
한자어	<p>‘한자어’는 ‘중국의 한자(漢字)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말’로 한국식 발음으로 적히는 특징이 있다. 한자어는 전체 국어 어휘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예) 사상 事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자어는 고유어에 비하여 추상화된 개념이나 전문적 의미를 세밀하게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다. - 한자어는 고유어 대하여 존재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독자를 고려한 글쓰기의 일환으로 활용할 수 있다. - 한자어를 글에 자주 사용하면, 글 내용을 더욱 전문적이거나 지적으로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 - 한자어로 된 사자성어나 관용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하면 글의 문체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글이 한층 고답적이고 관념적으로 느껴지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외래어	<p>‘외래어’는 ‘외국의 문화나 문물 등을 통해 들어온 말’로 국어의 일부로 쓰이는 말이다. 아직 국어로 편입되지 않은 말인 외국어와는 구분된다. 예) 인터넷 interne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래어는 기존 국어의 어휘로 표현하기 힘든 영역을 표현하는 기능을 한다. - 외래어는 국어에 잘 쓰이지 않는 음운이 사용되기도 하므로 잘 쓰이지 않는 낯선 음상을 통해 글의 색다른 분위기나 느낌을 주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 어휘의 양상

양상	개념	작문에서의 의미
지역 방언	‘지역 방언’은 ‘한 언어에서 그 말이 사용되는 지역에 따라 분화된 것’이다. 예) 부추 - 정구지(경상방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방언은 같은 방언권에 있는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글에서 사용하면 글쓴이와 독자 사이에 친밀감을 형성하거나 소속 의식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 지역적 산물이나 풍습, 환경과 관련된 지역 방언을 통해 독자에게 향토적인 정서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금기어/ 완곡어	‘금기어’는 ‘마음에 꺼려서 하지 않거나 피하는 말’이고, 관습, 신앙, 질병, 배설 따위와 관련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완곡어’는 ‘금기어가 상기하는 개념을 표현하기 위하여 대신 만들어진 말’이다. 예) 죽다(금기어) - 돌아가시다(완곡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에서 완곡어를 적절히 사용하면, 금기어가 상기하는 개념을 표현하고자 할 때 보다 불쾌감을 덜 유발하여 글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된다. - 완곡어의 사용은 독자를 배려하는 글쓰기라는 점에서 교양 있고 배려적인 글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
관용어, 속담	‘관용어’, ‘속담’은 두 단어 이상으로 이루어진 말이다. 이러한 말은 겉으로 드러난 단어의 의미만으로는 그 표현의 진정한 의미를 알기 어렵다. 예) 미역국을 먹다(관용어), 가는 손님은 뒤 꼭지가 예쁘다(속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용어나 속담을 사용하면, 글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상황이나 장면을 보다 구체적이고 현장감 있게 표현할 수 있고 글의 문체를 다채롭게 한다. - 특히 속담의 경우, 전통적 생활문화가 담겨 있음에 따라 보다 향토적인 표현을 가능하게 하고, 세태를 풍자하거나 교훈적인 내용의 주제를 전달하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전문어	‘전문어’는 ‘전문 분야의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구처럼 사용되는 말’이다. 예) 소금 - 염화나트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어는 의미가 정밀하고 다의성이 적으며 그 의미가 문맥의 영향을 적게 받으므로 고도로 정확하고 섬세한 의미를 표현해야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 - 전문어는 독자에게 글 내용에 대하여 전문적인 인상을 형성함으로써 글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양상	개념	작문에서의 의미
신어, 유행어	<p>‘신어’는 ‘새로운 사물이나 개념, 현상 등을 표현하기 위하여 새롭게 만들어진 말’이고, ‘유행어’는 ‘한 언어 사회에서 사회심리적인 요인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유행하는 말’이다.</p> <p>예) 앵그리맘(신어) 미생(유행어)</p>	<p>- 신어와 유행어는 글쓰기의 상황에 따라 세대 간의 공감의 필요하거나 신기하고 참신함을 불러일으키고자 할 때는 목적에 따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p>

【학습 활동】

① 다음을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구분하여 보자.

오므라이스, 인절미, 장아찌, 자장면, 갈비찜, 전병, 식혜,
잡채, 햄버거, 커피, 두부, 핫도그, 청국장, 술, 순대,
삼계탕, 생선회, 떡볶이

□ 고유어:

□ 한자어:

□ 외래어:

※ 길잡이

해당되는 말이 어떠한 언어로 적힐 수 있을지 그 어원을 생각해 본다.

② 다음은 독립선언서의 일부이다. 한자어에 밑줄로 표시를 해 보고, 이러한 어휘 사용으로 거둘 수 있는 효과에 대해 말해 보자.

우리는 여기에 우리 조선이 독립된 나라인 것과 조선 사람이 자주하는
국민인 것을 선언하노라. 이것으로써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평등하다는 큰 뜻을 밝히며 이것으로써 자손만대에 알려 겨레가 스스
로 존재하는 권리를 영원히 누리도록 하노라. 반만 년 역사의 권위를
의지하며 이것을 선언하는 터이며, 이천만 민중의 충성을 모아 이것을
널리 알리는 터이며, 사람된 양심의 발로로 말미암은 세계 개조의 큰
기운 속에 순응해 나가기 위하여 이것을 드러내는 터이니, 이는 하늘의
명령이며, 시대의 대세이며, 온 인류가 더불어 같이 살아갈 권리의 정
당한 발동이므로, 하늘 아래 그 무엇도 이것을 막고 누르지 못할 것이라.

<기미독립선언서>

※ 길잡이

한자어가 고유어에 비해 가지는 문체적 느낌을 생각해 본다.

- ③ 다음은 어휘 사용과 관련하여 우리의 언어생활을 풍자한 인터넷 유머이다. 글에 주로 사용된 어휘의 종류를 중심으로 이 글이 웃음을 주는 이유를 생각해 보자.



아티스틱한 그린 컬러, 퓨어한 컬러
그리고 러블리 한 옐로우 컬러로 엮
지 있게 마무리 된 배추와 비비드한
레드 컬러와 고춧가루가 판타스틱한
조화를 이룬 모던하고 시크하며 심
플, 트렌디 한 잇 김치.

이 겨울, 이 핫한 김치 없이 밥을 먹는다면 당신은 밥상 테러리스트!

※ 길잡이

우리 고유의 음식문화인 김치를 설명하는 글에서 외래어가 주로 사용되면 어떠한 느낌을 주게 될지 생각해 본다.

- ④ 다음은 글의 목적이나 대상을 고려하여 특정 어휘 부류를 의도적으로 사용한 글의 예이다. <보기>에 제시한 어휘의 양상을 고려하여 글쓰기가 의도한 글의 효과를 설명해 보자.

<보 기>

지역 방언, 완곡어, 유행어, 표준어, 한자어, 고유어

<소식지>

“성님예! 어떻게 지냈습니까?”

“하모, 내사 잘 지냈다 안 카나.”

마을사람들이 약 10년 만에 만났다. 댐이 건설되어 수몰된 ○○리 주민들은 거의 10여년 만에 만나 회포를 풀었다. 어제는 형제처럼 지내던 이웃들은 지나간 세월조차 빗겨가는 듯하다. 모임 장소인 ○○초등학교 운동장 현장이다.

<동아리 안내문>

응답하라! 덕후들아!!

웹툰, 애니메이션, 만화책.

제1부 작문을 위한 기초 문법

한 번이라도 밤을 지새워 본 적이 있니?
그렇다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어.
재미를 따지지 말도록 하자. 이미 너는 가입해 있다!
선착순으로 3명에게는 문상을 지급하니까 꼭 연락 주도록 해.
회장 김○○(010-×××-××××)

<추도문>

사람들은 누구나 미래를 보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만은 하나의 과거를 돌이켜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처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 큰 비극을 겪게 된 지금. 생전에 그분께서 거룩한 사랑으로 존재를 기증하신 뜻은 길이길이 이어질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부디 소천하신 고인의 큰 사랑을 가슴 가득 담아 가시기 바랍니다.

※ 길잡이

글에 주로 사용된 어휘의 양상과 글의 종류, 주제를 연관지어 생각해 본다.

⑤ 다음 빈 칸에 적절한 속담이나 관용어를 써 보고 이와 유사한 구조의 짧은 글을 지어보자.

_____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자그마한 나쁜 일이라도 자꾸 저지르다 보면 버릇이 되어 결국에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속담을 아주 잘 알고 있지만, 실천을 하는 데는 미숙한 것 같습니다. 쓰레기를 버리지 않거나 공중도덕을 어기는 일 등 작은 일부터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경험을 하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선배님 한 분께서 사소한 실수로 그만 형수님과 크게 다투시게 되었습니다. 선배님과 형수님은 관계가 악화되다 못해 이혼까지 염두에 두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형수님에게 늘 양보를 해왔는데, 이번에도 그럴 수는 없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서로 각 방을 쓰던 어느날 서랍에서 형수님께서 날짜별로 챙겨 놓은 자신의 위장약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쁜 상자에 먹는 시간까지 꼼꼼하게 분류되어 있는 약을 보고 선배님께서도 그만 크게 뉘우치는 마음이 들어 용서를 비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_____ 라는 말이 있지요? 이 말은 결국 부부 관계는 그만큼 긴밀하므로 끊으려고 해도 잘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인 것입니다.

※ 길잡이

문맥을 고려하여 빈칸에 알맞은 속담의 내용을 추측해 본다.

(3) 어휘의 다양한 의미와 의미관계

<소단원 학습 내용 안내>

다음 신문기사는 어휘가 연상하는 부수적인 의미에 따라 개명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어휘가 연상시키는 의미에는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자.

“저 말년인데요, 이름 좀 바꿔주세요.” 개명신청 증가

나라를 다스린다는 뜻의 ‘김치국’, 의미야 좋지만 놀림 받기 쉬운 이름이죠. 딸을 그만 낳고 싶다는 의미를 가진 ‘말녀, 경운기, 문동이, 박아지, 망아지’처럼 의미나 발음이 민망한 이름을 바꿔 달라는 개명 신청자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강호순처럼 흉악범과 이름이 같아 개명하려는 사례도 있고요. 출생신고서를 작성할 때 한자나 한글을 잘못 적은 단순 실수에 의한 개명 신청도 많습니다.

지난 2005년 대법원이 범죄를 은폐하려는 등의 의도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개명 신청이 크게 늘었는데요. 하루 평균 430여 명이 이름을 바꿔 달라며 법원을 찾고, 이 가운데 대부분, 95%가량이 새로운 이름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기 있는 이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남자 이름은 민준, 현우, 정우라는 이름이 인기고요, 여자는 수연, 지원, 서연 순으로 인기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인기가 높은 이름은 또 자칫 너무 흔한 이름이 될 수도 있겠죠.

(<YTN>, 2015. 8. 17.)

어휘의 의미는 그 자체로 지시하는 의미에 더하여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 ‘문동이, 박아지, 망아지’와 같은 이름은 원래의 인명을 나타내는 의도와는 다르게, 부정적 대상을 상기시키는 반사적 의미가 나타나기도 한다.

<어휘의 다양한 의미와 작문의 관계>

- ▶ 어휘는 대상의 사전적 의미를 표현할 뿐 아니라, 다양한 측면의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
 - ▶ 어휘는 문장과 글의 의미를 표현하는 주요 요소이고 글쓴이가 자신의 의도를 본격적으로 드러내는 출발점이 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어휘의 의미를 고려하여 표현하면 글에서 정확한 의미만이 아니라 함축적 의미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

가. 어휘의 다양한 의미

어휘의 의미는 흔히 하나만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어휘가 지닌 의미도 그 종류에 따라 나뉠 수 있다.

중심적 의미는 어휘의 가장 주된 의미이고, 사전에 가정 먼저 등재된 의미이며, 주변적 의미는 중심적 의미에서 확장된 의미이다. 어휘의 중심적, 주변적 의미를 고려하여 글을 쓰면 정확한 표현에 도움이 된다.

(예) 손: 신체기관(중심적 의미), 일손(주변적 의미)

어휘의 외연적 의미와 내포적 의미를 구분하여 글에 사용할 수 있다. 글쓴이가 자신의 의도를 정확하고 개념적으로 나타내고자 할 때는 외연적 의미를 고려하여 사용하고, 어휘에 부가되어 이차적이고 함축적인 의미를 전달하고자 할 때는 어휘에 부수되는 함축적 의미를 고려하여 표현한다.

(예) 어머니: 자녀를 둔 여인(외연적 의미),
정성과 사랑(내포적 의미)

어휘는 계층, 연령, 성별 등의 사회 변인에 따라 달라진다. 글쓴이가 어휘의 사회적 의미를 고려하여 사용하면, 사회적 환경과 관련된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

(예) 민주 사회에 대한 확고하고도 명확한 전망을 피력하는 일은 비정부 기구를 포함한 시민과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레짐을 파악한 이후에야 가능하다. (개념어를 많이 사용하면, 교양이 높은 사람으로 보임: 사회적 의미)

정서적 의미는 어휘를 통해 글쓴이의 개인적 태도나 감정 등이 수반될 때 나타나는 의미이다.

(예) “잘 한다!”는 표현은 음성적 변조에 따라 칭찬과 비꼼의 정서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반사적 의미는 글쓴이가 어휘를 사용할 때, 사전적 의미와 큰 관련이 없이 독자에게 반사적으로 나타나는 인상이나 의미를 말한다.

(예) ‘순사’와 ‘경찰’은 반사적으로 상기되는 부정적 인상의 정도에서 차이가 있다.

주제적 의미는 글쓴이가 어휘의 어순 조정이나 강조 장치 등을 통해 특정 어휘의 의미를 강조하여 나타낼 수 있다.

(예) 신문기사에서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와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는 주제적 의미가 다르다.

연어적 의미는 글쓴이가 어휘와 어휘의 배열을 통해 연상되는 의미를 표현하고자 할 때 의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 '진한 커피'와 '진한 색채'에서 '진한'은 어휘의 배열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다.

나. 어휘의 의미 관계

유의 관계는 의미가 같거나 비슷한 둘 이상의 말들이 맺는 관계이고, 유의 관계를 맺은 말을 유의어라 한다. 어휘의 유의 관계를 고려하여 글을 쓰면 독자가 개념이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유사한 의미의 어휘를 나열함으로써 표현을 다채롭게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예) 인간 : 사람

반의 관계는 둘 이상의 말들이 의미상으로 서로 짝을 이루어 대립하는 관계인데, 이러한 관계를 맺은 말을 반의어라 한다. 어휘의 반의 관계를 고려하여 글을 쓰면 대립적인 성격의 내용을 보다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으며 쟁점을 부각시킬 수 있다.

(예) 남자 : 여자

상하 관계는 둘 이상의 말들 중 어떤 말의 의미가 다른 말의 의미에 포함될 때 맺는 관계로 상하 관계를 맺은 말을 상위어와 하위어라 한다. 어휘의 상하 관계를 고려하여 글을 쓰면 개념이나 내용의 계층, 관계 등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

(예) 동물(상위어) : 새, 물고기, 인간(하위어)

【학습 활동】

① 문맥을 고려하여, 어휘의 외연적 의미와 내포적 의미를 구분해 보자.

- ① 어머니께서 요리를 하다가 손을 다치셨다.
엿그제 별초를 했는데, 이 일은 참 손이 많이 가는 일이야.

② 그날 어머니의 눈에 남몰래 맺힌 이슬은 가슴을 시리게 하는 것이었다.
이슬은 수증기가 기온이 내려가거나 찬 물체에 부딪힐 때 엉겨 생긴다.

※ 길잡이

밑줄 친 낱말의 문맥상 의미를 생각해 본다.

② 다음은 어휘의 다양한 의미가 사용된 상황을 설명한 예이다. 관련된 어휘의 의미를 <보기>에서 골라 보자.

연어적 의미, 사회적 의미, 반사적 의미, 주제적 의미, 정서적 의미

- ① 내 친구 중에는 ‘임신중(任信重)’이라는 아이가 있다. 매사에 신중하라는 좋은 뜻의 이름이지만, 선생님께서 출석을 부르실 때마다, 반 친구들은 웃음을 터뜨리곤 하였다.
- ② “나는 너를 정말로 사랑해.”라는 동일한 말도 기분이 좋을 때와 화가 났을 때 하게 되면, 전혀 다른 의미가 표현될 수 있다.
- ③ 신문 기사에서 고위 공직자가 은행 비리를 저질렀다고 표현하지 않고, 은행이 고위층에게 털렸다고 표현하였다.
- ④ ‘뜨거운 관심’이라는 말에서 ‘뜨거운’은 뒷말과의 관계 속에서 ‘많다’라는 의미를 지니지만, ‘뜨거운 냄비’라는 말에서 ‘뜨거운’은 ‘높은 온도’를 의미한다.

※ 길잡이

<보기>에 나타난 개념을 고려해 보고, 한 사례씩 대응하여 본다.

③ 이 글의 어휘간 의미 관계를 고려하여 다음 물음에 답해 보자.

폭포수의 물줄기는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낙하한다. 만유인력, 그 중력의 거대한 자연의 힘 그대로 폭포수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물이다. 물의 본성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이다. 하늘에서 빗방울이 대지를 향해 떨어지는 것과 같다. 아주 작은 도랑물이나 도도히 흐르는 강물이나 모든 물의 그 움직임에는 다를 것이 없다. 폭포수도 마찬가지이다. 아무리 거센 폭포라 해도 높은 데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떨어지는 중력에의 순응이다. 폭포수는 우리에게 물의 천성을 최대한으로 표현해 준다.

그러나 분수는 그렇지 않다. 서구의 도시에서 볼 수 있는 분수는 대개가 다 하늘을 향해 솟구치는 분수들이다. 화산이 불을 뿜듯이, 혹은 로켓이 치솟아 오르듯이, 땅에서 하늘로 뻗쳐 올라가는 힘이다. 분수는 대지의 중력을 거슬러 역류하는 물이다. 자연의 질서를 거역하고 부정하며 제 스스로의 힘으로 중력과 투쟁하는 운동이다. 물의 본성에 도전하는 물줄기이다.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천연의 성질, 그 물의 운명에 거역하여 그것은 하늘을 향해서 주먹질을 하듯이 솟구친다. 가장 물답지 않은 물, 가장 부자연스러운 물의 운동이다.

-이어령, <폭포와 분수>-

- ① □ 폭포 : ()
 □ () : 거스르다
 □ 도랑물, 강물 : 화산, ()

② 글에 주로 사용된 의미 관계:

③ 글의 효과:

※ 길잡이

어휘의 의미 관계가 글의 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본다.

3. 문장 구조에 유의하며 글쓰기

(1) 문장 성분과 어순

<소단원 학습 내용 안내>

아래 개그는 국어의 특성을 이용해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국어의 어떤 특성이 웃음을 유발하는지 생각해 보자.



위 개그는 국어의 어순에 맞지 않게 얘기해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어순은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들 사이의 순서로 흔히 국어의 어순은 자유롭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그러한 것은 아니다. 국어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과 어순을 유의하여 글쓰기에 활용하도록 한다.

<문장 성분과 작문의 관계>

- ▶ 문장은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기본 단위로, 문장을 구성하는 여러 성분들이 결합하여 하나의 문장을 만든다.
 - ▶ 문장 성분은 문장 안에서 담당하는 기능에 따라 구분되며,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들끼리 자연스럽게 어울려야 한다.
 - ▶ 문장 성분이 국어의 어순에 따르지 않거나 제대로 호응하지 못하면 비문이나 어색한 문장이 되므로 유의하여 사용해야 한다.
-

가. 문장의 주성분과 부속 성분, 독립 성분

문장 성분은 문장 안에서 담당하는 기능에 따라 주성분, 부속성분, 독립 성분으로 나뉜다. 글쓴이는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주어’와 ‘서술어’를 중심으로 하는 문장을 구성하되 이러한 주성분을 명확하게 표현하면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좋다.

주성분은 문장을 이루는 데 골격이 되는 성분으로,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가 있다. 부속 성분은 주성분의 내용을 수식하는 성분으로, 관형어, 부사어가 있다. 부속 성분은 수식받는 성분들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이고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게 한다. 독립성분은 다른 문장 성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성분으로, 독립어가 이에 속한다.

구분	문장 성분	설명	예문
주성분	주어	문장에서 동작 또는 상태나 성질의 주체를 나타내는 문장 성분	- 영수가 간다. - 하늘이 높다.
	서술어	주어의 동작, 상태, 성질 따위를 풀이하는 기능을 하는 문장 성분	- 영수가 춤을 춘다. - 꽃이 예쁘다.
	목적어	서술어의 동작 대상이 되는 문장 성분	- 영수가 밥을 먹는다.
	보어	서술어 ‘되다, 아니다’가 요구하는 문장 성분 중 주어를 제외한 문장 성분	- 영수가 학생 이 아니다.
부속 성분	관형어	체언을 수식하는 문장 성분	- 철수가 새 신발을 신었다.
	부사어	주로 용언을 수식하지만 관형어나 다른 부사어, 문장을 수식하기도 하고 문장이나 단어를 이어주기도 하는 문장 성분	- 그 사람은 아주 일찍 도착하였다. - 과연 그 아이는 영리하구나. - 그리고 우리는 아침 일찍 출발하였다.
독립 성분	독립어	다른 문장 성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성분	- 우와 , 하늘이 정말 파랗구나!

제1부 작문을 위한 기초 문법

문장의 중심은 서술어로 서술어의 특성에 맞게 글을 써야 한다. 행위의 대상이나 보충 정보를 필요로 하는 문장에는 목적어나 보어를 사용한다. 서술어에 따라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수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정확히 알고 표현해야 한다.

나. 문장 성분 간의 호응

문장의 기본 뼈대는 주어-서술어로 이루어지며, 주어와 서술어는 서로 자연스럽게 호응되어야 한다.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문장이 있으면 글 전체의 의미가 불분명해지므로 글쓴이의 의도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글에서 성분 간의 호응을 고려해야 한다.

한 문장에 주어-서술어가 여러 개 있을 경우나 문장의 수식어가 지나치게 붙어 주어와 서술어의 거리가 멀어질 경우에는 특히 호응 관계를 확인해 봐야 한다. 서술어를 중심으로 주어나 목적어 등의 성분들을 찾아서 서로 잘 호응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예) ‘영희가 순희에게 책을 선물로 주었는데, 그 보답으로 영희에게는 꽃을 선물하였다.’라는 문장을 보면, 뒷절의 주어가 앞절과 바뀌었는데 생략되어 있어 서술어와의 호응이 자연스럽게 않은 문장이 됨을 알 수 있다.

다. 문장의 어순

국어의 문장 성분은 일정한 순서로 배열되는데, 이를 ‘어순’이라 한다. 전형적이고 일반적인 어순은 정확한 의미전달과 이해에 도움이 되나, 이를 의도적으로 조절하여 수사적 효과를 노릴 수도 있다.

국어의 문장 성분은 ‘주어+서술어’, ‘주어+목적어+서술어’, ‘주어+보어+서술어’의 어순으로 배열되며, 수식을 받는 말이 수식하는 말의 뒤에 온다.

- (예) (가) 영수가 왔다.
(나) 영수가 가방을 들었다.
(다) 영수가 반장이 되었다.
(라) 영수가 예쁜 꽃을 많이 샀다.

국어의 어순은 이동이 자유로운 편인데, 명사 구실을 하는 요소 뒤에 붙는 격조사가 발달하였기 때문이다.

- (예) '꽃을 영수가 샀다.'에서와 같이 목적어 '꽃을'이 주어 '영수가'보다 선행하여 올 수 있는데, 목적격 조사 '을', 주격 조사 '가'가 명사의 문장에서의 구실을 드러내 주기 때문이다.

글쓴이는 표현의 강도나 문체적 변이를 목적으로 문장 성분을 다른 위치로 이동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강조하거나 초점을 주는 성분은 주로 문장의 맨 앞으로 이동한다.

- (예) '영희에게 진수가 꽃을 주었다.'는 대상인 '영희'를 강조하기 위해 주어보다 선행한 위치에 왔다.

국어의 어순이 비교적 자유롭다고 하여 모든 문장 성분의 이동이 자유로운 것은 아니므로 글쓴이의 의도를 고려하여 어순을 이동하여야 한다.

- (예) '나는 그를 천재로 알았다.'에서 '그를'을 문장 앞으로 이동한 '그를 나는 천재로 알았다.'는 가능하지만, '*천재로 그를 나는 알았다.'와 같이 어순을 바꾸면 어색한 문장이 된다.

【학습 활동】

① 다음 문장의 문장 성분을 바르게 짝지어 보자.

그는	•	• 주어
멀리	•	• 서술어
여행을	•	• 부사어
떠났다	•	• 목적어

※ 길잡이

문장에서의 기능을 따져보고 문장 성분을 판단해 본다.

② 다음 물음에 따라 표 안의 빈 칸을 채워 보자.

- ① 다음 용언을 서술어로 하는 문장을 만들어 보자.
- ② 각각의 서술어에 따라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서술어의 자릿수)를 써 보자.

용언	문장	서술어의 자릿수
푸르다		
보다		
주다		

※ 길잡이

서술어는 그 성격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들의 개수가 다르다는 점을 적용한다.

- ③ 다음 문장 성분으로 가능한 문장을 모두 만들어 보고, 의미 차이에 대해 설명해 보자.

영희가, 연주회에서, 바이올린을, 열심히, 연주했다

※ 길잡이

문장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본다.

- ④ 다음 글에서 밑줄 친 부분을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 자연스럽도록 고쳐 보자.

공연장은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발표회하는 회관, 강당과는 다른 400명의 관객 수용이 가능한 공연 전용극장으로 어렵게 대관한 극장입니다. ① 작품은 이미 선생님과 진행 중이며 공연 참가자와 불참자 모두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보내주세요. ② 공연을 진행하게 되면 극장대관비, 조명, 의상대여비, 무대막 대여, 프로그램 제작, 분장비, 인건비, 식비 등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먼저 부모님들께 확인 신청을 받습니다. ③ 가능한 한 많은 아이들이 무대에 오를 수 있는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①

.....

②

.....

③

.....

※ 길잡이

문장에서 서술어를 먼저 찾고 주어와의 호응이 자연스러운지 생각해 본다.

(2) 문장 구조와 의미

<소단원 학습 내용 안내>

다음 문장에서 ‘운 사람’은 누구인가? 두 사람의 대답에 대해 얘기해 보자.

그 사람은 울면서 떠나는 아이에게 손을 흔들었다.

영희: ‘그 사람’이다. ‘그 사람’이 우는 주체가 되기 때문이다.

진수: ‘아이’이다. ‘울면서’가 꾸며주는 말이 ‘아이’가 되기 때문이다.

위 문장의 의미는 영희와 진수의 생각과 같이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이처럼 문장의 의미는 구조에 따라 달리 달라질 수 있다. 글쓴이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국어의 문장 구조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문장 구조와 작문의 관계>

- ▶ 문장은 ‘주어-서술어’의 수에 따라 홑문장과 겹문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 나타나는 문장은 홑문장, 두 번 이상 나타나는 문장은 겹문장이라 한다.
 - ▶ 일반적으로 의미를 보다 명료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홑문장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나, 홑문장과 겹문장은 정보의 제시와 사태의 표현이라는 관점에서 다양하게 선택되어 사용될 수 있다.
 - ▶ 하나의 문장이 둘 이상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장을 중의적 문장이라 한다. 중의적 문장은 피하는 것이 좋으나 글의 효과를 위하여 의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가. 문장의 짜임

홀문장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 나타나는 문장으로, 관형어나 부사어가 많아도 주어와 서술어가 한 번만 나타나면 홀문장이 된다.

(예) '정원에 드디어 장미꽃이 피었다.'의 서술어는 '피었다'이고, 서술어의 주체는 '장미꽃이'로 주어와 서술어가 한 번만 나타난 홀문장이다. '정원에, 드디어'는 부사어에 해당한다.

접문장은 홀문장과 홀문장이 이어진 접문장(이어진문장)과 전체 문장이 홀문장을 안고 있는 접문장(안은문장)으로 구분한다. 이어진문장에는 의미 관계에 따라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있다. 안은문장은 안긴문장의 종류에 따라 하위 분류된다.

구분	하위 분류	예문
이어진 문장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영수는 학교에 가고, 영희는 도서관에 갔다.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나는 늦잠을 자서 학교에 지각을 했다.
안은 문장	명사절을 안은 문장	<u>영수는 그 일을 하기가</u> 쉽지 않다.
	관형절을 안은 문장	<u>영수가 온다는</u> 소식을 들었다.
	부사절을 안은 문장	그 사람은 <u>아는 것도 없이</u> 잘난 척한다
	서술절을 안은 문장	코끼리가 <u>코가 길다</u> .
	인용절을 안은 문장	갈릴레이는 " <u>그래도 지구는 돈다.</u> "라고 중얼거렸다.

나. 중의적 문장

문장의 중의성을 일으키는 요인은 어휘, 문장 구조, 수식하는 범위 등이 있다.

어휘에 의한 중의성은 다의어나 동의어에 의해 발생한다.

(예) '영이가 초를 준비했다.'에서 '초'는 '양초'와 '식초'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제1부 작문을 위한 기초 문법

구조적 중의성은 문장을 이루는 성분들 사이의 통사적 관계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여기에는 수식 관계에 의해서 일어나는 중의성과 서술어와 호응하는 문장 성분, 특히 주어나 목적어의 범위에 의한 중의성 등이 있다.

(예) '내가 좋아하는 친구의 동생을 극장에서 만났다.'는 '좋아하는'이 수식하는 성분이 '친구'인지 '친구의 동생'인지에 의해 중의적으로 해석되고, '철수가 보고 싶은 친구들이 많다.'는 '철수가'가 '보고 싶은'의 주어인지 목적어인지에 따라 '철수를 보고 싶어하는 친구'와 '철수가 보고 싶어하는 친구'의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된다.

수를 나타내는 말이나 부정사가 의미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달라짐으로써 문장의 중의성이 발생할 수 있다.

(예) '모든 소년이 한 소녀를 사랑한다.'는 수관형사 '한'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따라 '모든 소년들은 자신들이 사랑하는 소녀가 한 명씩 있다.'와 '모든 소년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소녀가 한 명 있다.'와 같이 중의적인 의미를 지니게 된다.

【학습 활동】

- ① 다음 문장이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도록 () 안에 있는 말을 적절하게 바꿔 보자.

이 꽃은 영희가 (받다) 꽃이다.

※ 길잡이

‘꽃’을 수식하는 문장성분이 되도록 관형사절로 만들어 본다.

- ② 다음 물음에 답해 보자.

- ① 다음 문장은 중의적으로 해석된다. 해석이 가능한 의미를 모두 써 보자.


영수는 차를 샀다.

- ② 중의적인 해석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자.

※ 길잡이

중의성 해소는 합성어를 통해 새로운 어휘를 생성하거나 수식하는 성분을 통해 가능하다.

- ③ 다음 광고에서 중의적인 표현을 찾고, 그 효과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p>내 복 약</p> <p>기름질 내복을 입고 땀·오도를 차단 보충해 약 4000여개의 나일론·세로를 감싸 수 조를 방지 하며 커튼 대기 등에 방출되는 오산화탄소 제거/가스를 흡입 수 있음·효과</p>  <p>우리 지구 해열제, 내복약을 처방해보세요</p> <p>kobaco</p> <p>한국화학공업(주) (주)한국화학공업</p>	<p>중의적 표현</p>	
	<p>표현 효과</p>	

※ 길잡이

광고에서 독자의 주의를 끌기 위한 장치로 쓰고 있는 중의적인 표현을 찾아본다.

(3) 문법 요소의 쓰임

<소단원 학습 내용 안내>

다음 카페에서의 대화에 나타난 문제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점원: 주문하신 아메리카노 나오셨습니다.

커피: 뭐? 내가 나오셨다고?

높임 표현은 높이려는 대상에 따라 적절히 사용하여야 한다. 위의 대화에서 사용된 높임 표현이 무엇이고, 그 쓰임이 올바른지 생각해 보도록 하자.

<문법 요소와 작문의 관계>

- ▶ 국어의 다양한 문법 요소인 종결표현, 피사동 표현, 높임 표현, 인용 표현 등을 만드는 과정과 규칙, 의미에 대한 이해는 정확한 문장과 효과적이고 적절한 문장을 표현하는 데 바탕이 된다.
 - ▶ 글쓴이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심리적 태도에 따라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을 구별하여 쓴다.
 - ▶ 국어에는 사건에 대한 관점에 따라 능동 표현과 피동 표현, 주동 표현과 사동 표현이 구분되므로 이에 유의하여 사용한다.
 - ▶ 국어에는 어떤 대상이나 상대에 대하여 그 높고 낮은 정도에 따라 언어적으로 구별하여 표현하는 방식이나 체계, 즉 높임법이 발달하였다. 높임법을 통해 글쓴이는 독자와 대상에 대해 배려의 태도를 보일 수 있고,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 ▶ 다른 사람의 글이나 말을 가져와서 전달하는 인용은 글쓴이의 의도와 형식에 따라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을 구분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
-

가. 종결 표현

글쓴이가 전달하고자 하는 생각이나 느낌은 문장의 종결 표현에 의해 완결된다.

국어의 종결 표현은 문장을 종결하는 어미에 따라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으로 나뉜다.

구분	내용	종결 어미	예문
평서문	- 화자가 청자에게 특별히 요구하는 일이 없이, 자기의 생각만을 단순히 전달하는 문장	-ㅂ니다, -어(요), -네, -지(요), -오, -다	오늘 약속에 조금 늦게 도착하겠어.
의문문	- 화자가 청자에게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문장	-ㅂ니까, -어(요), -지(요), -는가, -나, -니	내일 몇 시에 수업이 끝납니까?
명령문	-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면서 언어 내용을 전달하는 문장	-(으)십시오, -(으)세요, -어(요), -어라, -오, -게	날씨가 쌀쌀하니까 창문 좀 닫아라.
청유문	-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함께 하도록 요청하면서 언어 내용을 전달하는 문장	-ㅂ시다, -어(요), -자, -세	내일 모여서 같이 출발하자.
감탄문	- 화자가 청자를 별로 의식하지 않거나 거의 독백하는 상태에서 자기의 느낌을 표현하는 문장	-(는)군(요), -네(요), -(는)구나, -어라	하늘이 참 파랗구나!

종결 표현이 생략된 채 문장을 마치기도 하는데, 종결어미가 사용되지 않은 경우는 서술어 자체의 생략, 종결어미 생략, 명사형 전성 어미 사용,

제1부 작문을 위한 기초 문법

연결어미로 종결하는 방식 등이 있다.

(예) '오늘 휴업'은 종결형 어미가 생략된 채 명사로 문장을 마친 예이고, '금방 돌아오겠음'은 명사형 전성어미 '-음'으로 문장을 종결하고 있다. 이러한 종결 표현의 생략은 간결하고 요약적인 정보 전달, 높임법의 중립 등 담화 상황에 따라 일정한 기능을 수행한다.

나. 피사동 표현

국어에는 사건에 대한 관점에 따라 능동 표현과 피동 표현, 주동 표현과 사동 표현이 구분된다.

주동과 사동, 능동과 피동은 사태에 대한 관점을 문법적으로 드러내는 표지가 된다.

주어가 동작을 직접 하는 것을 주동이라 하고, 주어가 남에게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것을 사동이라 한다.

능동은 주어가 동작을 제힘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피동은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서 동작을 당하는 것을 말한다.

피동 표현은 능동사의 어간에 접미사 '-이-, -히-, -리-, -기-, -되-'가 붙어서 만들어진 것이다. 또한 '-어지다', '-게 되다'에 의해서도 피동 표현이 만들어진다.

(예) '토끼가 사냥꾼에게 잡혔다.'는 피동형 접미사 '-히-'로 만든 피동문이고, '이 펜은 글씨가 잘 써진다.'는 (나)는 '-어지다'로 만든 피동문이다.

사동문은 주동사의 어간에 접미사 '-이-, -히-, -리-, -기-, -우-, -구-, -추-, -시키-'등이 붙어서 만들어진 것이다. 사동문은 '-게 하다'에 의해서 만들어지기도 한다.

(예) '선생님이 철수에게 책을 읽히셨다.'는 사동형 접미사 '-히-'로 사동사를 만든 사동문이고, '차를 정지하게 했다.'는 '-게 하다'가 붙어 만들어진 사동문이다.

다. 높임 표현

국어에는 어떤 대상이나 상대에 대하여 그 높고 낮은 정도에 따라 언어적으로 구별하여 표현하는 방식이나 체계, 즉 높임법이 발달하였다.

높임 표현은 높임의 대상에 따라 상대 높임 표현, 주체 높임 표현, 객체 높임 표현으로 나뉜다.

상대 높임 표현은 화자(글쓴이)가 청자(독자)에 대하여 높이거나 낮추는 표현하는 방법으로 크게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뉜다.

(예) ‘영희가 학교에 갔습니다.’는 격식체 높임 어미 ‘-습니다’를 사용하여 심리적 거리감을 나타내고 있고, ‘영희가 학교에 갔어요.’는 비격식체 높임 어미 ‘-어요’를 사용하여 ‘-습니다’에 비해 청자에 대해 정감 있고 격식을 덜 차리는 표현이 된다.

※ 알아두기: 문장 종결법에 따른 상대 높임법의 분류

		평서법	의문법	명령법	청유법	감탄법
격식체	하십시오체	합니다	합니까	하십시오	(하십시오)	.
	하오체	하오	하오	하오, 하구려	합시다	하는구려
	하게체	하네, 함세	하는가, 하나	하게	하세	하는는먼
	해라체	하다	하냐, 하니	해라, 하거라	하자	하는구나
비격식체	해요체	해요, 하지요	해요, 하지요	해요, 하지요	해요, 하지요	해요, 하지요
	해체	해	해, 하지	해	해, 하지	해, 하지

주체 높임 표현은 주어가 가리키는 인물을 높이는 방법으로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으)시-’가 붙어 실현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계시다, 잡수시다’ 등의 특수한 어휘를 통해 실현되기도 한다. 또한 주격 조사 ‘께서’, 주어 명사에 ‘-님’이 덧붙이기도 한다.

(예) ‘할아버지께서 먼저 출발하셨다.’에서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기 위해 주체 존대 선어말 어미 ‘-시-’와 주격 조사 ‘께서’를 사용하고 있다.

제1부 작문을 위한 기초 문법

객체 높임표현은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 즉 서술의 객체를 높이는 방법으로 몇몇 어휘를 사용해서 표현한다.

(예) '이 책을 선생님께 갖다 드려라.'는 객체인 '선생님'을 높이기 위해 '에게' 대신에 '께'를 사용하고, '주다' 대신에 높임의 의미를 지닌 '드리다'로 표현하고 있다.

라. 인용 표현

다른 사람의 글이나 말을 가져와서 전달하는 인용은 글쓴이의 의도와 형식에 따라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을 구분한다.

직접 인용은 원래 발화의 형식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고, 간접 인용은 원래 발화에 나타난 생각을 전달하되 인용을 하는 화자가 자신의 관점으로 바꾸어 나타내는 것이다.

직접 인용은 '-(이)라고'에 의해 실현되고, '말하다'와 같은 정보 전달 효과를 가진 서술어와 결합한다. 남의 말이나 바람소리, 물소리 같은 것을 그대로 흉내 내어 전달하고자 할 때 '-하고'를 붙여서 표현하기도 한다. 그리고 인용의 형식적 요건에는 문장 부호의 적절한 사용도 포함된다.

(예) '철수가 "애들아 빨리 모여라."라고 소리쳤다.'는 철수가 소리친 내용에 대해 직접 따옴표를 사용하여 직접 인용하고 있고, 이때 인용격 조사는 '-라고'이다.

간접 인용은 직접 인용문의 인용자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 간접 인용절에서는 종결이나 높임 표현이 중화되어 나타난다.

(예) 직접 인용문 '철수가 사장님께 "저는 어디로 갑니까?"라고 물었다.'를 간접 인용문 '철수는 사장님께 (자기는)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다.'로 바꾸면 '갑니까'의 어미는 '가느냐'로 높임 표현이 중화되어 실현된다. 인용격 조사 또한 '-라고'에서 '-고'로 바뀌게 된다.

【학습 활동】

① 다음 문장을 지시에 따라 바꿔보자.

능동문 그는 아름다운 풍경을 보았다.	→	피동문
주동문 물이 잔에 가득 찼다.	→	사동문

※ 길잡이

피동문과 사동문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본다.

② 다음 글에서 피동 표현을 찾고, 잘못된 피동 표현은 바르게 고쳐보자.

최근 전국적으로 신종플루 감염 사망자가 40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항바이러스제 투약 건수 및 집단 발병 사례 등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부내 감염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선제 조치가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 최근 독감 의심 환자의 1/2 가량은 신종플루 감염으로 보여짐.

피동 표현: _____

잘못된 피동 표현: _____

→ _____

※ 길잡이

피동문은 용언 어간에 접미사 ‘-이-, -히-, -리-, -기-, -되-’를 붙여 만들 수 있다.

③ 다음 문장을 높임법에 맞게 고쳐보자.

우리 아버지는 부지런해서, 아침마다 마당을 청소하고, 아침 운동을 한다.

→ _____

※ 길잡이

한 문장에 서술어가 여럿 있을 경우에 높임 표현을 어디에 붙일지 생각해 본다.

④ 다음 글에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 보자.

<알림>

이번 달 정기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시간이 계신 회원님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일시: 2016년 9월 1일, 10시

장소: 1층 회의실

※ 길잡이

높임 표현은 높이는 대상에 따라 문법 형태가 달라진다. 위 글에서 높이는 대상이 무엇(누구)인지 생각해 본다.

⑤ 다음 물음에 답해 보자.

① 다음 간접 인용문을 직접 인용문으로 바꿔 보자.

간접 인용문	영수가 선생님께 크게 말해 달라고 소리쳤다.
↓	
직접 인용문	

② 직접 인용문으로 바꾸면서 달라지는 부분이 어디인지 정리해 보자.

※ 길잡이

직접 인용문은 큰 따옴표, 인용조사 등의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 ⑥ 다음 글에서 밑줄 친 인용 동사를 다른 동사로 바꾸어 보고, 그 차이에 대해 생각해 보자.

○○백화점 수산물 구매담당자는 “설 선물은 뭐니 뭐니 해도 굴비세트”라고 자신했다.

① 자신했다 →

② 차이점:

※ 길잡이

인용동사는 인용 화자의 인용 내용에 대한 태도와 판단을 보여준다.

4. 통일성과 응집성에 유의하며 글쓰기

(1) 통일성과 글의 의미

<소단원 학습 내용 안내>

다음 그림은 음식 재료가 조화를 이룬 비빔밥으로, 여러 가지 재료가 뒤섞여 새로운 맛을 내는 음식이다. 이 그림을 보고, 글에서 통일성을 갖추는 것이 왜 중요한지 생각해 보자.



음식의 재료가 조화롭게 갖추어져 있을 때, 보기에도 좋고 맛도 좋듯이, 글에서도 각 문단의 내용들이 주제와 관련성을 갖고 조화롭게 연결되어 있을 때 통일성 있는 글이 된다.

<통일성과 작문의 관계>

- ▶ 통일성은 좋은 글의 필수 요건이다. 어떤 이야기를 듣거나 글을 읽다 보면, 소위 ‘삼천포로 빠진다’고 느낄 때가 있다. 이는 이야기가 흘러가다가 딴 이야기가 삽입되거나 관련 없는 엉뚱한 결론으로 나아갈 때 사용하는 말이다. 이런 이야기나 글은 통일성이 떨어진다고 한다.
 - ▶ 글쓰기를 할 때, 통일성을 높이려면 개요를 미리 작성해 보아야 한다. 개요란 각 중심 내용의 의미 관계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 때문에 내용의 구조가 드러나도록 시각화 하여 그리는 것이 좋다.
-

가. 통일성의 개념

통일성이란 글을 구성하는 문장이나 문단의 내용들이 글 전체의 주제를 향하여 일관성 있게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하나의 글은 그 글을 구성하는 각 문장들이 하나의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 일관성 있게 연결되어야 한다.

통일성은 글의 일반적 특성으로, 어떤 글이 상대방에게 그 뜻이 받아들여진다면 어느 정도 통일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통일성은 의미적인 결속성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통일성은 응집성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함께 높아진다. 예를 들어, 사형제도 금지를 주장하는 글을 쓴다면, 주장을 명료하게 제시하고, 그 근거와 이유를 써야 하는데, 부분적으로 ‘법관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문단을 포함하게 되면 글의 통일성이 떨어지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나. 글의 계층적 구조와 통일성

좋은 글은 통일성이 높은 글이다. 글의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글을 구성하는 하위 문단들의 내용이 주제를 뒷받침하는 내용들로 계층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글은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문단은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문장은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통일성을 높이려면, 문단 내용들이 주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연결되어야 하고, 문단에서는 주제문을 뒷받침할 수 있는 뒷받침문장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하고, 각 문장에서는 어휘들이 문장의 의미를 잘 드러내도록 선택되어야 한다.

또한 글은 ‘화제’와 그에 대한 ‘설명’ 부분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글은 ‘중심 화제’에 대한 ‘설명’이 계속적으로 연결되고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지구 온난화’에 대한 화제가 있다면, 설

제1부 작문을 위한 기초 문법

명 부분은 지구 온난화란 ‘무엇이며, 왜 생겼으며,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등의 내용들이 체계적으로 연결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성을 높이려면 글을 쓰기 전에 개요를 작성한다. 개요에는 글의 소재가 되는 핵심어를 나열하는 단어 중심의 개요, 핵심이 되는 주장이나 사실을 작성하는 문장 중심의 개요, 문단의 수를 미리 예상하고 문단별로 소주제문을 작성하는 문단 중심의 개요 등이 있는데,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학습 활동】

① 다음 글에서 통일성이 떨어지는 곳을 찾아 밑줄을 쳐보자.

지구는 지금 온난화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구 온난화란 지구 표면의 평균 온도가 상승하는 현상이다. 이로 인해 북극의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다. 그 결과 육지가 물에 잠기고 사라지는 섬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북극에 사는 북극곰도 위기를 맞고 있다. 북극곰은 사람을 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람이 눈에 띄면 먹이로 간주한다. 게다가 음료수 광고, 동물원의 마스코트 등으로 인간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주지만 실제로 북극곰은 곰과들 중 가장 포악하며 공격성이 매우 높다. 북극곰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수십 년 내에 자신의 주식인 물범의 사냥터가 되는 얼음층이 녹아 자신의 생활 터전은 물론 주식이 사라짐으로써 멸종될 위기에 처해 있다.

※ 길잡이

하나의 화제(‘지구 온난화’)와 그에 대한 설명으로 일관된 내용이 연결되어야 하지만, 갑자기 다른 내용(‘북극곰의 특성’)이 삽입된다면 그것으로 인해 글의 통일성이 떨어진다.

② 다음 단어 중심 개요를 참고로 하여 ‘자기소개서’를 통일성 있게 써보자.

	<p><개요></p> <p>서론 — 현재 소속과 이름</p> <p>본론 — 가족 관계와 성격의 장단점</p> <p style="padding-left: 40px;">— 관심사와 활동 경험</p> <p style="padding-left: 40px;">— 희망 진로와 노력</p> <p>결론 — 다짐과 계획</p>
<div style="border-top: 1px dotted black; margin-bottom: 5px;"></div> <div style="border-top: 1px dotted black; margin-bottom: 5px;"></div> <div style="border-top: 1px dotted black; margin-bottom: 5px;"></div> <div style="border-top: 1px dotted black; margin-bottom: 5px;"></div> <div style="border-top: 1px dotted black; margin-bottom: 5px;"></div> <div style="border-top: 1px dotted black; margin-bottom: 5px;"></div> <div style="border-top: 1px dotted black; margin-bottom: 5px;"></div>	

제1부 작문을 위한 기초 문법

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primary-ruled paper. It features a solid vertical line on the left side, creating a margin. The rest of the page is filled with horizontal dotted lines, providing a guide for handwriting practice. There are no other markings or text on the page.

※ 길잡이

통일성 있는 글을 쓰기 위해 미리 개요를 작성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다. 개요에 따라 중심 문장을 작성한 뒤, 뼈대에 살을 붙이듯이 분량을 늘려 완성하는 연습을 해 볼 수 있다.

(2) 응집성과 표현의 효과

<소단원 학습 내용 안내>

다음 시에서 밑줄 친 지시어 ‘그’를 사용함으로써 의미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생각해 보자.

<p style="text-align: center;">그 꽃</p> <p>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p> <p style="text-align: center;">- 고은, <그 꽃>-</p>	
---	--

‘그 꽃’에서 지시어 ‘그’를 사용함으로써, 단순히 추상적인 대상으로서 ‘꽃’이 아닌, 올라 갈 때 경험할 수 있었지만 스쳐 지나갔던 바로 ‘그 꽃’을 지시한다. 이때 지시어는 우리가 삶에서 무심코 지나치던 일상에 대한 발견과 일상의 소중함에 대한 깨달음 등 시의 주제를 드러내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다.

지시 표현을 부각시켜 사용하면 글쓴이의 의도를 강조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응집성과 작문의 관계>

- ▶ 지시를 사용하면 동일한 말을 반복하여 표현하지 않아도 되므로 더욱 간결하고,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다.
 - ▶ 접속을 사용할 때에는 연결하는 두 문장 혹은 문단의 관계를 고려하여 서로 등위적인 관계에서 연결되는지 파악해야 한다.
 - ▶ 대용은 긴 내용을 짧고 압축된 표현으로 바꾸어 글을 다채롭게 하며, 바꿔 씀으로서 글쓴이가 강조하고자 하는 바를 드러낼 수 있다.
 - ▶ 생략을 적절히 사용하면 글이 깔끔하고 간결해지므로 표현의 경제성이 높아지고, 강조하려는 부분을 부각할 수 있으므로 표현의 효과성이 높아진다.
 - ▶ 담화 표지어는 글의 앞뒤 내용을 견고하게 묶어 전체적으로 글을 일관되게 만든다.
-

가. 응집성의 개념

응집성이란 글이 하나의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 형식적인 면에서 잘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응집성도 통일성과 마찬가지로, 글을 글답게 만드는 기본적인 특성이다. 일반적으로 응집성이 높으면 자연히 통일성도 높아진다.

보통 응집성은 문법적인 결속 장치에 의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글의 표면에 자연스럽게 드러나며,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응집성을 높이는 문법적 장치로는 대표적으로 지시, 접속, 대용, 반복, 생략, 그리고 문단 간의 구조적 연결을 높여주는 담화 표지어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나. 지시

지시란 구체적인 맥락 내에서 서로 알고 있는 대상이나 앞 말에 나왔던 내용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지시 표현은 화자와 청자로부터의 물리적 거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종류로 구분된다.

이	가리키는 대상이 화자에게 가까운 경우
그	가리키는 대상이 청자에게 가까운 경우
저	가리키는 대상이 화자와 청자 모두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지시 표현은 독자로 하여금 가리키는 대상에 대한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또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가리키는 대상의 특성(사람·사물·장소인지, 문장 속 기능이 무엇인지 등)에 따라 정확하게 사용해야 한다.

지시 대명사	이것, 그것, 저것, 여기, 거기, 저기 등
지시 관형사	이, 그, 저, 이런, 그런, 저런
지시 부사	이리, 그리, 저리, 이렇게, 그렇게, 저렇게, 요리, 여기, 요기, 어디 등
지시 형용사	이러하다, 그러하다, 저러하다 등
지시 동사	이리하다, 그리하다, 저리하다

지시 표현은 의미가 관련되거나 동일한 대상을 하나로 묶어 표현함으로써 담화의 구조를 긴밀하게 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다. 접속

접속이란 접속어를 사용하여 두 개 이상의 구나 문장을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접속 표현에는 접속 어미를 사용하여 하나의 문장으로 결합하는 방법과 접속 부사를 사용하여 두 문장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

접속 표현을 사용하여 문장과 문장, 문단과 문단의 연결을 견고하게 하여 글의 통일성과 응집성을 높일 수 있다.

먼저, 접속 어미를 사용하는 방법에는 둘 이상의 문장이 독립적이고 대등한 자격으로 연결되는 등위 접속과 의미상 앞과 뒤가 서로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종속 접속이 있다.

등위 접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열(-고, -며 등) · 선택(-거나, -든지 등)
종속 접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고, -며, -면서, -어, -자, -자마자 등) · 이유와 원인(-아서, -니까, -므로, -느라고 등) · 양보(-어도, -ㄴ들, -ㄹ지라도, -ㄹ망정 등) · 조건(-면, -거든, -아야, -ㄴ들 등) · 상황 제시(-니, -ㄴ데, -건만, -거니와, -다시피 등) · 목적(-러, -려고, -고자 등) · 결과 유도(-게, -도록, -라고 등) 등.

또 접속 부사를 사용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이 접속어를 사용한다.

나열 관계	그리고
첨가 관계	게다가, 더욱이, 또한 등
대립 관계	그러나, 하지만, 그렇지만 등
인과 관계	따라서, 그래서, 그러므로 등
전환 관계	그런데, 한편 등

따라서 접속 표현에 의해 연결된 두 내용은 그 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필자의 의도나, 논지의 흐름 등을 짐작할 수 있다. 접속 표현을 사용할 때에는 의미의 관계가 서로 다른 여러 개의 문장을 과도하게 연결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모호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라. 대용

대용이란 이미 앞에서 언급한 내용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 다른 말로 대체하는 표현이다. 대용은 글을 의미상 서로 같은 내용을 바꿔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글을 풍부하고 다채롭게 하는 효과가 있다.

대용은 주로 앞에서 언급된 단어, 문장, 담화를 가리킬 때 사용하기 때문에 글의 단조로움을 피해 바꿔 쓰는 경우도 있고, 앞서 나온 긴 내용을 짧게 압축하는 경우에 사용되기도 한다. 그래서 대용은 ‘이/이러한’와 ‘그/그러한’ 등의 지시어나, 수식어구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대용은 하나의 단어나 문장뿐 아니라, 문장의 일부, 문단, 앞 내용 전체, 그리고 특정 상황을 지시하기도 한다. 따라서 대용은 가리키는 내용을 문맥으로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마. 생략

생략이란 앞에서 나온 단어나 문장을 일부러 누락하는 것을 말한다. 앞에서 나온 내용뿐만 아니라, 독자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문맥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생략이 응집성의 장치가 되는 이유는 앞서 나온 내용이나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일부러 빠뜨려 표현의 효과를 높이기 때문이다.

생략 현상은 글 안에서 어떤 문장 성분이나 내용이 되풀이 될 때나 설사 쓰지 않더라도 문맥이나 상황, 그리고 배경 지식 등으로부터 추론될 수 있을 때 사용한다. 반면, 생략하고 남은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 일부러 나머지를 생략하기도 한다.

문장 성분을 생략할 때에는 의미가 모호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주어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칫 주체가 모호해져 문장 전체의 의미를 전달하는 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정확하게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정보를 과도하게 생략하지 말아야 한다. 즉 충분히 생략할 수 있는 말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살려 반복함으로써 의도적으로 그 정보나 내용을 강조할 수 있다.

바. 담화 표지어

담화 표지어는 글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텍스트 구조 표지어’라고도 하는데, 문단 간의 연결 관계를 보여주는 응집성 장치이다.

필자는 글의 연결을 논리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혹은 독자가 의미 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표지를 사용하여 글의 내용 구조나 논지 전개를 보다 체계적으로 드러낸다.

제1부 작문을 위한 기초 문법

담화 표지어는 앞으로 어떤 정보에 대해 글을 쓰는지를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기능을 수행한다. 독자가 글의 내용을 용이하게 파악하도록 단서를 제공하고자 할 때 담화 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담화 표지어에는 다음 종류가 있다.

대상을 나타내는 표지	이상으로, 이와 함께, 다음과 같이 앞에서 세 번째로 제시되었듯이 등
관계를 드러내는 표지	종합하면, 구체적으로 말하면, 상세화하면, 예컨대, 이른바, 소위, 바꿔 말하면, 비유하자면 등
글 구조 전반에 대하여 개관하는 표지	지금까지는, 다음의 세 가지, 첫째, 둘째, 셋째 등

이러한 담화 표지어는 앞의 내용을 정리하거나 뒤의 내용을 안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글의 내용을 예측하거나 확인하게 할 때, 글의 내용을 생성하고 추리하게 할 때 담화 표지어를 사용할 수 있다.

앞말을 요약하는 기능	요컨대(요약)
뒤의 내용을 안내하는 기능	이제, 지금부터(도입), (개관), 다음으로, 바꿔 말하면, 즉(전환), 강조하자면(강조), 보충하자면(보충), 부연하건데(부연), 예를 들어(예증), 결론적으로, 한정하자면(한정), 일단, 나누어보면(분류), 첫째, 둘째, 먼저, 다음으로(순서)

담화 표지어는 상황에 따라, 격식에 맞게 문어체적인 표현이나, 유연하고 편안한 비공식적인 표현 등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학습 활동】

① 다음 밑줄 친 지시어가 가리키는 내용을 찾아 써 보자.

- ① 쌀밥은 여든여덟 번 손이 가야 한다는 농업시대의 전설을 그대로 간직한 채 지금도 밥상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것은 이미 산업과 정보시대의 두 기술을 한데 모은 자동전기밥솥으로 지은 것이다. 서로 다른 문명이 공존하는 것은 밥상 위에서만이 아니다.
- 이어령, 《디지로그 선언》 -

※ 길잡이

지시 표현을 통해 글을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두 표현이 하나의 의미로 견고하게 묶여 있어 글의 구조를 더욱 긴밀하게 하고 있다.

- ② 유달산에서 나무를 해서 팔아 봤자 나무 한 짐에 쌀 두 되 값 받기가 어려우니, 그것 가지고는 일곱 식구 입에 풀칠하기조차 힘들 것이었다.
- 문순태, 《타오르는 강》 -

※ 길잡이

지시 표현을 통해 글을 간결하게 하기도 하지만, ‘그것, 고작 그것’ 등의 의미로 쓰여, 필자의 의도나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강조하기도 한다.

- ③ 공황장애 증상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호흡장애, 아린감, 심계항진, 불안, 공포, 발한 등이 그것입니다. 멀쩡히 일상생활을 잘 하고 있다가도 갑자기 차에 치일 것 같은 기분의 공포감 등이 들고 등 뒤에서 식은땀이 흐른다면, 이 또한 공황장애 증상일수도 있습니다.
- 블로그 ‘다나올 마음센터’에서 발췌 -

※ 길잡이

같은 지시 표현은 문장 수준을 넘어서 뒤 단락의 내용을 지시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글쓴이는 반복되는 내용은 줄이고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의 관련성을 긴밀하게 보여줄 수 있으며, 독자는 앞뒤 내용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게 된다.

② 다음 글에서 의미 관계에 유의하며, () 안에 적절한 접속 표현을 써 보자.

감자와 고구마가 모두 땅속에서 자란다는 점에서 같은 종류의 식물로 여기지만 사실 이 둘은 전혀 다른 종류의 식물이다. 감자는 고추, 담배, 가지, 토마토와 같은 가짓과 식물이다. (), 고구마는 메꽃과 식물이다. 또한 감자는 줄기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씨감자를 심어서 감자를 키운다. () 고구마는 싹을 키워서 심어야 고구마를 경작할 수 있다. (), 감자에는 전분이, 고구마에는 섬유질이 많이 들어 있다. 그래서 감자를 먹고 엷히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고구마를 먹고 목이 메고 소화가 잘 안 된다.

- 김수미, <감자>, 《잘 먹고 잘 사는 법》 -

※ 길잡이

접속어의 사용으로, 이 글이 ‘감자’와 ‘고구마’를 대조하는 글임을 훨씬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③ 다음 대용 표현이 가리키는 내용을 찾아 밑줄을 그어 보자.

어제 매우 피곤한 상태로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새로 산 컴퓨터를 보며 마냥 좋아하고 있었다. 이것만 봐도 내 소망이 얼마나 간절한지 알 수 있다.

※ 길잡이

대용 표현의 의미는 직접 드러나 있지 않지만, 문맥상 앞에 나온 내용을 추론하거나 압축하여 재구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④ 다음 글에서 생략된 내용을 재구성해 보자.

교사들 “수학, 작년보다 어려웠다...변별력 확보”
(<이데일리>, 2015. 11. 12.)

※ 길잡이

중요한 정보를 생략하면서 오히려 독자의 흥미를 끌 뿐만 아니라 강조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히 드러내는 효과가 있다.

5] 다음 문장에서 이상한 곳을 찾아 빈칸에 적절한 표현으로 고쳐 써 보자.

그녀는 그와 함께 와인과 스테이크를 먹었다.
→ 그녀는 그와 함께 와인을 _____ 스테이크를 _____.

※ 길잡이

생략이 지나칠 경우, 문장의 호응을 깨뜨릴 수 있다. 문장의 성분을 잘못 생략하게 되면, 의미가 모호해진다. 이 문장에서는 서술어가 생략되어 오류가 생겼다.

인간은 자연에 복종하기도 하고 지배하기도 한다.
→ 인간은 자연에 복종하기도 하고, _____ 지배하기도 한다.

※ 길잡이

문장을 지나치게 간결하게 만들기 위해 문장 성분을 잘못 생략할 수 있다. 이 문장에서는 목적어가 생략되어 오류가 생겼다. ‘자연에’가 ‘복종하다’와 ‘지배하다’를 의미상 다 받지 못한다.

6] 다음 글을 읽고, ‘요컨대’가 글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말해 보자.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대표적 중국 지역으로 산둥성 외에 동북 3성이 있는데, 이들의 최근 경제성장률은 중국 전역에서 최하위권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의하면 작년도 중국 31개 지역의 평균성장률은 6.9%. 그러나 동북 3성은 이를 크게 밑돈다. 예컨대, 지린성은 6.5%로 28위, 헤이룽장성은 5.7%로 29위. 랴오닝성은 3%로 최하위 31위였다.

요컨대, 동북 3성은 어떤 의미에서 중국경제의 축소판인 만큼, 중국 국유기업개혁과 경기회복의 판단 지표로 삼을 만하다.

※ 길잡이

담화 표지어 ‘요컨대’는 ‘앞의 말을 요약하자면’의 뜻을 지닌다.

7 다음 예문들의 담화 표지어들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서로 짝지어 보자.

요약	•	그러면 과연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가? <u>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u>
도입	•	<u>지금부터</u>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개관	•	<u>지금까지</u> 중앙도서관 개발이 가지는 정당성과 이에 따른 긍정적 효과에 대해 살펴 보았다.
전환	•	<u>예컨대,</u> 이러한 극지 개발 이익을 얻기 위한 선진국들의 노력을 <u>실제 사례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겠다.</u>
예증	•	<u>다음으로는</u> 왜 조기유학을 떠나게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u>알아보도록 하겠다.</u>

제2부 글의 종류에 따른 문법

1. 보고서	71
2. 안내문	87
3. 논설문	100
4. 건의문	114
5. 초대글	125
6. 감사글	136
7. 수필	145
8. 기행문	161

1. 보고서

주간 업무 보고서		부 서	환경관리과
기 간	2000년 0월 0일(월) ~ 0월 0일(금)	제 출 자	000
		제 출 일	00년 0월0일
인원수/ 근무상황	과원4명 / 근무일수 5일	유급휴가	1명(연속4일)
		조퇴지각	0명
출 장	0월0일 ~ 0일 양평공장 0월0일 ~ 0일 양주공장		
과내행사	0일 초기 환경조사 실시 설명회를 개최 대상 : 총무부, 기획부, 영업부		
회 의	0일 환경연락회의 참석/ 각 부장 15명 0일 ISO 도입 프로젝트 추진회의		
주요업무	1. 초기 환경조사 실시 설명회를 개최 2. 환경 측면 추출 시트 작성 3. 환경 연락회의 의사록 작성 4. ISO 도입 프로젝트 추진회의 의사록 작성 5. 전 사원 대상 환경 매니지먼트 시스템 도입 설명회		
차주 주요업무	1. 전 사원 대상 환경 매니지먼트 시스템 도입 설명회 2. 각 공장에 초기 환경조사 실시 설명회 실시 3. 환경 영향평가 기준의 사무국 원안 작성		
비 고			

직장인들이 직장 생활을 하며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업무가 보고서 작성이다. 직장에서는 무엇인가를 제안하고, 보고하고, 교섭하는 상황이 빈번히 이루어지는데, 기본적으로 보고서를 통해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 직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보고서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다. ‘월간, 주간, 일일, 출장, 진행 현황, 제품 개발’이 모두 보고서가 된다. 예컨대, 위의 ‘주간 업무 보고서’는 주 단위로 업무 보고를 하여 효율적으로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보고서이다. 이렇듯 보고서가 직장 생활의 필수적인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직장인들은 보고서 쓰기에 어려움을 겪곤 한다.

<보고서의 성격>

사회적인 글

개인적인 글

가. 보고서의 개념과 기능

보고서는 맡은 바 임무에 관하여 관계자에게 알리는 글이다. 어떤 업무를 맡은 사람이 그것을 수행하고 그 내용이나 결과를 상사나 관계자에게 알려주는 글로 보고서의 소재 또는 주제는 맡은 임무와 관련된 사항이다. 일정한 양식에 따라 작성되는 보고서는 직장 생활을 하는 성인들에게는 업무의 핵심이나 다름없다. 직장에서 하는 대다수 업무의 평가는 보고서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정보 전달 기능, 업무 처리상 문제점 발견과 시정 계기 기능, 인간적 유대 관계 강화와 조직 활성화 기능 등을 지닌다.

나. 보고서의 특징

보고서는 작성자가 어떤 문제를 왜 선택했고 어떻게 해결할 것이라는 요점을 읽는이에게 이해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보고서의 바탕은 보고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표현이다.

보고할 내용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간결한 문체, 문법에 맞는 정확하고 간결한 문장으로 작성해야 한다.

보고서는 작성목적, 작성자, 독자, 내용, 보고형식 등에 따라 작성방법과 유형이 결정된다. 대표적인 보고서로는 업무보고서, 정책 보고서 등이 있으며, 이들은 각각의 구성 양식을 지닌다.

- **업무 보고서**는 직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보고서로, 일상적인 업무 기록을 통해 과제나 방향성을 점검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보고서이다. ‘업무 내용, 진척 상황, 활동 성과’등을 주요 내용으로 구성한다. 여기에는 출장 보고서, 회의 보고서 등도 포함된다.
- **기획(정책) 보고서**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상급자에게 현황 및 문제점을 보고하고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는 보고서이

다. 기획(정책) 보고서의 내용 구성은 ‘서론(보고 개요: 기획 배경, 보고의 목적과 필요성)–본론(현황과 문제점, 대안)–결론(추진 계획, 제안)’으로 이루어진다.

다. 보고서와 문법

① 표기

보고서는 규범에 맞게 작성해야 한다. 어문 규범의 오류는 전체 내용에 대한 인상을 좌우하므로,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보고서에서 자주 쓰이는 문장 부호인 쉼표, 쌍점, 마침표 등에 대한 규범을 확인하여 정확하게 사용하도록 한다.

문장부호	설명
쉼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웃하는 수를 개략적으로 나타낼 때 쓴다. 예) 5, 6세기 - 열거의 순서를 나타내는 어구 다음에 쓴다. 예) 첫째, 몸이 튼튼해야 한다. - 문장의 연결 관계를 분명히 하고자 할 때 절과 절 사이에 쓴다. 예)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 같은 말이 되풀이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부분을 줄여서 열거할 때 쓴다. 예) 여름에는 바다에서, 겨울에는 산에서 휴가를 즐겼다.
마침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라비아 숫자만으로 연월일을 표시할 때 쓴다. 예) 1919. 3. 1.
쌍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제 다음에 해당 항목을 들거나 설명을 붙일 때 쓴다. 예) 문방사우: 종이, 붓, 먹, 벼루 예) 일시: 2014년 10월 9일 10시 [붙임] 쌍점의 앞은 붙여 쓰고 뒤는 띄어 쓴다. - 시와 분, 장과 절 등을 구별할 때 쓴다. 예) 오전 10:20(오전 10시 20분) - 의존명사 ‘대’가 쓰일 자리에 쓴다. 예) 65:60(65 대 60)

제2부 글의 종류에 따른 문법

조사나 어미의 생략으로 인한 명사 나열의 경우 구인지 합성어인지를 확인하여 규범에 맞게 작성한다.

(예) 틈새공략과 약점보완 전략은 애매 모호하며 큰 장점 없음.

→ '틈새 공략과 약점 보완 전략'이라는 표현은 애매모호하며 큰 장점이 없음.

조사, 의존명사, 접사 띄어쓰기는 틀리기 쉬우므로 특히 신경 쓴다.

(예) '01년 부터 총매출 역전 → '01년부터 총매출 역전

(예) 제 3차 회의 개최 → 제3차 회의 개최

② 어휘

보고서에서는 주관적인 형용사나 부사보다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어휘를 사용하여야 한다.

(예) 시간이 아주 많이 소요된다. → 하루 평균 3시간이 더 소요된다.

의미가 모호하지 않고 정확한 어휘를 사용하여야 전달에 효과적이다.

(예) 2016년 영업 방침: 우량 고객에게 주력한다.

→ 2016년 영업 방침: 매출 실적 상위 20개 회사를 선별하고, 방문 빈도를 2배로 올린다.

(예) 엄청난 수익이 예상되는 매우 좋은 기회다.

→ 기존의 아이템에 비해 거래 건단 4%의 이익이 추가되는 좋은 기회다.

속담, 격언 등의 관용 표현은 정보를 핵심적으로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복잡한 내용에서 핵심적인 의미만 강조할 때 유용하다.

(예) 워런 버핏 회장은 2008년 연례 보고서에서 금융시장 상황에 대해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어마어마한 금융시장의 어리석은 모습들이 드러났다. 최고를 자랑하는 우리의 금융 기관들이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했다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 "잔치는 끝났다"

줄임말(약어)과 전문 용어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 줄임말(약어)와 전문 용어는 원활한 의사소통에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사용한다. 약어가 맨 처음에 나올 때는 정식 명칭과 약어의 관계를 설명하고, 이후

약어만 쓰도록 한다.

(예) 전략적 제휴에 대한 태도
구체적으로 Digital Advertising Consortium(이하 DAC라고 줄임)와
제휴가 유망하다.

(중략)

DAC는 매체나 광고 대리점과 거래 관계를 두텁게 쌓아 업계에서 2
위의 실적을 자랑하고 있다.

친숙하지 않은 약어를 쓸 경우에는 원어를 함께 제시하거나 우리말로
다듬은 표현을 쓴다.

(예) 디지털포렌식 → 전자법의학(수사),
셋다운제 → 게임일몰제/심야차단제
TBT → 무역 기술 장벽(TBT),
브랜딩 → 브랜딩(브랜드(상표)의 이미지, 느낌, 차별성을 수용자의
마음속에 심어주는 과정)

(예) 전문 용어 또는 약자 표현을 다듬은 말 예
R&D → 연구개발, IT → 정보기술, ICT → 정보통신기술,
MOU → 업무협정/업무협약/양해각서,
ODA → 공적개발원조, M&A → 인수합병,
Think-Tank 역할 → 두뇌 집단(Think-Tank) 역할,
OECD → 경제협력개발기구, Action Plan → 실행계획,
SOC → 사회간접자본, Kick-off 회의 → 착수회의,
BT → 생명공학기술, NT → 나노기술,
UN → 국제연합, IP → 지식재산권

③ 문장

보고서는 간결한 문장으로 작성해야 한다. 문장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문장 성분의 호응 등에 문제가 생기기 쉽다. 또한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
결정을 위해서는 보고서의 문장을 간결하게 쓰는 것이 효율적이다.

(예) 이번 교육은 청소년들이 전통 음식의 우수성 및 녹색 식생활을 이
해할 수 있도록 하여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다.

→ 이번 교육은 청소년들이 전통 음식의 우수성 및 녹색 식생활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게 하려고

종결어미가 생략된 명사형은 간결하고 힘있는 느낌을 준다.

제2부 글의 종류에 따른 문법

(예) 경쟁사는 매출 9~19% 및 수익 1% 내외 증가 예상한다.

→ 경쟁사는 매출 9~19% 및 수익 1% 내외 증가 예상한다.

의미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도록 불필요한 수식 표현을 쓰지 않는다.

(예) 고민되는 문제 해결 → 문제 해결,

문의나 요청하는 목소리를 정리한다. → 문의나 요청을 정리한다.

전혀 새로운 신상품 → 전혀 새로운 상품

보고서는 정보 전달을 위한 글이므로 정확한 문장을 써야 한다. 보고서에서 문장을 짧게 쓴다고 지나치게 문장 성분을 생략하면 의사사전달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필요한 만큼의 문장 성분을 갖춘 정확한 문장 쓰기가 필요하다.

(예) 시간강박증 심한 한국인 → 시계는 많은데 시간은 없는 우리 한국인

보고서 제목은 읽는 이의 주의를 집중시켜야 하므로, 질문을 던져 호기심을 자극하는 방식도 효과적이다.

(예) 서울 G20 정상회의 의전 차량을 귀사 임원차량으로 제안합니다.

→ 왜 2010 서울 G20 정상회의는 B 모델 자동차를 의전차량으로 선택했을까요?

보고서에서는 수동적인 표현보다는 능동적인 표현이 보다 적극적인 의도를 드러내는 데에 효과적이다.

(예) 올해 우리 회사는 고객에 의해 아시아 최고의 항공사로 선정되었다.

→ 우리의 고객은 우리 회사를 아시아 최고의 항공사로 선정했다.

보고서에서 부정문은 무의식적인 반발심을 불러일으키므로 가급적 긍정형으로 쓰는 것이 좋다.

(예) 구조조정 → 인력 운용의 효율화

(예) 보고서에서 가급한 피해야 할 부정 표현: 산재, 해고, 구조조정, 미달, 불합격, 재고 폐기, 납기 미준수, 생산불량, 클레임, 덤핑, 반품, 뇌물

외국어를 번역한 느낌이 나는 번역 투 표현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 선정된 점포에 대해서는 → 선정된 점포에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느낄 수 있음 → 사람들만 느낄 수 있음

‘~에 대해서’, ‘~에 의해서’와 같은 번역 투 표현은 피한다.

(예) 품질에 있어서 세계 최고

→ 품질은 세계 최고, 품질 면에서 세계 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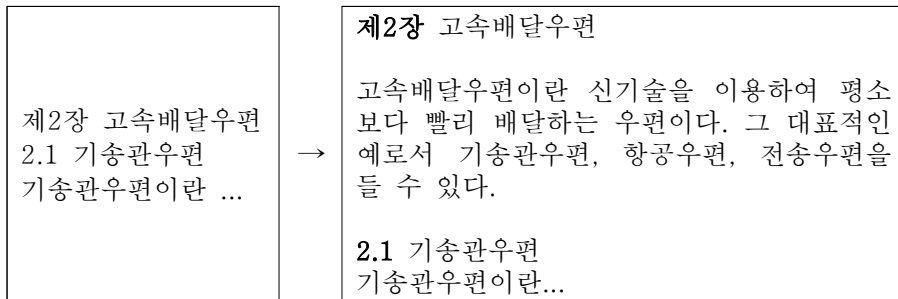
(예) 이 설문조사 결과는 청소년 언어 개선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말해 주고 있다.

→ 청소년 언어 개선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이 설문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다.

④ 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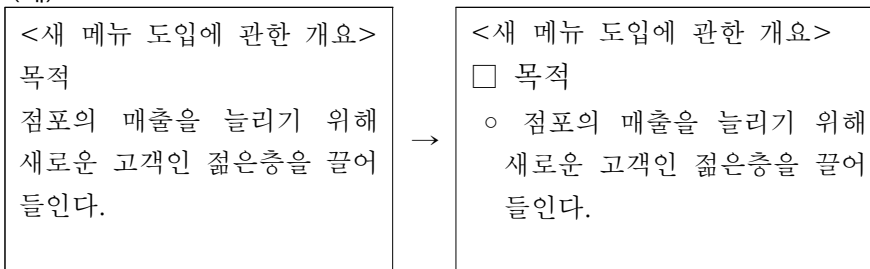
보고서에서는 본격적인 내용 전개를 시작하기 전에 장의 첫머리에 해당 절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에 대한 소개(요약)글을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예)



보고서에서는 장, 절, 소절 등의 계층 구조를 이루게 되며, 이들은 제목과 들여들기, 기호 등의 형식적 장치를 통해 드러난다. 특히, 요약 보고서에서는 기호로 계층 구조를 시각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계층 구조를 표시하는 특수 기호는 ‘□, ○, -, ·’와 같이 크기, 모양 등이 내용의 계층 구조를 보여주는 데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이때 들여쓰기를 함께 하면 시각적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예)



제2부 글의 종류에 따른 문법

구체적인 대책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과일 맛이 나는 달콤하고 상쾌한 음료 메뉴가 필수적이다.

시브리즈, 프루츠퍼레이드, 초콜릿마티니 등이 적절하다.

□ 구체적인 대책

○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과일 맛이 나는 달콤하고 상쾌한 음료 메뉴가 필수적이다.

- 시브리즈
- 프루츠퍼레이드
- 초콜릿마티니

동일한 계층의 내용은 동일한 수준의 표현과 특수 기호를 쓰는 것이 글의 이해에 효과적이다.

(예)

매장 매출 회복을 위한 전략

- 고객이 매장에 들르는 횟수를 늘린다.
- 전단지 배포한다. 쿠폰을 발행한다.
- 재방문 촉진
- 생산 단가 상승
- 음료, 사이드 메뉴 등 부수적인 주문을 늘린다.
- 단가를 올리기 위한 프라미엄 메뉴

→

□ 매장 매출 회복을 위한 전략

- 고객 수 증대
 - 첫 방문 고객 수 증대(전단지 등)
 - 재방문 고객 수 증대(쿠폰 등)
- 주문량 증대
 - 부수적인 주문 증대(음료, 사이드 메뉴 등)
- 단가 상승
 - 프라미엄 메뉴 도입

라. 예시문 분석

1 향토자원 관련 부처 간 연계 협력 체제의 구축

☐ 사업 개요

- 관계 부처 간 협력 체제 구축을 통해 향토자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육성 추진
- 향토자원 관련 업무 수행에 대한 정보의 교환 및 활용을 통해 중복 투자 등 비효율성 문제 해소

☐ 추진 계획

- 향토산업 육성을 위한 관계 부처 간 MOU 체결(" 11.3월)
 -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 ※ 특허청과는 핵심 자원의 지식재산등록 공동 추진 협의 완료("11.3월)

<향토산업 육성 관계 부처 역할 분담(안)>

행안부	농식품부	지경부	문광부	특허청
종합적인 육성 지원 향토자원 DB·포털 구축	농수산물의 가공·마케팅 등 산업화	지역 연고사업 및 지역 특성화 사업	무형 향토 산업의 육성	지식재산권화

- 부처별 지원사업의 연계·협력 추진
 - 향토자원 육성 업무의 공조, 성과의 공동 관리, 예산 사업의 연계 등

☐ 추진 일정

① 관계 부처 간
의견 조율

행안부↔관계 부처
(" 11.2월)

➡

② MOU 협약(안)
작성 및 상호 협의

관계 부처
(" 11.3월)

➡

③ 상호 협력을 위한
MOU 체결

관계 부처
(" 11.3월)

<예시문 분석>

보고 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인 ‘사업개요’를 서두에 제시하고,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추진 일정’의 순으로 구성하여 보고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① 어휘

- 비교적 많이 알려진 약어인 ‘MOU’를 사용하여 간결하게 표현하고 있다.

제2부 글의 종류에 따른 문법

- 보고서라는 공식적인 글이므로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와 같이 관계 부처의 정식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② 문장

- ‘육성 추진, 협의 완료’ 등과 같이 종결어미를 생략한 명사형으로 표현하여 내용을 간결하고 요약적으로 제시하였다.
- 관형어, 부사어 등을 사용하지 않고 주요 내용 중심으로 문장을 구성하여 정확한 정보 전달을 돕고 있다.

③ 담화

- 내용의 계층 구조를 드러내기 위해 특수 기호(□, ○, -)와 들여쓰기를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
- 도표와 화살표 등을 이용하여 내용을 시각화하여 요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학습 활동】

① 아래의 표현들을 보고서에 맞게 정확한 표현으로 바꾸어 보자.

- -일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 좋은 기회가 아닐까요? →

※ 길잡이

보고서에서는 추측 표현이나 주관적 표현보다는 단정적이고 정확한 표현이 더 효과적이다.

② 다음 보고서에서 ①~⑤는 잘못된 부분이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고 바르게 고쳐 보자.

회의 보고서

- ① 보고 일자 : ○○년 ○월 ○일
- 보고자 : ○○팀 팀장 ○○○

② 4월 정기 사내 팀장 회의에서 당 부서를 대표하여 참석하였으므로 당 회의에서 협의 결정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보고드립니다.

의제: ③잔업시간의 단축에 대해서(주관 : 총무부)

④일시: 4월 20일(목)

참석자: ××부서 ××팀장, ××부장, △△부서 △△팀장, △△부장 [총 4명]
의사 결정 사항 : 총무부에서 최근 사내의 잔업 시간이 이상하게 길어져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안이 나와 전원이 협의한 결과 다음의 결정을 ⑤내렸다.

가. 잔업시간이 길어진 이유를 각 부문에서 검토하고 이달 중에 문서로 제출하여 다음 회의에서 단축 가능한 방법을 검토한다.
나. 각 부문에서 잔업 시간의 재조사를 한다.

제2부 글의 종류에 따른 문법

구분	잘못된 이유	수정 결과
①		
②		
③	‘잔업시간’은 구이므로 띄어쓰고, ‘-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표현이므로 삭제함.	잔업 시간의 단축
④		
⑤		

※ 길잡이

공식적보고서는 어문규범을 준수해야 하며, 정확하고 간결한 표현으로 내용을 표현하여야 그 내용에 신뢰감을 주게 된다.

③ ○○○ 씨는 회사 ‘고객의 소리함’에 접수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시에 따라 작성해 보자.

<고객의 소리>	
약냉방칸 동일한 칸에 설치해 주세요~	
등록자 김**	등록일 2016-08-12
<p>저는 지하철 출퇴근과 외근을 할 때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 더웠는데, 어떤 날은 지하철을 타면 약냉방칸이라 하나도 시원하지가 않더라고요.</p> <p>타고 나서 약냉방칸인 것을 알면 다른 칸으로 옮겨가고 싶지만 사람이 많을 때는 이것도 쉽지가 않습니다.</p> <p>시민들이 보다 쉽게 약냉방칸임을 알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합니다.</p>	

- ① 다음 글은 위의 ‘고객의 소리함’에서 제시한 ‘지하철 약냉방칸’ 문제를 취재한 기사이다. 이 기사의 내용을 요약하여 문제를 명확하게 정리해 보자.

지하철 약냉방칸, 호선마다 위치 제각각...이용자 혼선

○○○ 앵커! 지하철 '약 냉방칸'이라고 들어보셨죠?

[앵커] 네, 강한 에어컨 바람이 싫거나 추위 타는 분들을 위해서 냉방을 약하게 틀어놓는 칸이죠?

[기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약 냉방칸이 지하철 호선마다 제각각이어서 이용자들이 혼선을 겪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기자] 지하철 1호선부터 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 콜센터.

"덥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지하철 내부가 많이 덥다는 말씀이신가요.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반면 추위를 타는 이용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박××/경기 고양 일산동: 지하철이 춥잖아요. 에어컨이 세게 틀어져 있어서 저는 보통 (냉방이) 약한 쪽에 타는 편입니다.]

이 때문에 지하철 운영기관들은 냉방을 약하게 틀어놓는 칸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이××/서울메트로 차장: (1, 3, 4호선은) 앞에서나 뒤에서나 4번째 칸인 4·7번째 칸을 약냉방칸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크린 도어에 표시를 해 놓기도 합니다.

서울지하철 5호선의 경우 4번째 칸과 5번째 칸을 약 냉방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스크린도어에선 약 냉방칸이란 표시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지하철 호선마다 약 냉방칸의 위치가 다르다는 점.

서울지하철 5, 6, 7호선의 약냉방칸은 4번째, 5번째 칸으로 1, 3, 4호선과는 다릅니다.

8호선은 3번째, 4번째 칸이고 2호선, 9호선은 약 냉방칸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부산과 대구 지하철은 2번째 칸이 약 냉방칸입니다.

이용자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장××/고등학생: (약냉방칸 위치는) 모르는데, 가운데 아닌가요? 4, 5, 6번째 칸?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약 냉방칸은 왜 호선마다 다른 걸까?

[국토교통부 관계자: (약냉방칸은) 호선 별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 건 운영기관이 자체적으로 지정하는 것...]

결국 사업자들 편의에 따라 운영해 왔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시 관계자: (지하철) 운영기관들을 다 모아 놓고 얘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칸을 운영하는 게 효율적인지...]

지하철 이용객들을 위한 좀 더 세심한 배려가 아쉬워 보입니다.

제2부 글의 종류에 따른 문법

- 지하철 약냉방칸의 문제:
-
-

호선	약냉방칸 위치
1, 3, 4호선	
5, 6, 7호선	
8호선	
부산 1, 2호선	
대구 1, 2호선	

※ 길잡이

기사에서 취재한 지하철 호선마다 제각각인 약냉방칸의 위치와 이와 관련한 문제점을 요약적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이때 표나 도식을 활용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

② ①에서 정리한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자.

문제점	해결방안
지하철 호선마다 약냉방칸의 위치가 제각각이다,	
약냉방칸에 대한 안내문이 부족하다	스크린 도어, 지하철 내부에 안내문을 부착한다.
스크린 도어에 표시해 놓은 곳도 일정하지 않다.	

※ 길잡이

문제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해결방안을 도출해 낸다.

③ 각 해결방안의 장단점을 정리해 본다.

해결방안	장단점
모든 지하철의 약냉방칸의 위치를 통일한다.	장점:
	단점:
스크린 도어, 지하철 내부에 안내문을 부착하다	장점:
	단점:
스크린 도어, 지하철 내부의 안내문을 모든 지하철에 동일한 위치에 부착하도록 한다.	장점:
	단점:

④ ①~③의 활동을 바탕으로 다음 형식의 보고서를 작성해 보자.

<p>제목:</p> <p><input type="checkbox"/> 사업 개요</p> <p>.....</p> <p>.....</p> <p>.....</p> <p><input type="checkbox"/> 추진 배경</p> <p>.....</p> <p>.....</p> <p>.....</p> <p>.....</p> <p>.....</p>
--

제2부 글의 종류에 따른 문법

☐ 현황과 문제점

.....

.....

.....

.....

.....

.....

☐ 해결 방안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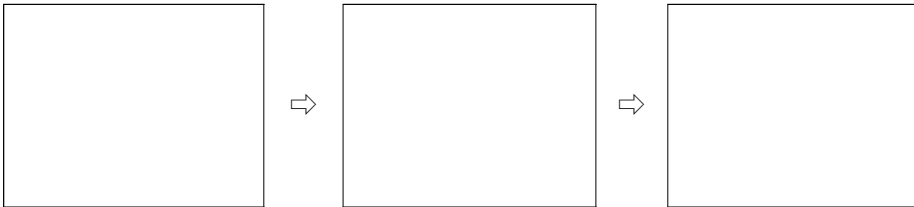
.....

.....

.....

.....

☐ 추진 일정



※ 길잡이

－ 제목

- ☞ 지하철의 약냉방칸 표시 방법을 개선한다는 내용을 제목으로 만들어 보자.
- ☞ 보고서 제목은 내용을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사업 개요

- ☞ 해당 사업의 필요성과 내용, 일정에 대해 간략하게 작성한다.
- ☞ 문장이 길어지지 않도록 하고, 항목화하여 제시한다.

2. 안내문

『탄소포인트제』 참여신청 안내문

■ 탄소포인트제란?

전기 사용량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CO₂) 감축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발급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

■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전기요금 절약하는 경제적 효과와 온실가스를 줄이는 환경보호 효과 발생

■ 참여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지?

관내에 거주하는 세대로서 개별 전기계량기를 사용하는 주민이면 가능하며,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www.cpoint.or.kr) 가입 및 참여신청서를 빠짐없이 작성하여 환경관리팀에 우편 및 팩스로 제출

■ 탄소포인트 참여시 제외되는 경우는?

- ① 상업시설의 소유자(실사용자만 대상임), 심야전기, 농업용계량기 등은 제외됨
- ② 2개이상의 계량기를 보유하는 때에는 1개의 계량기만 선택하여 참여
- ③ 개인정보 변경신청(주소변경 등)을 하지 않은 경우 인센티브 지급 제외

■ 포인트 산청과 인센티브 지급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참여시점으로부터 최근 2년간 평균사용량 대비 전력사용 감축량을 포인트로 환산

⇒ 감축량 × 424gCO₂/kWh(배출계수) × 0.1point/gCO₂ = 포인트
(1kWh 절약시 42.4point 적립, 1point당 2원 인센티브 지급)

※ 지급상한액 : 개인세대 및 상업(건물)시설 실사용자별 10만원/년 이하

■ 탄소포인트제 운영은 전국이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되는지?

지방자치단체마다 예산 등 여건에 따라 운영방식 및 인센티브 지급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대전시 5개구는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음

○○ 구 청 장

(문의:)



주변에서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각종 안내문, 회사나 학교의 행사 안내문, 유적지의 문화재 안내문 등을 여러 차례 접한 적이 있을 것이다. 안내문은 여러 사람들에게 정보를 널리 알리게 위한 목적으로 쓰인 글이다. 위의 안내문은 구청에서 해당 지역의 구민들에게 ‘탄소포인트제’라는 새로운 제도에 대해 안내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다.

<안내문의 성격>

사회적인 글

개인적인 글

가. 안내문의 개념과 기능

안내문은 어떤 대상에 대해 소개하거나 새롭게 벌이는 각종 행사 등을 널리 알리는 글이다. 안내문은 설명하는 글의 한 종류로, 각종 시설 및 설치물에 대한 이용 안내문, 각종 행사 안내문, 경고 및 협조 요청의 안내문, 유적 및 유물에 관한 안내문 등이 있다.

안내문은 발신자가 무엇을, 왜 알리려고 하는지를 상대방이 읽고 한번에 알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안내문의 주요 기능은 정보 전달이다. 글쓴이가 제공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수신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일차 목적이다. 나아가 정보의 성격에 따라 ‘금지, 신고, 협조, 참여’ 등의 호소의 기능을 지니기도 한다.

나. 안내문의 특징

안내문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한다. 안내문을 작성할 때에는 핵심적인 내용을 간략하면서도 정확하게 제시해야 하며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안내문의 중요한 특징은 ‘실용성’과 ‘간결성’이다. ‘실용성’은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실용적인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간결성’은 간결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안내문은 대개 ‘제목-본문-발신자’의 구조로 이루어진다. ‘제목’은 ‘안내문’임을 명시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00안내, 00안내문, 안내드립니다, 알려드립니다’ 등 다양하게 작성할 수 있다. ‘본문’은 다시 정보를 문장으로 서술해 놓은 ‘서술식’, 항목별 요점을 중심으로 간결하게 제시한 ‘항목식’, 이 두 가지 방법을 혼합한 ‘혼합식’으로 유형화해 볼 수 있다. ‘발신자’는 본문 끝에 명시하는 경우가 많고, 안내할 내용을 널리 알릴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으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 안내문과 문법

① 표기

안내문은 한글맞춤법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조사와 합성어와 같이 반드시 띄어써야 할 단어를 붙여쓰지 않도록 하며, ‘삼가하다→삼가다’, 연결어미 ‘-구(→고)’의 구어형과 같이 흔히 틀리기 쉬운 단어도 유의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예) 흡연자 께서는(→흡연자께서) 별도의 흡연 구역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숙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말이나 소란한 행동을 삼가합니다(→삼갑시다).

외래어를 사용할 때에는 외래어 표기법에 맞는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예) 열차 출입문이 안 열릴 경우, 출입문 측 의자 옆 아래쪽에 설치된 출입문 비상콕크(→비상 콕) 커버를 열고 손잡이를 몸쪽으로 잡아 당긴 후, 출입문을 좌우로 열어 개방한다.

② 어휘

안내문은 정보 전달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글이므로 전문적인 용어는 삼가도록 하고 애매모호한 표현도 피하는 것이 좋다.

(예) 소화전함을 열고 관창(노즐)을 잡고 적재된 호스를 함 밖으로 끄집어 낸다.

위 예문에서 관창과 노즐은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말이므로 좀 더 쉬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문맥에 맞는 정확한 어휘를 사용하되, 흔히 혼동하기 쉬운 ‘개발-계발’ 등의 어휘는 사용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예) 우리는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증진과 문화향수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문화 강좌를 적극 계발(→개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내문에는 누구나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외국어나 불필요한 한자어 사용을 지양하여야 한다.

제2부 글의 종류에 따른 문법

(예) 본점은 6월 1일부터 레스토랑 리뉴얼(→새 단장 공사)을 시작한다.

(예) 출입문 개방 불능시 소화기 등을 이용, 창문을 파손 후 대피한다.
→ 출입문을 열 수 없을 때에는 소화기 등을 이용하여 창문을 부순 후 대피한다.

③ 문장

안내문은 일종의 의례문의 성격을 지닌다. 그러므로 특정한 행사나 업무 등에 대해서 공지하고자 할 때는 정중한 태도를 드러내는 표현을 주로 사용한다.

(예)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지금 저희 00하이테크에서는 보다 향상된 홈페이지 품질을 위하여 서버이전 및 안정화 작업을 위한 임시점검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점검시간 : 2월 22일(화) 23:00 ~ 23일(수) 5:00 까지

점검내용 : 서버이전 작업 및 서버안정화를 위한 임시점검

고객 여러분의 불편이 없도록 빠른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여러분의 이용에 큰 불편을 드린점 사과드리며,
보다 안정된 홈페이지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00하이테크 고객지원팀 -

안내문의 문장이 길면 지루한 느낌을 주기 쉬우므로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문장의 길이가 길지 않게 하고, 명사형이나 명사로 문장을 마치기도 한다.

(예)

주방용 오물분쇄기 관련 안내문

○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금지 범위

- ▶ 현행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기기로 판매·사용이 금지(하수도법 제33조)
- ▶ 다만, 인증기관(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제품인증,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하수처리 구역이거나 하수처리구역 외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가정에서 사용 가능

※ 제품인증기준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 음식물찌꺼기를 20% 미만 배출**
 (음식물찌꺼기를 전량 또는 20% 이상 하수도로 분쇄 배출하는 제품은 불법제품이며, 이러한 제품에 있는 인증표시는 허위임)

○ 인증마크

▶ '13.07.01부터 출시되는 제품은 제품인증 표시사항 및 전기안전 인증마크(KC마크)가 부착

○ 불법제품 사용시

▶ 불법제품 사용시 옥내 배수관이 막혀 이웃에서 발생하는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될 수 있고 심한 악취를 유발, 심하면 오수 과다유입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함

[벌칙 규정]

▶ 불법제품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하수도법 제76조)

▶ 불법제품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하수도법 제80조)

정확한 문장을 쓰기 위해서는 문장성분 간의 호응이 매우 중요하다.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수식하는 성분과 수식받는 성분의 관계 등이 적절한지 판단하여 안내문을 작성해야 한다. 또한 불필요한 피동문 사용은 피한다.

(예) 이곳은 00은행 고객을 위해 잠시 주차하는 곳입니다.

→ 이곳은 00은행 고객이 잠시 주차하는 곳입니다.

(예) 도서관 사물함 이용자는 중요 소지품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열쇠 분실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관 사물함 이용자는 중요 소지품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열쇠를 분실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내문은 내용에 따라 자주 사용하는 문장 형식이 있으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 특정 정보를 전달하는 내용은 평서문의 형식으로 표현된다.

(예) 추석 연휴 휴무를 실시합니다.

- 안내문은 특정 행위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시기 바랍니다, -어 주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등의 문장 형식을 자주 사용한다. 또한 ‘-하십시오, -하세요’와 같이 직접

제2부 글의 종류에 따른 문법

명령문을 쓰기도 한다.

(예) 가. 봉사자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0월 0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임시 휴무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라. 기일 내에 꼭 제출하여 주십시오.

마. 출입문을 꼭 닫아주세요.

- 금지의 내용을 담은 안내문에서는 ‘-ㄴ 수 없습니다, -어서는 안 됩니다, -을 금지합니다’와 같은 문장 표현을 주로 쓴다. 이밖에 청유문이나 명령문을 사용하기도 한다.

(예) 가. 도서관 실내에서는 물 이외의 음료를 드실 수 없습니다.

나. 다른 고객의 이용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 수영장 내에서는 외부 음식 반입을 금지합니다.

라.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지 맙시다.

마. 출입 금지 구역에 들어가는 것을 삼가 주십시오.

- 안내문에는 읽는 이의 의무 사항을 표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주로 ‘-어야 합니다, -어야 한다’의 문장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예) 실내에서는 정숙해야 합니다.

④ 담화

안내문은 ‘제목-본문-발신자’의 형식에 맞게 작성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구조는 읽는 이가 쉽게 안내문의 내용에 주목하게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이 제목이다. 안내문임을 명시적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하되, 안내 내용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어 ‘협조 안내문, 이전 안내문, 휴진 안내문’과 같이 세부 정보를 포함하여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예) 2016년 봄학기 견학 안내문, 공사 안내문, 프로그램 회비 인상 안내, 방송반 모집 안내

안내문의 ‘본문’에서는 안내 내용에 대한 배경, 이유, 상황 등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문에서는 전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줄



바꾸기를 허용한다.

안내하고자 하는 내용이 다수일 경우에는 항목화하여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때 글자 크기나 색깔 등을 써서 중요 내용에 대해 강조할 수 있다.

(예)

안 내 문

**복지관 종무식 관게로 아래와 같이
복지관을 휴관하오니 이점 양해하시고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이용자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한
새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휴관일 : 12. 31(목)

■ 휴관사유 : 종무식

휴 · 복학 신청기간 변경 안내문

2016학년도부터 휴 · 복학 신청기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시행하고자 학생 여러분들께 안내하여 드립니다.

- 다 음 -

가. 조정배경

1) 개강 후 잦은 휴 · 복학으로 인한 강의 분위기 혼란 최소화

- 개강 후 한 달까지 휴 · 복학이 이루어짐에 따라 이수신청 강의 분위기 유발
- 휴학예정자에 의한 학수 수강신청이 발생하여 수강신청이 필요한 학생들의 피해 발생

2) 학사일정에 맞추어 늦게 복학한 학생들이 3주간의 수업을 이수하지 못하여 수강 신청 및 성적에서 불이익을 받음

나. 시행

구분	현행	변경
시행일자	2016학년도 2월부터 시행	
신청일자	1학기 : 2월 20일 ~ 3월 21일 2학기 : 8월 20일 ~ 9월 20일	2월 1일 ~ 2월 25일 8월 1일 ~ 8월 25일
등록	등록기간에 등록금 납부 후 복학신청 가능	복학신청 후 등록기간에 등록금 납부

다. 경과조치

1) 현재 휴학중인 학생들이 최초 복학하는 학기에 한하여 기존 일자(3월 21일, 9월 20일)까지 복학 가능

2) 학기중 휴학(학부생에 한함)

현행 : 휴 · 복학 신청기간(3월 21일, 9월 20일)까지는 별도 등록금 공제 없이 휴학 가능

변경 : 3월(9월)에 휴학한 경우 '학기중 휴학' 적용을 받아 등록금 납부액의 1/6을 공제한 후 휴학하여야 함

※ 2016학년도까지는 소속 학과장이 서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학기중 휴학' 적용을 받지 않고 기존 절차대로 휴학 가능(3월 21일, 9월 20일 까지) [2017학년도부터는 규정대로 시행]

3) 군제대 복학자에 대한 조치

현행 : 1학기: 3월 21일, 2학기: 9월 20일 까지 복학신청 가능

변경 : 전역일자가 개강 후 한달 이내인 학생에 한하여 소속 학과장의 지도를 받은 후에 '학과장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개강 후 한달 까지 군제대 복학기간 연장 가능

내용을 항목화할 때에는 아래와 같이 체계적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하위 항목에서는 상위 항목보다 들여쓰기를 해서 시각적으로 구분되게 한다.

(예)

1.

가.

1)

(1)

(가)

①

㉠

라. 예시문 분석

주차장 이용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최근 외부 차량 및 주차스티커 미 부착 차량 증가 등으로 인하여 센터 내 주차장이 매우 혼잡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민체육센터 에서는 원활한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몇 가지 당부 사항을 부탁드립니다. 회원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아 래 -

1. 주차스티커 미부착 차량 주차금지
- 1층 접수차에서 발급 (차량등록증, 회원카드 지참)
2. 해당 프로그램 시간 내 주차장 이용가능 (2시간)
3. 외부차량 이용 금지 (주차시 견인조치)
4. 자가용운행을 지양하고 대중교통 (셔틀버스) 이용 생활화
5. 장애인주차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금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회원 모두에게 편리한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조금만 신경 써주세요."

 구로구시설관리공단
구로구민체육센터

<예시문 분석>

안내문의 전형적 구조인 ‘제목-본문-발신자’로 구성되어 있다. ‘주차장 이용 안내문’이라는 제목은 안내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본문에서는 안내 내용에 대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고, ‘아래’에 해당하는 부분이 전달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이다.

① 문장

- 협조를 부탁하는 안내문으로 안내 내용에 대한 상황 설명에서 ‘부탁

드리오니’, ‘하십시오체’ 등을 사용하여 정중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주요 전달 내용을 명사로 종결하여 간결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때때로 “회원 모두에게 편리한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조금만 신경 써주세요.” 등의 ‘해요’체를 사용하여 좀 더 친근한 느낌을 주고 있다.

② 답화

- 제목과 주요 전달 내용을 글자 크기와 한 줄 띄어쓰기로 구분하고, 강조할 내용에 대해서는 글자색을 달리하여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 특히 ‘견인 조치’와 같이 법적인 제재는 빨간 색을 사용하여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학습 활동】

① 다음은 안내문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오류 문장들이다. 바르게 고쳐 보자.

① 공원 내에서는 취사를 할 수 없습니다.

→

② 주민 여러분께서는 주차시 주요 보관품 등을 차량내에 보관하지 마십시오.

→

③ 공사로 인하여 먼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각 아래 번호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④ 다른 고객이 자동화기기를 이용하고 있을 때 대기선 밖에서 기다리는 미덕을 지켜 상호간에 안심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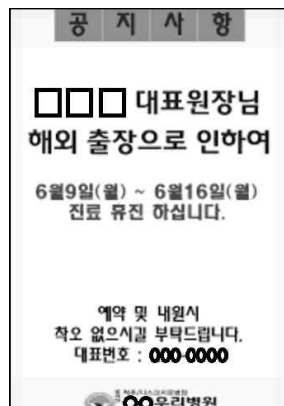
→

.....

.....

② 다음 지시에 따라 답해 보자.

① 안내문에서 어색한 부분을 찾아보고, 그 이유를 정리해 보자.



제2부 글의 종류에 따른 문법

어색한 부분	— —
이유	— —

※ 길잡이

안내하는 내용에 대해 제목으로 드러내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안내문은 수신자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글로, 수신자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 ② 위의 글을 ①에서 지적한 내용을 중심으로 바꿈직한 안내문이 되도록 고쳐 보자.

※ 길잡이

‘공지사항’이라는 제목보다는 안내 내용을 보다 구체화할 수 있는 것이 효과적이다. 안내 내용을 본문에서 따로 분리하여 시각적으로 강조하여 드러내는 것이 이해에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문장은 수신자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다음 상황에 필요한 안내문을 작성해 보자.

상황	초등학교 운동장을 하교 후, 주말 동안은 개방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함.
----	--

- ① 위의 상황에 필요한 정보를 정리해 보자.

-
-
-

※ 길잡이

안내문의 구조와 안내의 목적을 생각해 본다.

② 위의 상황을 알리는 안내문을 제목을 작성해 보자.

•

※ 길잡이

안내문의 제목에 안내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되도록 한다.

③ ①과 ②의 내용을 바탕으로 아래 안내문의 구조에 맞춰 작성해 보자.

<table border="1"><tr><td></td></tr></table>	
<table border="1"><tr><td></td></tr></table>	
<table border="1"><tr><td></td></tr></table>	

※ 길잡이

- 제목: 안내문의 제목은 안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 안내 내용: 안내의 목적과 안내 내용을 간결하고 정확하게 제시한다.
- 발송 주체와 날짜: 안내하는 주체와 날짜를 표시한다.

3. 논설문

최근 중국 관광객들인 유커(관광객)들이 한국을 방문해 8천여 명이 맥주와 치킨 파티를 즐겼다는 기사가 등장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중국 관광객들을 대거 유치하여 관광 수익을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저가의 대규모 유치를 통한 졸속적인 관광은 웅장한 건물 중심의 볼거리나 일회성 체험에 치우치게 되므로 관광객들이 쉽게 식상해진다. 또한 문화지를 중심으로 무분별한 난개발이 이뤄지거나 관광지가 심하게 훼손되기 쉽다. 이는 관광 문화를 발전시키기보다는 퇴보시킬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이제는 관광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어야 한다. 시끄럽게 단체로 몰려다니는 관광이 아니라 가족단위나 소규모 관광객들이 관광지를 찾아 걷고 생각하고 느끼고 추억을 담고 삶의 질을 높이는 생태 관광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관광지의 체험을 통해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생태 관광이야말로 우리 미래를 밝혀주는 가치 있는 여행이 될 것이다.

이 글은 볼거리 위주의 관광 실태를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생태 관광으로 전환하자’고 주장하는 논설문이다. 이와 같이, 논설문은 설득을 목적으로, 타당한 근거나 이유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는 글이다. 따라서 주장에 대한 타당한 근거와 적절한 표현을 구사하여, 문단 간의 통일성이 높아지도록 써야 한다.

<논설문의 성격>

사회적인 글

개인적인 글

가. 논설문의 개념과 기능

논설문이란 어떤 문제를 제기하거나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 사상 등을 이치에 맞게 논리적으로 전개한 글이다. 논설문은 독자를 설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글에 속하며, 이에는 ‘연설문, 논설문, 사설, 만평’ 등이 포함된다.

논설문은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논거로 구성되어 있다. 이때, 주장은 타당하고 뚜렷해야 하며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해야 한다. 또한 근거나 이유는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주장과 논거는 이치에 맞게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통일성을 이루어야 한다.

나. 논설문의 특징

논설문은 논리적이고 짜임새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주로 ‘서·본·결’ 구성이나, ‘기·승·전·결’의 구성 방식에 따른다.

3단 구성		4단 구성	
서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제 제시 -관심 끌기 -동기와 의도 밝히기 -문제의 실태 보이기 	기(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제 제기 -주의 환기
본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제 전개 -견해 서술 -논거 제시 -해결 방안 제시 -논리적인 반박하기 	승(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논지 전개 -논지 해명
결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제 요약 -본론 정리 -행동 촉구 -새로운 과제, 전망 제시 	전(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논지 전환 -논지 보충
		결(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논지 마무리 -요약 및 정리

제2부 글의 종류에 따른 문법

논설문은 독자를 설득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논증 방식을 사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표현한다.

- 연역: 일반적인 원리를 내세우고 특수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결론을 추론하는 방법. 생략 삼단 논법이 대표적임.

예) 사람은 죽는다.

→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 따라서 소크라테스도 죽는다.

- 귀납: 여러 가지 특수한 사실로부터 공통된 일반적인 원리를 끌어내는 방법

예) 사람은 죽는다. 동물은 죽는다. 식물은 죽는다.

→ 사람, 동물, 식물은 생명이다.

→ 따라서 생명은 모두 죽는다.

- 유추: 유비추론의 줄임말, 사물이나 쉬운 예에 빗대어 어려운 개념을 설명하는 방법

예) 영어의 남용으로 우리말이 오염되고 있는 현상은 마치 황소개구리와 같은 외래종이 들어와 우리나라 토종 청개구리를 사라지게 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우리말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외국어 사용은 자제하고 또 순화하여 사용해야 한다.

- 최재천, <황소개구리와 우리말> -

→ 외국어 : 우리말 ≡ 황소개구리 : 토종 청개구리

다. 논설문과 문법

① 표기

맞춤법에 맞게 쓰되, 공적이고 객관적인 인상을 주는 어휘나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예) 잘 틀리는 맞춤법 표현의 예

- 이번 검찰 수사를 통해 정경 유착 관계가 분명히 드러나야(드러나야) 한다.
- 박○○ 선수는 리우에 오기 전 몇일(며칠) 동안 태릉 선수촌에서 컨디션 조절을 했다.

- 이러한 주장은 한 달도 못 돼 금새(금세) 불가능한 것임이 밝혀졌다.
- 금연 구역에서는 흡연을 삼가해야(삼가야) 한다.
- 다른 사람을 이유나 근거 없이 모함해서는 안된다(안 된다).
- 이와 같은 식이요법으로 병이 낳은(나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
- 어의없는(어이없는) 행동으로 민폐를 끼치게 된다.
- 전문대 간호학과는 웬만한(웬만한) 4년대 대학보다 입학 성적이 더 높은 편이다.
- 터무니없는 어거지(억지) 주장과 거짓들이 법정에서도 통용되는 나라라면 이는 후진국이다.

② 어휘

뜻이 명료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적절한 어휘를 사용해야 한다. 특히 한자어의 뜻에 유의하며, 비슷한 뜻이라 하더라도 다른 맥락에서 사용되는 말이나 비슷한 음을 가진 전혀 다른 뜻의 단어는 구별해서 쓴다.

(예) 이번 국회의원들의 “옥쇄파동”으로 인해 선거무효 소송이 제기되었다.

위 예문에서 ‘옥새(玉璽)’는 ‘옥으로 만든 국새’란 뜻이고, ‘옥쇄(玉碎)’는 ‘옥이 부서지듯이, 명예나 충절을 위해 깨끗이 죽음’이라는 의미이다.

(예) 아직 초등학생들은 대개 주위가 산만할 수밖에 없다.

‘주의(注意)’는 ‘마음에 새겨 두고 조심함. 또는 어떤 한 곳이나 일에 관심을 집중하여 기울임’의 뜻이고, ‘주위(周圍)’는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것. 또는 그 환경’이란 뜻으로, ‘산만하다’와 결합하여 쓰일 때 잘 틀린다.

논설문에서는 주장을 명확하고 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혹은 글의 품위를 높이기 위해 사자성어를 자주 사용하는데, 이때도 실수하기 쉬운 표현에 유의한다.

- (예) 절대절명(×) - 절체절명(O)
 홀홀단신(×) - 혈혈단신(O)
 야밤도주(×) - 야반도주(O)
 풍지박산(×) - 풍비박산(O)
 문전성실(×) - 문전성시(O)
 성대묘사(×) - 성대모사(O)
 일사분란(×) - 일사불란(O)

③ 문장

문장의 호응에 유의하여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도록 한다.

- 높임의 호응

(예) 오늘 오전 대통령이 국립 현충원을 찾아 전 대통령들의 묘소에 참배하셨다.

위 예문의 경우, 주체높임-시-가 쓰였으므로, 주격조사 ‘께서’로 맞춰 주는 것이 좋다.

- 시제의 호응

(예) 어젯밤부터 비는 소강 상태에 접어들 전망이다.

위 예문의 경우,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부사, ‘어제’가 쓰였으므로 ‘접어들었다’로 시제를 맞춰 주고, ‘전망(前望)’은 미래를 예측하므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 부사어의 호응

(예) 지구 환경의 오염을 이대로 내버려 둔다면 결단코 비극적인 미래가 도래할 것이다.

‘결코 ~ 하지 않을 것이다.’와 같이, 결코/결단코는 부정어와 호응하는 부사어이다.

- 주술 호응

(예) 이곳은 비흡연자를 위하여 흡연을 삼갑시다.

‘이곳은’의 서술어가 없고, ‘흡연을 삼갑시다’의 주어가 없다. 따라서 ‘이곳은 흡연 금지 구역이니, 비흡연자를 위하여 흡연을 삼갑시다.’로 고친다.

(예) 빚을 청산하는 것보다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손실을 줄인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빚을 ~ 줄인다.’가 ‘공감대’와 직접 동격 관계를 이루지 못한다. 이는 관형절 안에 있는 안긴문장의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하는 것이 손실을 줄인다’(??)). 따라서 ‘빚을 청산하는 것보다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손실을 줄이는 방법이다’로 만든 뒤, 이를 ‘공감대’와 동격이 되도록 고친다.

(예) 이렇게 조기 유학이 만연하게 된 원인은 사교육 시장으로 인해 공교육이 무너지는 것이다.

위 예문 역시 주술 호응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자연스럽지 않다. 따라서 ‘이렇게 조기 유학이 만연하게 된 원인은 사교육 시장으로 인해 공교육이 무너지기 때문이다.’로 고친다.

논설문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전달되도록 ‘하라체’로 쓰는 경우가 많다. 또한 시제도 현재 시제를 써서 주장을 강조한다.

(예) 오등(吾等)은 자(慈)에 아(我) 조선(朝鮮)의 독립국(獨立國)임과 조선인(朝鮮人)의 자주민(自主民)임을 선언(宣言)하노라.

- 「기미독립선언서」 -

위 예와 같이 연설문의 경우에는 청중을 높이기 위해 ‘하십시오체’를 쓸 수도 있지만, 주장을 명료하게 드러내기 위해 해라체와 현재 시제를 쓰기도 한다.

논설문은 주장이 뚜렷하고 명료하게 드러나도록 간결한 문장 구조로 써야 한다. 문장의 길이가 긴 만연체 문장보다는 간결체 문장이 주장을 명확하게 드러내기에 적절하다.

④ 담화

논설문의 담화 구조는 주장과 논거로 구성되는데,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방법에는 ‘문제-해결’, ‘원인-결과’를 제시하는 방법 외에, 서로 상반되는 내용들을 ‘비교/대조’하는 방법, 서로 독립적인 화제나 내용들을 순서를 정해서 제시하는 ‘나열’ 등의 방식이 있다.

이때, 주장과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은 통일성 있게 연결되어야 한다.

(예)-1 [가] 요즘 인스턴트 위주의 식생활로 사람들의 건강이 나빠지고 있다. [나] ①가공 식품에는 유해한 화학 첨가물이 많이 들어 있다.
②적절한 양의 고기와 신선한 채소에는 몸에 좋은 영양소가 많다.
③우리 땅에서 나는 농산물을 소비하면 우리 농가에도 도움이 된다. [다] 우리 건강과 경제를 위해 균형 잡힌 식사를 하자.

위 예는 짧은 논설문이다. [가]는 서론으로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는 본론에 해당하며, 주장에 대한 ‘근거’ 3가지(①~③)를 제시하고, [다]는 결론에 해당하며, ‘해결책’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주장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논거로 이루어졌으며, ‘문제-해결’ 방식으로 쓰였다.

논설문에서는 적절한 응집성 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지시어와 접속부사어 등을 사용하여 논지의 흐름을 간결하게 표현해야 한다. 또한 적절한 반복과 생략, 대용 표현, 담화 표지어 등을 사용하여 글의 연결을 매끄럽게 한다.

(예)-2 요즘 인스턴트 위주의 식생활로 사람들의 건강이 나빠지고 있다. 그것은 가공 식품에는 유해한 화학 첨가물이 많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반면, 적절한 양의 고기와 신선한 채소에는 몸에 좋은 영양소가 많다. 게다가 우리 땅에서 나는 농산물을 소비하면 우리 농가에도 도움이 된다. 따라서 우리 건강과 경제를 위해 균형 잡힌 식사를 하자.

(예)-2를 (예)-1과 비교할 때, 글이 훨씬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다. 이와 같이, 문단의 성격에 따라 지시어, 접속어와 같은 담화 표지를 사용하면으로써 글이 응집성 있게 연결되고, 독자도 논지의 흐름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예)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는 일은 무엇인가? 시간가는 줄 모르고 놀이할 때처럼 매달리게 되는 일은 무엇인가? 이런 일들 중에는 ‘전문직이기는 하되 직업은 없는 상황’인 경우도 흔하다. 예컨대, 예술가가 되는 데는 오랜 훈련이 필요하다. 게다가 안정적인 소득을 주지 못할 때도 많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나의 인생을 ‘영웅 드라마’로 만들 것이다.

위의 예와 같이 ‘예컨대’, ‘예를 들자면’ 등의 담화 표지어를 사용하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표현한 것이므로, 독자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예)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 따르면 최근 보름간 갈치의 산지 위판 물량은 전년 같은 기간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이 때문에 평균 소매가격이 50%이상 오름세에 있다. 반면 고등어의 물량은 오히려 증가하면서 마리당 평균 소매값은 -1~13% 가량 오르는데 그쳤다. 이처럼 국민 생선으로 불리는 갈치와 고등어의 희비가 교차한 까닭은 지난 6월 결렬된 한일어업협정으로 인해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조업이 금지된 까닭으로 분석된다.

위의 예와 같이 ‘한편, 반면, 이에 반해’ 등의 반론을 제시하는 담화 표지어를 사용하면, 자료나 견해를 비교·대조함으로써 주장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

라. 예시문 분석

4차 산업혁명에는 대부분의 직업이 사라질 것이라고 한다. 1차 산업혁명은 물질의 양적 생산성을 증대하면서 80%의 농업 인구가 2% 농업 인구로 대체되었다. 2차 산업혁명은 자동차, 냉장고 등 물질적 욕망을 충족시키면서 제조업 일자리의 3분의 2가 서비스 업종으로 대체됐다. 3차 산업혁명은 인터넷과 사회 관계망서비스(SNS) 등 사회적 연결 욕구를 만족시켰다. 그 사이 일자리는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바뀌었다. 즉 기술혁신이 산업 형태를 바꾸지만 우려처럼 전체 일자리를 줄이지 않았다.

그런데 많은 연구가 4차 산업혁명은 다를 것으로 주장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인간 욕구에 대한 한계론 때문이다. 그 동안은 생산성 증가를 상쇄하는 새로운 인간의 욕구가 나타났지만, 4차 산업혁명은 로봇과 인공지능이 인간의 욕구를 대부분 충족시킬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직업이 필요치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충족되지 않고 남은 욕구가 무엇일까 살펴봐야 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심리학자 매슬로는 생존, 안정, 사회성, 자기표현, 자아실현으로 이뤄진 욕구의 5단계설을 제기했다. 이에 적용하면, 1, 2차 산업혁명은 1, 2단계인 생존과 안정 욕구를 충족하는 물질혁명, 3차 산업혁명은 3단계인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는 연결혁명이었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은 4, 5단계인 자기표현, 자아실현 욕구를 충족하는 혁명이다. 즉 4차 산업혁명에서 새 일자리는 인간의 자아실현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에서 시작된다. 개인의 소비가 정체성을 결정하는 ‘경험 경제’가 도래하고, 물질이 아니라 시간이 중요한 자원이 된다.

따라서 미래엔 인공지능과 로봇 등을 생산하는 일, 개인의 놀이와 소비를 담당하는 일, 생산과 소비를 분배하는 일이 생겨날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도 과학기술, 인문학, 경제사회 분야가 초융합 된 미래 일자리에 대해 준비해야 한다.

- 이민화, 「4차 혁명 시대, 초융합 인재가 필요하다」, 동아오피니언, (2016-0802) -

<예시문 분석>

이 글은 논설문의 특징이 드러나는 객관적인 어조와 간결한 문장이 쓰였다. 이 글도 주장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구성되어 있어 글의 통일성을 높이고 있다. 즉 ‘4차 산업 혁명에는 초융합적인 일자리를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고, 이를 위해 ‘1~3차 산업까지의 변화’와 ‘매슬로의 이론’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논설문은 서론이나 도입부에서 지적하려는 실태나 문제점을 제기

하여 독자가 글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고, 앞으로 전개될 내용을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여기서는 첫 문장이 그런 역할을 한다.

① 어휘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 산업 혁명, 심리학자 매슬로’ 등의 외래어와 전문적인 인상을 주는 학술어가 많이 사용되어 객관성을 높이는 효과를 준다.

② 문장

‘그 이유는 무엇인가’와 같이 질문 형식을 사용하여 독자가 글에 관심을 보이도록 하고, 이어질 내용이 이유와 관련됨을 보여주는 기능을 한다. 또한 ‘새 일자리는 ~ 시작된다. ~ 자원이 된다.’에서와 같이, 미래 시제가 아닌 현재 시제를 써서 주장의 확신성을 강조한다.

③ 담화

담화의 응집성을 높이는 여러 가지 문법적 장치가 사용되었다. 먼저 ‘4차 산업혁명’은 일자리를 줄이고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을 ‘우려’로 표현하여 ‘대응’이 사용되었고, 담화표지어인 ‘대표적으로’는 이어지는 문단이 ‘예시’임을, 또 ‘따라서’는 이어지는 문단이 앞 내용의 결과임을 보여주는 표지로 사용되었다.

【학습 활동】

① 다음 문장에서 잘못 사용된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찾아 바르게 고쳐 보자.

전 세계적으로 화석 연료 만큼 원자력의 이용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원자력의 원료인 우라늄 역시도 매장량에 한계가 있을뿐 아니라, 방사성 폐기물에 의한 오염과 그 처리가 문제시되고 있다.

② 다음 글에서 잘못 사용된 단어를 찾아 고쳐보자.

새 대신 낫선 숙주 몸속에 들어온 바이러스는 과잉 반응하는 면역계와 죽기 살기로 싸운다. 결과는 50%가 넘게 죽음을 맞이하는 **승률**로 바이러스의 승리, 그러나 승리의 대가는 비싸다. 숙주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바이러스 역시 함께 죽어야만 한다. 이것이 바로 **익명**을 떨치면서도 조류 독감의 사망환자 수가 전 세계에서 400명을 넘기지 않는 이유다.

※ 길잡이

문맥을 고려하여 어휘 의미를 파악해 보자. ‘승률’이라는 것은 경기 따위에서 이긴 비율로, 이긴 횟수를 전체 경기수로 나눈 것이다. 또한 ‘익명’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뜻이다.

③ 다음 문장을 적절하게 고쳐 써 보자.

①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간절히 바라면 우주가 나서서 도와준다.

② 국민은 이 정책을 피하기도 했지만, 맞서 싸우기도 했다.

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이우환이 미술계의 세계적 거장이다. 물체와 공간, 물체와 인간 같은 존재들 사이의 관계를 탐구해 찬사를 받은 물파(物派)의 대표 작가다. 2011년 뉴욕 현지 언론 보도는 시민들이 구겐하임 미술관의 ‘이우환 영혼의 창조전’에 매혹 당해 눈물 흘리던 것을 생생하게 다루었다. 또한 시코쿠의 거의 버려진 섬 나오시마가 이우환 미술관을 비롯한 예술 프로젝트로 되살아나 한 해 수십만 명이 찾는 예술의 섬으로 탈바꿈했다.

그런 그가 위작 시비에 휘말렸다. 미술계의 불미스러운 일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한국미술품감정평가원이 감정한 작품 중 30%가량이 위작으로 판정될 정도다. 이 충격적 사태는 예술이란 무엇이며 예술가란 어떤 존재인지를 묻게 한다.

대작이나 베끼기 같은 미술계의 관행이 문학이나 음악 같은 다른 예술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서라도, 그러한 관행이 금기시되어야 하는 이유를 현대 미술은 성찰해야 마땅하다.

- 윤평준 조선일보 칼럼(2016-0715) 중 -

- ① 새로운 정보나 화제를 처음 소개하는 문장에서 그러한 기능을 돕는 보조사를 떠올려 보고, 다음 문장의 조사 ‘이’를 적절하게 고쳐 보자.

- ② 밑줄 친 ‘불미스러운 일’은 무엇을 가리키는지 쓰고, 이 표현에 사용된 표현 방법을 말해 보자.

5] 다음에 주어진 자료를 참고하여 논설문을 계획해 보자.

[가] 한국 어린이와 청소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서 가장 스스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발표한 ‘2016 제8차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어린이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82점으로 OECD 회원국 22개국 중 가장 낮았다. 주관적 행복지수는 스스로 생각하는 행복의 정도를 OECD 평균(100점)과 비교해 점수화한 것이다. 주관적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스페인으로 118점이었으며 오스트리아와 스위스가 113점으로 그다음이었다.



(2016.5.2. 연합뉴스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OECD 꼴찌”)

[나]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냈던 김○○ 포항공과대학 총장은 ‘주입식 교육’으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4차 산업혁명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세상을 바꾸고 있지만 사고의 틀을 고정시키는 우리나라 교육은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파이낸셜 뉴스, 2016.9.20)

① 다음 작문 과제를 보고 주제를 정해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보자.

우리나라 교육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쓰시오.

② 다음은 논설문 쓰기 절차에 따른 활동이다. 다음에 유의하여 초고를 써보자.

우리나라교육은 학생이 행복하지도 않고 미래 사회를 준비하지도 못한다. 따라서 미래에는 학생이 행복해지는 교육, 사고의 틀을 깨는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제2부 글의 종류에 따른 문법

[illegible]

※ 길잡이

[계획]

- 주제문 작성: 필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의견이나 관점을 명료하게 설정해야 함.
- 예상 독자 분석: 독자 수준에 맞는 어휘, 문장, 표현 등을 사용해야 함.
- 글의 목적 확인:
 -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글이므로, 주장에 대한 논거들을 풍부하게 제시해야 함.
 - 상대방의 반론을 예상하고, 그것을 깨뜨릴 수 있는 논거들을 미리 마련해 둬.

[개요]

- 서론-본론-결론
- 문제점(논거) - (문제점 개선 필요성) - 해결책(주장)

[표현]

- 설득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전략
 - 비유: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그와 비슷한 다른 사물이나 현상에 빗대어 표현하여 필자의 의도를 더욱 강렬하게 전달하는 방법
 - 설의: 타당하고 당연한 것을 의문문 형식으로 표현하여 독자의 공감과 수긍을 요구하는 표현 방법
 - 이중 부정: 어떤 명제의 부정을 다시 부정하여 그 명제가 옳음을 강조하는 표현 방법

[퇴고]

- 통일성:
 - 주제에 벗어난 부분은 없는지?
 - 문단의 연결이 자연스러운지?
- 어휘, 문장, 담화
 - 문장이나 어휘의 사용이 적절한지?
 - 맞춤법에 어긋난 부분은 없는지?
 - 지시어, 접속어, 담화 표지어 등이 적절히 사용되었는지?

4. 건의문

3.2

정부지원 소비자상담센터

상담조회

상담신청

정보자료

통계자료

알림뉴스

고객의소리

상담신청

인터넷상담

인터넷상담안내

인터넷상담신청

나의인터넷상담

내용증명

상담 이후 안내

인터넷상담신청

1. 공정거래위원회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소비자 불만 및 피해처리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안내]

2. * 표시 항목은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3. 상담내용의 수정 및 삭제는 '접수 중' 상태에서만 가능합니다.

신청인 기본정보

이름 *

이메일 *

휴대폰번호 *

직접입력

이메일 확인

선택

자택전화

문의내용

작성가이드

안녕하십니까? 저는 A사 핸드폰을 구입한 사람입니다. 전화기를 구입한 지 1년도 안 되어 두 번이나 수리를 받았는데 또 같은 고장이 나고 말았습니다. 다시 서비스 센터에 찾아가서 제대로 고쳐지지 않았다고 항의했더니, 그제야야 본사로 보내 부품을 교체하겠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전화기를 맡긴 뒤 약속한 날에 찾으러 갔더니 아직 도착하지 않았으며 며칠 뒤에나 다시 오랍니다.

전화기 고장 자체도 문제지만, 이런 성의 없는 서비스 태도야말로 더 화가 납니다. 약속 날짜에 다 고치지 못했으면 당연히 미리 연락을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해당 업체가 신속히 제품을 수리하거나 새 제품을 교환받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달여 동안 낭비한 시간과 영뚱하게 들인 수리비도 보상받고 싶습니다.

이 글은 ‘고장과 불편한 서비스’를 이유로 들어, ‘전화기의 신속한 수리 혹은 교환’을 요구하는 건의문이다. 이와 같이, 건의문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잘못된 시책을 문제 삼아 그 개선을 요구하는 글이다. 따라서 설득을 목적으로 자신의 요구사항을 주장할 때는 타당한 ‘근거나 이유’를 들어 문단 간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써야 한다.

<건의문의 성격>

사회적인 글

개인적인 글

가. 건의문의 개념과 기능

건의문이란, 개인이나 단체가 개선이 필요한 어떤 문제에 대해 의견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그것이 받아들여지도록 요구하는 글이다. 독자를 설득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요구(주장)’과 ‘이유(논거)’로 구성된다. 건의문과 비슷한 글에는 ‘호소문, 권유문’ 등이 있다.

건의문은 특정 현상이 변화되고 시정될 것을 요구하는 글이기 때문에,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구체적이고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상대방이 문제점에 공감할 수 있도록 해당 사안을 건의하게 되는 배경 및 건의하는 이유가 드러나야 한다.

나. 건의문의 특징

건의문의 구성은 논리적이고 짜임새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처음-중간-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건의문은 공식적인 글로서, 대부분 예상 독자가 정해져 있으므로 먼저 자신을 밝히고 상대방을 고려하며 존중하는 태도로 써야 한다.

- 처음: 건의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고 건의문을 작성하는 목적이나 이유를 말한다.
- 중간: 건의문을 통해 해결되기를 바라는 문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수신자가 왜, 그리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밝힌다.
- 끝: 건의 내용을 요약하거나 수신자의 긍정적인 답변을 당부하며, 끝인사를 한다.

(예)

구성	구성 요소	예
처음	자기소개	국가 인권 위원회 인권 위원에게 저는 ~학생입니다.
	건의의 목적	색 이름이 바뀌지길 원하여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중간	문제점 혹은 근거	‘연주황’이라는 색 이름은 한자어여서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고, ‘살색’ 등은 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해결방안	어린이들이 쉽게 이해하고 부를 수 있는 색 이름

제2부 글의 종류에 따른 문법

	혹은 주장	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즉 ‘연주황색’을 ‘살구색’, ‘여린 살구색’, ‘복숭아색’, ‘여린 복숭아색’ 등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끝	당부 혹은 끝인사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건의한 시간과 사람	2016년 7월 1일 김○○

건의문에 자주 쓰이는 논증 방법은 논설문의 경우와 비슷하지만, 구체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글이기 때문에 ‘문제점-해결책’의 구조가 많이 쓰인다.

다. 건의문과 문법

① 표기

맞춤법에 맞게 써야 하며, 공적이고 객관적인 인상을 주기 위해 지역 방언보다는 가급적 표준어를 사용해야 한다.

(예) 잘 틀리는 맞춤법, 띄어쓰기의 예

- 그제서야(그제야)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통보를
- 특성이 뛰어나지 않은데다(않은 데다) 개발을 원하는 주민들의 반대 때문이었다.
- 정부 기관이 역할(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으므로
- 이 정도로 처리하는 것이 문안하다는(무난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 일을 어떡해(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지난 번(지난번) 건의를 드린지(드린 지) 얼마 안되서(안돼서) 또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 업친데 덩친격으로(엮친 데 덮친 격으로) 직장에서 해고되었다.

② 어휘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이 명료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적절하고 효과적인 어휘를 사용해야 한다.

비슷한 뜻이라 하더라도 다른 맥락에서 사용되는 말이나 비슷한 음을

가진 전혀 다른 뜻의 단어는 구별해서 쓴다.

(예) 시의회는 예산을 심의, 감수하여 시민들의 청구를 심사·처리해야 하는 기관입니다.

‘감수’는 감독하고 지킨다는 의미이고, ‘의결’은 의논한 것을 최종 결정한다는 뜻. 보통 ‘심의 의결’이 자주 함께 쓰인다. ‘청원(請願)’은 ‘일이 이루어지도록 청하고 원함’이라는 의미의 법률 용어이다. 이러한 어휘는 구분해서 써야 한다.

(예) 금전적인 손해는 물론, 점입가경으로 건강까지 악화되었습니다.

‘점입가경’은 갈수록 경치가 더해진다는 뜻, 일이 점점 더 재미있는 상황이 됨을 뜻한다. ‘설상가상’이 적절하다.

(예) 기상청은 가뭄이 당분간은 계속 될 것이라는 낭보를 알렸다.

낭보(朗報)’는 기쁜 기별이나 소식을 뜻한다. 반대말은 ‘비보(悲報)’이다.

(예) 역전**앞**, 과반수 **이상**, 동해 **바다**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 8월**달**, 토요일**날**

남은 여생, **남긴** 유산, **따뜻한** 온정

쓰이는 용도, **잃은** 손실, 그물**망**

위 예문에 굵게 표시된 부분은 부적절한 의미가 중복된 것이다. 이와 같이 의미가 중복되는 단어들의 쓰임에 유의한다.

③ 문장

주장이 뚜렷하고 명료하게 드러나도록 간결한 문장 구조로 써야 한다. 이때 문장 종결어미를 ‘~해야 합니다’와 같이 표현한다.

(예) 저희들은 **두발 자유에 너무나도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두발 자유를 하면 좋겠습니다.

‘두발 자유에 압박을 받는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두발 자유 금지’라고 표현해야 한다. 또한 ‘너무나도 압박’은 적절한 연결이 아니다.

‘너무나도 큰 심리적 압박’이라고 고치는 것이 좋다.

건의문에서는 의문문 형식의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필자가 제시하고 있는 문제점에 공감하도록 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예) 과연 이런 나라가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선진국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의미로, 강한 비난을 표현함.)

- 어느 곳에서 현장조사를 벌였는지도 모르고, 실험의 기초 데이터까지 누락된 환경영향 평가서를 어떻게 신뢰하라는 것입니까?(신뢰할 수 없다는 의미로, 강한 호소로 상대방의 공감을 얻으려는 설득 전략임.)

문장의 호응에 유의하여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도록 한다.

(예) 해당 업체가 신속히 제품을 수리하거나 교환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업체에게 신속히 제품을 수리하거나 제가 새 제품을 교환받을 수 있도록 ~

밑줄 친 안긴문장은 ‘해당 업체가 ~ 교환받다’로 호응하도록 읽힌다. 따라서 ‘교환받다’의 주어를 제시하거나 문맥에서 혼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고쳐야 한다.

건의문은 상대방이 거의 분명히 결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지키며 써야 하기 때문에 주로 경어체 문장이 많다. 그러나 성명서 형태와 같이 공식적인 입장을 표현할 때는 객관적 문체체를 쓰기도 한다.

예) 한국 전력은 이번엔 전기요금과 전력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내놔야 한다. 국회도 한두 차례 형식적인 공청회나 설명회로 충분히 소통했다며 자족하지 않아야 한다.

위 예의 경우 객관적 표현의 종결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부탁이나 당부보다는 ‘공식성’과 ‘당위’의 성격이 더 강조된다.

건의문에는 건의를 하게 된 이유나 배경을 쓰거나나 다른 사람의 주장을 반박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인용 표현이 자주 사용된다. 직접 인용은 큰따옴표 뒤에 ‘~라고’를 붙이고, 간접 인용은 안긴문장, 인용절(‘~는’)로 표현되거나, 어말어미 뒤에 ‘~(라)고’를 붙인다.

(예) 이런 가운데 정부는 11월까지 당정 논의를 통해 전기요금 개편안을

마련할 테니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안이 작성되지 않았으니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일면 타당한 이야기처럼 보인다.

④ 담화

건의문에는 주장과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이 통일성 있게 연결되어야 한다.

(예) [가] 최근 국내에 들어온 폐암 신약 ‘○○리소’는 정부 관계자들에게는 하나의 약이고 처리해야 할 과제이겠지만, 우리 어머니를 비롯한 폐암 환자들에게는 마지막 희망입니다.

[나] 우리나라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앓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은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워낙 고가의 약제라서 일반 가난한 환자들은 도저히 약값을 낼 수가 없습니다.

[다] 정부 당국이 제도개선을 통해 어머니와 같은 폐암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치료와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가]에서 건의를 하게 된 배경을 말하고, [나]에서 문제점 혹은 주장의 근거를 든 다음, [다]에서 건의 내용을 말하고 당부하는 방식을 취하여 [가]~[다]가 통일성 있게 연결되어 있다.

건의문에서는 적절한 지시어와 접속어를 사용하여 논지의 흐름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다.

(예) 학교는 학생들이 공부도 하지만, 질서와 규칙을 배우는 곳입니다. 저희들은 두발 자유 금지 규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이 잘 연결되지 않는다. 일종의 논리적인 비약이 있기 때문인데, 접속부사 ‘그렇지만/그러나’ 등을 넣어 문장을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다.

문단의 성격에 따라 담화 표지를 사용하면, 글이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구조를 갖추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독자가 논지의 흐름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아래 예의 경우 ‘첫째, 둘째, 셋째’ 등의 담화 표지어를 사용하여 글의 체계를 드러내고 있다.

(예) 이와 관련해 몇 가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첫째, 과거와 달라진

결혼과 출산에 대한 청소년의 의식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 둘째,
출산과 결혼에 혜택을 주는 업무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 셋째,
육아 및 자녀 교육에 대한 무상 복지가 실시되어야 한다.

통계 자료 및 해당 건의를 증빙해 줄 자료를 제시하거나 적절한 예를
들으로써 주장을 지지하는 것이 좋다.

(예) 재난지역선포는 시·도 일원 피해가 5천억 원 이상이거나 이재민 수
1만5천명 이상으로 제정하고 있습니다. 광주·전남의 경우 피해액이
2천억 원 이상으로, 기준에는 미달합니다. 그러나 지난해 폭설 피해
때 10개 시·도 77개 시·군·구를 기준과 상관없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지역도 폭설특별 재해지역으로
선정되도록 촉구합니다.

라. 예시문 분석

존경하는 사장님께

먼저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회사의 성장과 직원의 복리 향상에 여
념이 없으신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건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
내 식당 문제입니다.

식료품 단가가 정해져 있는 사정을 모를 리 없지만, 사내 급식이 맛이
없고 반찬이 늘 비슷해서 식상합니다. 게다가 연구소 주변에 마땅히 시켜
먹을 식당이 없고, 또 제대로 된 식사를 하려면 멀리 나가야 하기 때문에
점심시간 내에 돌아오는 데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직원들이
점심을 사내에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왕이면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다면, 시간도 아끼고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특식을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요즘 유
행하는 퓨전 메뉴도 포함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이와 함께 직원들이 먹고
싶은 음식을 사내 게시판에 올리고 이를 적절히 반영하여 식단을 짜주셨
으면 합니다.

맛있는 식사는 직원들의 건강은 물론 사기 충전에도 도움이 됩니다. 직
원 복지 차원에서라도 사내 급식이 좀 더 개선된다면, 직원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의 건의가 받아들여지길 바라며, 안녕히 계십시오.

2000. 0.

직원일동

<예시문 분석>

이 글은 글쓴이의 요구사항이 잘 드러나는 건의문이다. 이 글도 주장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구성되어 있어 글의 통일성을 높이고 있다. 즉 ‘식단을 개선해 달라’는 요구를 하기 위해 ‘식단이 단조로움’과 ‘직장 근처에 식당이 없고 점심시간이 짧다’는 것을 근거로 내세웠다.

이 건의문은 편지형식으로 되어 있으면서 ‘처음-중간-끝’의 구성을 지닌다. 처음에는 인사와, 건의를 하게 된 배경을 말하고, 중간에는 건의를 하게 된 이유를 제시하고, 끝에는 당부와 건의하는 시간과 사람을 적어 끝맺고 있다.

① 어휘

- 관용구 ‘여념이 없다’는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다는 뜻.
- ‘금상첨화’는 ‘좋은 일에 또 좋은 일이 더하여짐’을 뜻함.

② 문장, 담화

건의문은 간곡한 부탁을 드러내기 위해, 또 건의할 대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대에게 예의를 지키거나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하십시오체’나 경어체를 쓰는 경우가 많다. 또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인사와 당부를 완곡한 문체로 표현하기도 한다.

【학습 활동】

① 다음 문장에서 맞춤법이 잘못된 부분을 고쳐 보자.

- ① 지금 가을걷이가 한창입니다.
- ② 제 생각은 좀 틀립니다.
- ③ 정부가 벌린 사업이 연간 1조의 손실을 내고 있습니다.
- ④ 최근에는 웬지 어두운 골목길을 가기가 두렵습니다.

② 다음 문장을 자연스럽게 고쳐 써 보자.

- ① 우리는 국가의 이 정책을 거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대를 걸기도 한다.
- ② 특이한 점은 이번 일로 사람들의 안전 의식이 더욱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③ 건의문의 형식을 고려하여 에 적절한 접속사를 써 보자.

저는 환경을 걱정하는 강원도 시민입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설립 철회를 말씀드리려고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그 자체로도 문제가 많고 그로 인한 후유증도 엄청납니다. 일본 등 외국에서는 케이블카 건설 사업이 정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관광 추세가 좀 더 느리고 오래 머무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 설악산은 1997년 유네스코 자연유산 등재를 하려다 무산된 뼈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동식물 생태학적 특성이 뛰어나지 않은 데다

개발을 원하는 주민들의 반대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케이블카를 더 설치하게 되면 자연유산 등재는 정말 물 건너가고 맙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설립 계획을 재검토해 주십시오.

4] 건의문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생각해 볼 때, 다음 글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말해 보자.

작년에, 가로등을 내년에 교체할 예정이라고 공지한 것 같은데 언제 교체하는지요?

가로등 아크릴 커버는 색이 바래서 어두워요.

가로등 전체 삼파장 램프로 교체해야 합니다. 만약 교체가 어려우면 아크릴커버만이라도 유리 커버로 교체해야 해요. 아크릴 커버는 오래되면 누렇게 그을립니다.

빠른 시정 바랍니다.

그리고 외벽 조명은 도대체 고장인가요?

※ 길잡이

건의문은 대부분 독자가 정해져 있으며, 상대방을 설득하는 공식적인 글이므로, 예의를 갖추어 써야한다. 따라서 건의할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잘 전달되도록 써야 하는 것은 물론, 처음과 끝인사 등을 통해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가 드러나야 한다.

5] 다음 개요를 바탕으로 시장 상인의 입장에서, '시장(市長)'님에게 '재래시장 활성화'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써 보자.

I. 문제 제기

II. 재래시장 침체의 실태와 그 원인

1. 실태: 매출액 감소, 빈 점포 증가

2. 원인: 편의 시설 미비, 서비스 의식 미흡, 대형 유통업 및 전자 상거래 중심의 변화

III.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1.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 공간으로 대체

2. 서비스 의식 강화

3. 지역 특산물 시장 육성

IV. 재래시장의 활성화 대책 촉구

제2부 글의 종류에 따른 문법

※ 길잡이

건의문 작성시 유의할 점

- 건의문의 수신자(독자)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수집해야 한다. 수신자의 성향, 영향력, 수준, 성별, 종교, 관심사 등에 대해 자세히 분석한다.
- 수신자가 비슷한 건의를 받은 적이 있었는지, 그러한 경우 어떠한 답을 했는지 등의 정보도 수집한다.
- 건의를 하는 상대방이 공감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5. 초대글

초대합니다.

우리가 스쳐 보내는 수많은 사물들과 풍경 그리고 추억과 시간을
카메라에 담아 사진전시회에 모았습니다.

일상의 바쁜 날들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싶을 만큼 좋은 자리가 되
도록 노력했습니다.

가을 첫머리에 좋은 인연의 자리로 당신을 모십니다.

일시: 2016년 9월 10일 오전 10부터 오후 5시까지

장소: ○○문화예술회관 1층 전시실

일상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장소는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친교의 장(場)이 된다. 이때 다른 사람들을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한
곳에 모이도록 할 때 필요한 글이 초대글이다.

<초대글의 성격>

사회적인 글

개인적인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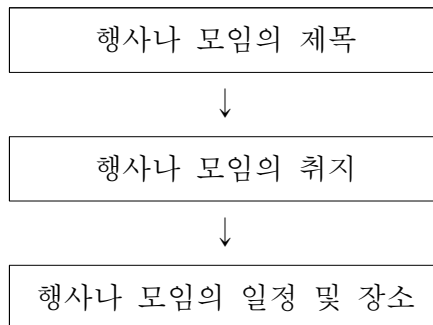
가. 초대글의 개념과 기능

초대글이란 행사나 모임에 참가해 줄 것을 청할 목적으로 작성한 글을 일컫는다. 이때 행사나 모임에는 각종 기념식, 전시회 등을 포함해 공적, 사적 목적을 가진 것들을 망라한다.

초대글은 어떠한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기 위해 작성한다는 점에서는 안내문으로서의 성격을 가지지만, 자신이나 자신이 관련되어 주관하는 특정한 행사나 모임에 참석해 주도록 요청한다는 점에서 의례문의 기능을 갖기도 한다.

나. 초대글의 특징

초대글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틀을 지닌다.



이때 ‘취지’는 될수록 간결한 문장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쓰되 ‘일정 및 장소’와 함께 육하원칙에 따라 명확하고 명료하게 적도록 한다.

초대를 받는 사람은 윗사람, 동년배, 아랫사람 등으로 다양하지만 모두 손님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그 내용은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다. 초대글과 문법

① 표기

초대글에 나타나는 연월일을 표시하는 방법은 ‘연’, ‘월’, ‘일’을 밝히는 방법과 이들을 마침표로 대신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 경우, 마침표는 각각 ‘년’, ‘월’, ‘일’을 대신하는 것이므로 생략해서는 안 된다. 특히 ‘일’에 해당하는 마침표를 누락시켜 ‘2016. 8. 22’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마치 ‘2016년 8월 22일’을 ‘2016년 8월 22’라고 표기하는 것과 동일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예) 2016년 8월 22일 / 2016. 8. 22.

‘일시’나 ‘장소’ 뒤에 쌍점(:)을 표시할 때는 앞말에 붙여 쓰고 뒷말과 띄어 써야 한다.

(예) 일시: 2016년 8월 22일

(예) 장소: 국립국어원 2층 회의실

초대장의 내용에 신경을 쓰다 보면 띄어쓰기나 맞춤법에 소홀한 경우도 있다. 이는 전하려는 내용의 정확성을 해치므로 띄어쓰기나 맞춤법에도 특히 신경을 써야 한다.

(예) “2017년의 새해를 보며 같은 소원을 **빌어야 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신년회 초대장 중에서)

위 예문에서 ‘빌어야 할 지도’의 ‘-르지도’는 하나의 어미이므로 ‘빌어야 할지도’로 붙여 적어야 한다.

(예) “마음의 짐도, 걱정도 없는 즐겁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담소 나누시
러 **들려** 주시기 바랍니다.”(송년회 초대장 중에서)

위 예문에서 ‘들려’는 ‘들리다’의 활용형이고 문맥에 맞게 ‘들르다’의 활용형인 ‘들러’로 수정되어야 한다.

② 어휘

초대의 글은 의례문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특정한 상황에서는 특정한 어휘가 사용되는 일이 적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의미의

분명한 전달을 위해 어휘 사용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결혼 청첩장에서 혼주와의 관계를 밝힐 때 잘못 쓰는 경우가 많은데 ‘장남’, ‘차녀’의 ‘장(長)’과 ‘차(次)’는 성(性)이 같아 상대되는 말이 있을 때만 쓸 수 있으므로 자녀가 둘뿐인데 아들, 딸의 순서로 있는 경우 ‘아들’이 첫째라고 ‘장남’, ‘딸’이 둘째라고 ‘차녀’라는 어휘로 표현하면 안 된다. 즉 남자는 남자끼리만 따져 ‘장남’, ‘차남’ 등을 적고 여자는 여자끼리만 따져 ‘장녀’, ‘차녀’ 등의 어휘를 선택해야 한다.

부고(訃告)는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초대(喪告)의 성격을 가지는데 특히 의례문의 성격이 강하다. ‘아무개의 ○○’라고 할 때 상주(喪主)의 아버지이면 ‘부친’, ‘아버님’, ‘대인(大人)’, 어머니이면 ‘모친’, ‘어머님’, ‘대부인(大夫人)’, 할아버지이면 ‘조부’, ‘할아버님’, ‘왕대인(王大人)’, 할머니이면 ‘조모’, ‘할머님’, ‘왕대부인(王大夫人)’, 남편이면 ‘부군(夫君)’, 처이면 ‘부인(夫人)’, ‘내실(內室)’, ‘합부인(閤夫人)’이라는 어휘를 사용해야 한다.

초대글에는 일정한 패턴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동일한 표현이 여러 번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같은 의미를 가지지만 다른 뉘앙스를 가지는 말로 표현의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예) “부모라는 이름을 선물하고 **항상** 사랑과 감사를 가르쳐 준 ○○이가 첫 생일을 맞이하였습니다. **항상** 곁에서 저희와 함께 해 주신 고마운 분들과 기쁨을 나누고자 정성어린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돌잔치 초대글 중에서)

위 예문에서 ‘항상’이라는 말이 두 번 반복되고 있으므로 두 번째 ‘항상’은 ‘늘’이라는 유의어를 사용하여 표현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

③ 문장

초대글은 예의를 갖추는 글이므로 높임 표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높임법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예) “만물이 소생하는 새 봄을 맞아 가내 두루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제껏 저희 3남매를 낳아 주시고 가없는 사랑으

로 길러주신 어머님(○○字○字)께서 이번에 회갑을 맞으셨습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긴 세월동안 곁에서 도와 주시고 두터운 정을 쌓아 오신 여러 어른, 친지분들을 모시고 조출한 자리를 마련코자 하오니 부디 오셔서 함께 옛정을 나누어 주시면 저희 자식들에게는 더없는 기쁨이 되겠습니다.”(회갑연 초대글 중에서)

‘평안하시길’, ‘주시고’, ‘길러주신’, ‘맞으셨습니다’, ‘오신’, ‘오셔서’, ‘주시면’에는 주체 높임을 나타내는 문법 요소 ‘-(으)시-’가 실현되어 있고 ‘어머님께서’의 ‘께서’, ‘모시고’와 같은 주격 조사나 특수한 어휘도 주체 높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해 ‘기원합니다’, ‘맞으셨습니다’, ‘되겠습니다’는 상대 높임을 나타내는 문법 요소 ‘-입니다’, ‘-습니다’가 사용되어 격식을 갖춘 상대 높임의 위계 가운데 가장 높은 층위를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초대글에서는 ‘부디 오셔서’, ‘꼭 참석하셔서’ 등이 도치되어 문두에 위치함으로써 참석을 독려하는 효과를 거두는 일이 많다.

(예)-1 “아름다운 꽃에는 가꾸어 온 사람의 노고가 깃들어 있듯이 인생의 기쁜 순간에 있어 도와주신 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느낍니다. 언제나 이러한 고마움을 잊지 않고 사랑하며 살겠다는 소중한 맹세의 기간을 갖고자 합니다. 새로이 함께 서는 저희 두 사람의 모습을 부디 오셔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결혼 청첩장 중에서)

(예)-2 “항상 베풀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부족한 저희들이 이제 진실과 이해로써 하나를 이룹니다. 부디 오셔서 두 사람의 사랑이 더 큰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결혼 청첩장 중에서)

(예)-2의 경우 ‘부디 오셔서’를 문두로 도치시켜 참석을 독려하는 표현적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담화

초대의 글을 쓸 때 초대하는 사람과 상대방의 관계에 따라 지시어 사용에 주의해야 할 때가 적지 않다. 가령 청첩장에서는 인사말을 하는 사람이나 봉투의 보내는 사람이 일치해야 한다. 따라서 청첩장을 보내는 사람이 혼주일 때와 신랑, 신부일 때 ‘여기’와 ‘저희’로 신랑, 신부를 가리키도록 한다.

(예)

발송 주체에 따른 봉투와 속지의 표현

발송 주체가 혼주일 때	봉투	○○○[아버지], ○○○[어머니] 배상(拜上)/울림/드림
	속지 인사말	여기 두 사람이 사랑으로 만나 한 가정을 이루려 합니다. 아끼고 돌봐 주신 여러 어른신과 친지를 모시고 혼인의 서약을 맺고자 하오니 축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발송 주체가 결혼하는 당사자일 때	봉투	○○○[신랑], ○○○[신부] 울림/드림
	속지 인사말 (전형적인 인사말)	저희 두 사람이 사랑과 믿음으로 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앞날을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초대글에서 문장 사이에 동일한 구조를 반복하여 글의 응집성을 높이는 경우가 있다.

(예) “오랜 시간 한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이 아닌 하나임을 알게 해준 사람... 흠 속에 잠드는 그 날까지 하나로 살겠습니다. 따스한 남편, 믿음직한 사위가 되겠습니다. 현명한 아내, 사랑스러운 며느리가 되겠습니다. 서로에게 뿌리가 되어 흔들림이 없도록 믿음의 눈으로 지켜봐 주세요. 행복하게 살겠습니다.”(결혼 청첩장 중에서)

‘따스한 남편’과 ‘현명한 아내’, ‘믿음직한 사위’와 ‘사랑스러운 며느리’가 서로 대구(對句)를 이루면서 글의 응집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예시문 분석

초대합니다!

봄별의 따스함이 느껴지고 봄 내음 가득한 들녘에는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새봄을 맞이하여 우리 동창들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계절의 변화만큼이나 빠르게 지나온 세월은 동창들의 기억마저 아련해지려 함은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여정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읽어줄 사람들이 곁에 있기를 원하게 됩니다.

볼수록 기분 좋고 가까이 할수록 마음 편한 사람 바로 우리 동창생입니다.

이제 따듯한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고 초대하오니 주변의 바쁜 계획들은 잠시 접어놓으시고 아래 일시의 장소에 함께 모여 미루었던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언제: 4월 25일(일요일) 오후 2시

어디서: 서울 ○○호텔 2층 ○○홀

<예시문 분석>

초대글의 전형적인 틀인 ‘제목’ - ‘취지’ - ‘일시 및 장소’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절 인사와 함께 정서적인 내용을 통해 모임에 참석하고 싶은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① 어휘

- ‘봄별’, ‘새봄’은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쓰고 ‘봄 내음’은 두 단어이므로 띄어 쓰고 있다. ‘변화만큼’의 ‘만큼’도 조사이므로 붙여 쓰고 있다.
- ‘언제’, ‘어디서’ 다음에 쌍점을 붙여 쓰고 그 다음은 띄어 쓰고 있다는 점에서 문장 부호의 사용이 적절하다.
- ‘우리’라는 어휘를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동창회의 친밀함을 강조하고 있다.

② 문장

- 동창 가운데는 보내는 사람보다 후배나 손아랫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기원합니다’, ‘여겨집니다’, ‘됩니다’, ‘동창생입니다’ 등 격식체의 하십시오체를 사용하여 정중한 느낌을 주고 있다.
- ‘볼수록 기분 좋고’와 ‘가까이 할수록 마음 편한’은 서로 대구를 이루어 응집성을 높임으로써 초대글의 표현 효과를 높이고 있다.

【학습 활동】

① 다음 초대글에서 띄어쓰기가 잘못된 것을 찾아 바르게 고쳐 보자.

- ① 소망이 축복 속에서 기쁨으로 이루어지는 날 저희 두 사람이 하나가 될 뜻깊은 날을 맞게 되었습니다.
- ②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난 두 사람이 이제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아름다운 약속을 하려합니다.
- ③ 평소 여러분의 보살핌에 힘 입어 이번에 제가 중구 명동에 의류판매점을 개업하고 자축의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바쁘실줄 아오나 부디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④ ‘나’ 하나로 홀로서기 보다는 ‘부부’라는 이름으로 마주보기 위해 저희 두 사람 백년의 길로 출발합니다.
- ⑤ 만물이 소생하는 새 봄을 맞아 귀댁의 평안과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 ⑥ 알리는 말씀은 저희 딸 소희가 벌써 햇벌을 본지 일년이 되어 약소하나마 그 동안 깊으신 사랑으로 격려해 주신 여러 어르신과 친지들을 모시고 조출한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⑦ 많은 분들이 행여 다칠 세라 염려와 사랑을 아끼지 않으신 까닭에 진원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 길잡이

두 단어가 결합한 것들 가운데 사전에 한 단어로 실려 있는 것은 붙여 쓰고 그렇지 않은 것은 띄어 쓰도록 한다. 또한 조사와 어미는 언제나 그 앞말에 붙여 쓰고 의존 명사는 띄어 쓰도록 한다.

② 다음 부고에서 '호상(護喪)'이라는 어휘가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자.

부 고

○○의 부친 ○○[본관] ○[성]공 ○○[돌아가신 분의 이름]님께서
병환으로 ○○○○년 ○월 ○일 ○시 자택(○○○○ 병원)에서
별세하셨기에 알려 드립니다.

영결일시 ○○○○년 ○월 ○일 ○시
영결식장 ○○구 ○○로 ○○○(○○회관)
발인 ○○○○년 ○월 ○일 ○시
장지 ○○도 ○○군 ○○면 ○○로 (○○ 공원묘지)

망아들 ○○
말며느리 ○○○
아들 ○○
며느리 ○○○
딸 ○○
사위 ○○○
손자 ○○
손부 ○○○

○○○○년 ○월 ○일
호 상 ○ ○ ○ 올림
(연락처 : 전화번호 ○○○-○○○○)

※ 길잡이

국어 사전을 찾아 호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찾아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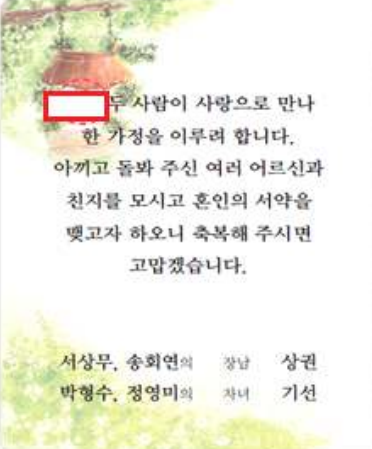
③ 다음 초대글에서 잘못 사용된 높임 표현을 찾아 바르게 고쳐 보자.

- ① 항상 귀댁에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②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귀하의 건승과 사업의 일익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길잡이

주체 높임의 경우 높임의 대상은 행위의 주체나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물에 한정되므로 그 이외의 경우에는 높임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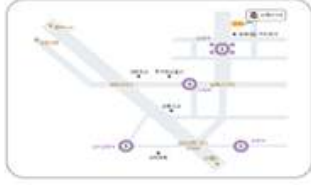
- ④ 다음 청첩장 속지의 □에는 ‘여기’와 ‘저희’ 가운데 어떤 것이 적당한지 생각해 보고 봉투의 □에는 누구의 이름을 넣는 것이 좋을지 말해 보자.



□ 두 사람이 사랑으로 만나
한 가정을 이루려 합니다.
아끼고 돌봐 주신 여러 어르신과
친지를 모시고 혼인의 서약을
맺고자 하오니 축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상무, 송희연의	장남	상권
박형수, 정영미의	차녀	기선

일시 : ○○○○년 ○월 ○일 오후 ○시
장소 : 국립국어원 1층 대강당



- 지하철
5호선 평화역(아차라역에서 내린 후 2번 출구로 나옴)
- 버스
김포교동 중정에서 한 정거장 전 정류소
(반화3동 사무소 앞에서 내림)
간선(파랑) : 642, 651 / 자선(노랑) : 6629, 6712

보내는 사람
□ 배상

받는 사람

기원사상 귀하

※ 길잡이

속지의 경우 발송 주체가 혼주인데 신랑, 신부인지 확인해 ‘여기’와 ‘저희’ 가운데 선택하고 봉투의 경우 속지와 일치하여야 한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 ⑤ 다음의 단계에 따라 ‘집들이 초대글’을 작성해 보자.

- ① ‘집들이’에 알맞은 제목을 정해 보자.

제목:

② ‘집들이’의 내용을 작성해 보자.

내용:

③ ‘집들이’의 ‘일시’와 ‘장소’를 적어 ‘집들이 초대글’을 완성해 보자.

일시:

장소:

※ 길잡이

단계	길잡이
제목	- 단순 명료하게 “집들이에 초대합니다.”와 같은 문구도 좋고 “우리 집 생겼어요.”처럼 개성이 묻어나는 제목도 좋다.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들이의 취지가 잘 드러나도록 육하원칙에 맞게 작성하되 띄어쓰기, 맞춤법에 주의하도록 한다. - 중복되는 어휘가 나오는 경우 유의어로 대체하여 표현 효과를 높이도록 한다. - 높임 표현에 주의하여 문장을 작성하도록 한다. - 표현 효과를 높이기 위해 어순에 변화를 줄 수도 있다. - 지시어를 사용할 경우 맥락을 적절히 고려하도록 한다.
일시 및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월일을 마침표로 표기할 경우 ‘일’ 다음에도 마침표를 찍도록 한다. - ‘일시’와 ‘장소’ 다음 쌍점은 앞말에 붙이고 뒷말은 띄어 적도록 한다.

6. 감사글

삼가 인사드립니다.

일전 저희 집 혼사에 바쁘신 중에도 각별한 축하와 후의를 베풀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마땅히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는 것이 도리이오니 글월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니 너그럽게 받아 주셨으면 합니다.

귀댁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훈주 ○○○, ○○○ 올림

우리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반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기도 한다. 특히 예상치 못한 도움을 받았을 때나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을 때는 고마운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할 때가 있다. 이러한 마음을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글로 표현할 때 쓰는 글이 바로 감사글이다.

<감사글의 성격>

사회적인 글

개인적인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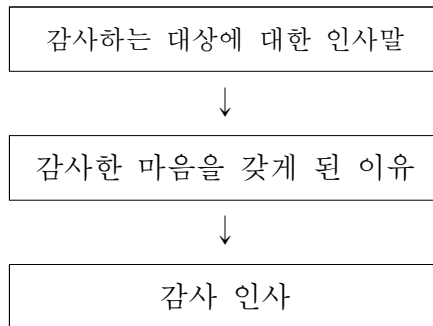
가. 감사글의 개념과 기능

감사글이란 어떤 일에 상대방이 베푼 격려나 축하, 협조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생겨 이를 서신 형태로 써서 전하는 글을 말한다. 특히 행사나 모임에 참가해 준 사람들에게 보내는 감사글은 직접 일일이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을 대신하는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감사글은 대체로 상대방이 베푼 호의에 대한 답례글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의례문으로서의 성격도 매우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지속적인 인간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심을 담은 표현이 되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 감사글의 특징

감사글은 특별히 정해진 형식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감사의 뜻이 잘 드러나도록 자기 생각을 진솔하게 표현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정중하고 격식 있는 문장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추도록 내용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다. 감사글과 문법

① 표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데만 신경을 쓰다 보면 자칫 띄어쓰기나 맞춤법에 소홀해지는 경우가 있다. 이는 전하려는 내용의 진정성을 해치므로 띄어쓰기나 맞춤법에 특히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예) “일전 저희 집 **혼사시에** 바쁘신 중에도 각별하신 축하와 후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결혼 축하에 대한 감사글 중에서)

‘혼사시에’의 ‘시’, ‘주신데’의 ‘데’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예) “직접 **찾아 뵙고** 인사말씀 드리는 것이 도리이오니 우선 서신으로 인사를 **드리게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하오며 내내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번창하시기를 축원합니다.”(결혼 축하에 대한 감사글 중에서)

‘찾아뵙다’는 한 단어이므로 붙여 적어야 하고 ‘드리게되어’는 두 단어이므로 띄어 적어야 한다.

② 어휘

감사글에서는 특정한 어휘를 사용하는 일이 적지 않으므로 어휘 사용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예) ‘혼사’, ‘축하’, ‘축복’, ‘건승’ 등은 특히 결혼 참석에 대한 감사글에서 전형적으로 자주 쓰이는 한자어에 해당한다.

(예) “이번 저희 부친 **상사** 시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정중하신 조의와 후의를 베풀어 주신 덕분에 장례를 무사히 마치게 도와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조문에 대한 감사글 중에서)

‘상사’, ‘공사다망’, ‘조의’, ‘후의’ 등은 특히 조문에 대한 감사글에서 전형적으로 자주 쓰이는 한자어에 해당한다.

③ 문장

감사의 글은 상대에 대해 자신을 낮추어 그 마음을 전달하는 글이므로 이러한 의미가 담긴 어미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예) “마땅히 **찾아뵙고** 인사 드리는 것이 도리인 줄 아오나 황망 중이라 먼저 서면으로 인사드리게 됨을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략) 항상 **건승하시옵고** 만복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조문에 대한 감사글 중에서)

(예)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 건승하시길 **바라오며**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결혼식 참석에 대한 감사글 중에서)

‘찾아뵙고’, ‘건승하시옵고’에서 사용된 어미 ‘-옵-’이나 ‘아오나’, ‘바라오며’에서 사용된 어미 ‘-오-’는 예스러운 표현으로서 특히 말하는 사람의 공손함을 더해 주는 어미에 해당한다.

감사의 글에서는 감사의 마음을 보다 극대화하기 위해 성분이 도치되어 나타나는 일이 많다.

(예)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아기 돌잔치에 참석하여 축복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돌잔치 참석에 대한 감사의 글 중에서)

‘바쁘신 와중에도’는 ‘저희 아기 돌잔치에’ 다음에서 도치된 것으로 방문한 사람의 처지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예) “저희들 아프게 낳아 주시고 당신 몸 병드시는 줄 모르고 헌신으로 키워주셨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고희연의 부모에 대한 감사의 글 중에서)

‘저희들 ~ 키워주셨습니다.’는 ‘감사합니다’의 내용이 된다는 점에서 ‘어머니’와 ‘감사합니다’ 사이에 위치하는 것이나 그 고마움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도치 표현이 나타나고 있다.

감사글에서는 간접 인용이나 직접 인용을 통해 감사하는 마음을 극대화하는 표현 효과를 거두기도 한다.

(예) “과거의 은혜를 회상함으로 감사는 태어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가르침에 더 없는 감사를 드립니다.”(스승의 날 감사글 중에서)

‘과거의 은혜를 회상함으로 감사는 태어난다.’는 명언을 인용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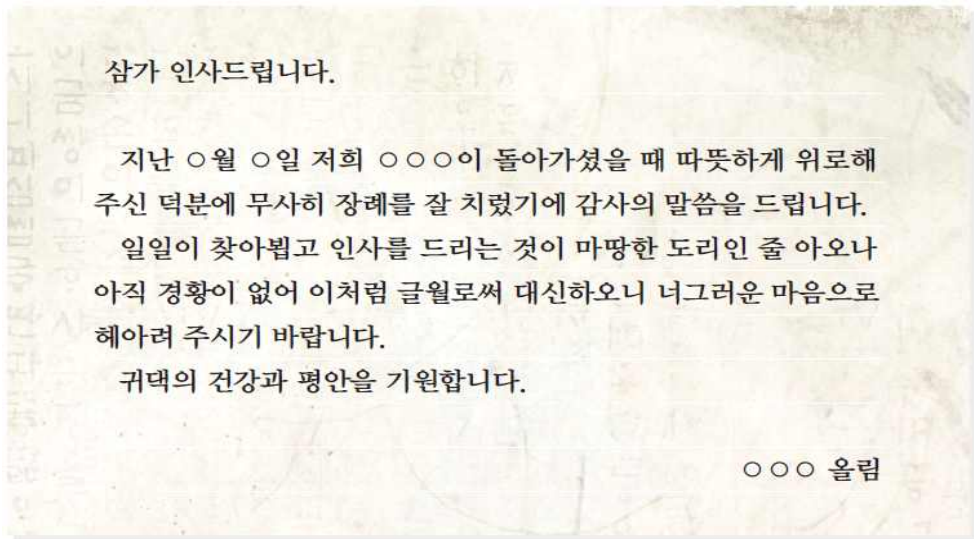
④ 답화

감사글에서는 접속 어미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감사글의 통일성과 응집성을 높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예) “마땅히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것이 도리이오니 우선 글월로 감사드립니다. 너그럽게 받아 주셨으면 합니다. 부부의 연을 맺어 서로 배려하며, 격려하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행복하고 아름답게 사는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결혼식 참석에 대한 감사의 글 중에서)

‘찾아뵙고’, ‘격려하고’, ‘행복하고’, ‘격려하고’에서 사용된 어미 ‘-고’와 ‘배려하며’에서 사용된 어미 ‘-며’는 ‘도리이오니’의 ‘-나’와 동일하게 앞뒤의 내용을 대등하게 연결하고 있지만 앞의 것들은 그 내용이 서로 동일한 취지로 전개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뒤의 것은 그 내용이 서로 반대의 취지로 연결되고 있음을 나타내 전체적으로 글이 통일성과 응집성을 갖추는 역할을 하고 있다.

라. 예시문 분석



<예시문 분석>

감사글의 전형적인 틀인 ‘감사하는 대상에 대한 인사말’ -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된 이유’ - ‘감사 인사’의 구성을 취하되 조문(弔問)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간결하면서도 예의에 맞게 표현하고 있다.

① 어휘

‘때’와 ‘줄’은 명사이고 ‘헤아려 주시기’는 두 단어이므로 띄어 쓰고, ‘찾아뵙다’는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쓰고 있다.

② 문장

‘대신하오니’에서 어미 ‘-오-’를 사용하여 공손한 마음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다.

③ 담화

‘찾아뵙고’의 어미 ‘-고’, ‘아오나’의 어미 ‘-나’를 적절히 사용하여 글의 통일성과 응집성을 높이고 있다.

【학습 활동】

① 다음 감사글에서 띄어쓰기가 잘못된 것을 찾아 바르게 고쳐 보자.

가.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 드림이 도리 이오나 지면으로 대신함을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지난 해 보내주신 관심과 은혜에 감사 드립니다.

※ 길잡이

사전을 참조하여 한 단어는 붙여 쓰고 두 단어는 띄어 쓰며 조사와 접미사는 앞말에 붙여 적도록 한다.

② 다음은 감사글에서 흔히 쓰이는 어휘들의 의미를 조사한 것이다. 이들 단어들의 의미를 적절히 짝지어 보자.

공사다망 •	• 마음이 몹시 급하여 당황하고 허둥지둥하는 면이 있음
후의 •	• 공적 · 사적인 일 따위로 매우 바쁨
황망 •	• 남에게 두터이 인정을 베푸는 마음

※ 길잡이

사전을 이용해 의미를 찾아 바르게 연결해 본다.

③ 다음 감사글에서 잘못 사용된 높임 표현을 찾아 바르게 고쳐 보자.

아뢰올 말씀은 지난번 결혼식 때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하시고 참석해 주시어 무사히 혼례를 마치게 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길잡이

과도한 높임 표현이 쓰인 부분을 찾아 이를 바르게 고쳐 본다.

4] 통일성과 응집성의 측면에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 보자.

언제나 선생님을 존중하고 감사하고 있는 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 길잡이

적절한 접속 표현은 글의 통일성과 응집성을 높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의미가 모호해질 수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5] 다음 단계에 따라 ‘어버이날 감사글’을 작성해 보자.

① ‘부모님’에 대한 인사말을 작성해 보자.

부모님에 대한 인사말:

②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된 이유’에 대해 내용을 작성해 보자.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된 이유:

③ ‘감사 인사’의 내용을 담아 마무리하여 보자.

감사 인사:

※ 길잡이

단계	길잡이
인사말	- ‘사랑하는 부모님께!’와 같이 단순히 표시하는 것도 좋지만 감사하는 마음이 두드러지도록 ‘봄날의 햇살이 따사로운 어버이날을 맞아’와 같이 계절 인사를 덧붙이는 것도 좋다.
감사하는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하는 마음이 잘 드러나도록 하되 띄어쓰기, 맞춤법에 주의하도록 한다. - 높임 표현에 주의하여 문장을 작성하도록 한다. - 표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어순에 변화를 줄 수도 있다. - 접속 표현을 적절히 사용하여 글의 통일성과 응집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 어버이날은 연례적이므로 특히 작년 한 해 동안 있었던 일화 가운데 한 가지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는 것도 좋다.
감사 인사	- ‘부디 만수무강 하십시오.’와 같이 ‘건강’과 관련된 내용을 담는 것이 일반적이되 개성이 묻어나는 표현을 넣어 글이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7. 수필

짜장면은 좀 침침한 작은 중국집에서 먹어야 맛이 난다.

그 방은 펍 좁아야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깨끗지 못해야 하고, 칸막이에
는 콩알만한 구멍이 몇 개 뚫려 있어야 어울린다. 식탁은 널판으로 아무렇
게나 만든 얇은뱅이가 좋고, 그 위엔 담뱃불에 탄 자국들이 검게 또렷하게
무수히 산재해 있어야 정이 간다. 방석도 때에 절어 윤이 날 듯하고 손으
로 잡으면 단번에 째 하고 달라붙는 것이어야 앉기에 마음이 편하다.

고춧가루 그릇은 약간의 먼지가 끼여 있는 게 좋고 금이 갔거나 다소 깨
어져 있으면 더욱 운치가 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고춧가루는 누렇게
굽고 익센 것이어야 한다. 식초병이나 간장병도 다소 때가 끼여 있어야 가
벼운 마음으로 손을 댈 수 있다. 짜장면 그릇으로 가장 흔한 것은 희고 납
작하게 생긴 것인데, 할 수 있으면 거무스레하고 이가 한 군데쯤 빠진 게
좋다. (하락)

—정진권, <짜장면>—

위 글은 누구나 한두 가지의 추억이 서려 있을 짜장면을 소재로 한 수
필이다. 수필은 글쓴이의 개인적 경험과 생각을 통해 주체의식을 표현한
다. 수필은 시나 소설과 달리, 전문작가가 아닌 일반인도 비교적 쉽게 쓸
수 있는 글이다. 특히 경수필은 생활 속의 소재나 경험을 중심으로 한 생
활 수필로서 누구나 쉽게 따라하고 쓰는 것이 가능하다.

<수필의 성격>

사회적인 글

개인적인 글

가. 수필의 개념과 기능

수필이란 특별히 정해진 형식이 없이 인생이나 자연 또는 일상생활에서의 느낌이나 체험을 자유롭게 표현한 글을 말한다. 이 중에서도 경수필은 일상에서 느낀 다양한 체험이나 감상, 깨달은 점 등을 자유롭게 쓴 글이다.

수필은 일상에서 느낀 깨달음이나 정서를 순화하는 기능이 있고, 무심코 넘길 수 있는 소중한 생각을 정리하고 보존할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자신의 누리집이나 블로그에 수필과 같은 글을 써서 많은 이에게 공감을 얻기도 한다. 수필쓰기는 달라진 언어 환경에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사회적 참여 행위가 되고 있다.

나. 수필의 특징

수필은 흔히 글쓴이가 독자에게 직접 말하는 형식으로 표현되므로 작가의 개성이 잘 드러나고, 글감으로 선택한 소재나 주제를 중심으로 글의 내용이 전개된다.

수필은 시나 소설과 달리, 일정한 형식이 없이 글쓴이가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이나 주제를 중심으로 이를 진술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일이 중시된다. 이에 따라 수필의 구성은 글쓴이가 일상생활에서 느낀 것이나 깨달은 개인적 체험 가운데 글로 표현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여 그것을 독자에게 잘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을 생각하면 된다.

예컨대 작가가 겪은 흥미 있는 사건의 과정을 소개하고 싶다면, ‘발단-전개-위기-절정-결말’과 같은 소설적 방식을 취할 수도 있고, 잡지에 실린 짧은 경험담과 같이 ‘체험-느낀 점’의 단순한 방식을 취할 수도 있으며 자신의 주장을 중심으로 이를 논리적 순서에 따라 풀어 나갈 수도 있다.

수필은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글이지만, 수필 또한 어디까지나 글쓰

기의 일환이라는 점을 명심한다. 따라서 주제의 통일성, 문단 구분의 명확성과 논리성, 표현의 정확성과 적절성이 요구된다.

다. 수필과 문법

① 음운/표기

수필은 문예적인 글로, 글의 대상이 되는 사물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유성음과 같은 울림소리를 사용하거나, 글을 운율감 있게 표현하기 위하여 특정 음운이나 음절을 반복하여 감각적인 표현을 할 수 있다.

(예) 뎡그렁! 가끔 처마 끝에서 풍경이 울린다. 가까우면서도 먼 소리는 풍경 소리다. 소리는 그것만이 아니다. 산에서 마당에서 방에서 벌레 소리들이 비처럼 온다. 벌레 소리! 우는 소리일까? 우는 것으로 너무 맑은 소리!(이태준 <고독>)

위 예문은 울림소리가 사용된 어휘를 사용하여 묘사하고자 하는 공간에 대한 인상을 환기하고 ‘소리’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반복하여 운율감 있게 표현한 것이다.

수필은 글쓴이의 재치나 기지가 잘 드러나는 글이다. 이를 위하여 특정 음운을 교체, 첨가하거나 언어유희를 통해 재미난 표현을 구사하면 독자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

(예) 바다, 바라보다. 겨울바다를 앞에 두어본 적이 있는가. 폭풍 가운데도 아닌데, 심청색의 퍼런 물빛은 넘실거리며 나를 향해 몸피를 부풀려 시야 한가득 솟구친다.(서숙, <그래서 너를 본다>)

위 예문은 바다에 ‘라’와 ‘보’라는 두 음절을 첨가하여 대상에 작가만의 독특한 의미를 부여하고 개성적인 표현을 구사한 것이다.

② 어휘

수필에서는 대상에 대한 감각이나 인상을 포착하기 위하여 유의어를 사용하여 표현을 다채롭게 하고 대상의 의미를 복합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을 할 수 있다.

(예) 무어라 해도 겨울이 겨울다운 서정시(敘情詩)는 백설(白雪), 이것이 정숙히 읊조리는 것이니, 겨울이 익어 가면 최초의 강설(强雪)에 의

해서 멀고 먼 동경의 나라는 비로소 도회에까지 고요히 고요히 들어오는 것인데, 눈이 와서 도회가 잠시 문명의 구각(舊殼)을 탈(脫)하고 현란한 백의(白衣)를 갈아입을 때, 눈과 같이 온, 이 넓고 힘세고 성스러운 나라 때문에 도회는 문득 얼마나 조용해지고 자그만해지고 정숙해지는지 알 수 없지만(김진섭, <백설부>)

위의 예문은 ‘백설’, ‘강설’, ‘눈’ 등의 유의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대상의 속성을 다채롭게 표현하고, 눈에 대한 감상과 감동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수필은 교훈성을 지닌 경우가 많은데, 이때 격언이나 명언, 속담 등을 인용하여 문체를 다채롭게 하고, 작가의 생각이나 글의 주제를 명시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 아래 예문은 명언을 인용하여 글을 자연스럽게 맺고, 주제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

(예) 칼라일은 ‘진실된 유머는 머리로부터 나온다고보다는 마음에서 나온다.’고 하였다. 우리는 이 말을 깊이 음미해 보고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유머로 상대방을 즐겁게 해주고 이웃과 유쾌하게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하겠다.(박재영, <유머가 있는 인생>)

수필은 글쓰기와 관련된 신변잡기적인 소재나 내용이 주를 이루므로, 유행어나 신어가 사용되는 수가 많다. 이러한 어휘를 수필에서 사용하면, 독자에게 친근감을 주거나, 어렵고 무거운 주제에 대해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한다.

(예) 뽕짝이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도 어쩌면 이런 솔직성과 단순성 때문이 아닌가 싶다. 애써 외면하고 부정해 보지만 결국은 돌아가게 되는 본질 같은 것이라고나 할까. 살아 보니 인생은 영락없는 유행가 가사더라는 말도 있듯이 제아무리 심오한 철학도 기실 그 두터운 겹질을 벗고 나면 한낱 뽕짝의 가사에 다름없는 것 아닐까.
(이혜연, <뽕짝>)

위 예문은 ‘뽕짝’이라는 어휘를 활용하여 인생에 대한 개성적인 시각을 효과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③ 문장

수필은 작가의 목소리를 강조해 표현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문장 성분을 생략하거나 그 순서를 바꾸기도 한다.

(예) 우리는 만나야 한다. 책 속에서 훌륭한 스승을 만나야 하고, 성실한 진리인을 만나야 하고, 위대한 혁명가를 만나야 하고, 진지한 학자를 만나야 한다.(안병욱, <끝없는 만남>)

위 예문은 필수 성분인 목적어가 생략된 문장을 사용함으로써 독자에게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글쓴이의 주장이 부각되는 효과를 거둔 것이다.

수필은 일반적인 산문과 다르게 문장의 예술성을 고려하므로, 글의 내용에 여운을 주고, 보다 강조된 인상을 주기 위하여 한 단어나 명사형으로 문장의 끝을 맺는 경우가 있다. 아래의 예문은 종결어미를 생략하고 명사로 맺어지는 문장을 반복함으로써 여운이 있는 표현을 구사한 것이다.

(예) 사랑! 그 지극한 사랑! 그 끈질긴 사랑! 그 눈물겨운 사랑! (이범선, <도마뱀의 사랑>)

수필에서 다루고자 하는 소재나 주제의 성격에 따라 문장의 길이를 조절하여 표현하면 대상을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즉 긴 호흡의 문장은 대상에 대한 복잡한 감상이나 생각을 표현하기에 용이하고, 대상에 대한 인상이나 느낌을 주로 표현할 때는 짧은 문장을 중심으로 표현한다.

(예) 나는 매화를 볼 때마다 항상 말할 수 없이 놀라운 감정에 붙들리고야 마는 것을 어찌할 수가 없으니, 왜냐하면, 첫째로 그것은 추위를 타지 않고 구태여 한풍(寒風)을 택해서 피기 때문이요, 둘째로 그것은 그림으로써 초지상적(超地上的)인, 비현세적인 인상을 내 마음 속에 던져 주기 때문이다. (김진섭, <매화찬>)

(예) 길은 부름이다. 길이란 언어는 부름을 뜻한다. 언덕 너머 마을이 산길로 나를 부른다. 가로수로 그늘진 신작로가 도시로 나를 부른다. 기적 소리가 저녁 하늘을 흔드는 나루터에서, 혹은 시골 역에서 나는 이국의 부름을 듣는다. 그래서 길의 부름은 희망이기도 하며, 기다림이기도 하다.(박이문, <길>)

위의 예문들은 문장의 길이에 따라, 대상에 대한 글쓴이의 태도가 다르다. 매화에서 출발하여 전자는 인생에 대한 태도라는 비교적 무겁고 장중한 주제를 소화하기 위하여 긴 호흡의 문장을 사용한 것이고, 후자는 길에 대한 다양한 인상, 느낌 등 가벼운 주제는 짧은 호흡의 문장이 잘 어울린다.

④ 담화

수필도 한 편의 글이므로, 통일성을 기본으로 한다. 글의 통일성은 문장과 문장의 긴밀한 연결, 핵심 어휘의 반복 등으로 확보된다.

(예) 인간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소유사(所有史)처럼 느껴진다. 보다 많은 자기네 몫을 위해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것 같다. 소유욕에는 한정이 없고 휴일도 없다. 그저 하나라도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일념으로 출렁거리고 있는 것이다. 물건만으로는 성에 차질 않아 사람까지 소유하려 든다. (법정, <무소유>)

위 예문은 주제를 반영하고 있는 핵심 어휘(소유)를 반복하여 문단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있다.

수필에서는 글의 극적 효과를 노리는 기법을 사용하는 수가 있다. 즉 과거의 일화나 제시하거나 특정 장면을 그림을 그리듯이 묘사하는 경우에는 대상에 대한 시선을 따라가는 방식으로 내용을 전개할 수 있다. 이때 각 문장이나 표현은 시선의 움직임에 따라 배열된다. 아래의 예문은 작가의 경험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기 위하여 장면에 대한 시선을 따라가며 내용을 전개한 것이다.

(예) 고춧가루 그릇은 약간의 먼지가 끼여 있는 게 좋고 금이 갔거나 다소 깨어져 있으면 더욱 운치가 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고춧가루는 누렇고 굵고 역센 것이어야 한다. 식초병이나 간장병도 다소 때가 끼여 있어야 가벼운 마음으로 손을 댈 수 있다. 짜장면 그릇으로 가장 흔한 것은 희고 납작하게 생긴 것인데, 할 수 있으면 거무스레하고 이가 한 군데쯤 빠진 게 좋다.(정진권, <짜장면>)

라. 예시문 분석

망치를 든 남자

윤온강

사람이 살아가면서 수행하는 많은 역할 중에는 자기에게 맞지 않는 것도 꽤 있을 것ियो,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는 역인데도 하는 수 없이 맡아서 하는 사람 또한 적지 않을 것이다.

직업도 그런 것 중의 하나가 아닐까? 나는 자기 직업에 정말 만족해하는 사람을 별로 만나 보지를 못하였다. 다른 사람은 제쳐두고 나 자신도 내 직업이 적성이 맞는 것인지 자문해 본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교단에 선 지 몇 달도 채 안 되어 이 직업이 내게 맞지 않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생긴 것은 전혀 엉뚱한 데서였다.

지금은 세월이 좋아서 성적일람표를 컴퓨터가 만들어 주고 있지만 그때는 그것이 교사에게 가장 큰 일거리 중의 하나였다. 그런데 이 성적일람표를 나는 단번에 만들 수 없었다. 이름을 쓰고 과목별 성적을 적어 나가는데 번호를 다섯 명 빼놓고 시작한다거나, 거의 완성됐다 싶으면 이번엔 잉크를 엷질러서 버려 놓기 일쑤였다. 이렇게 수없이 실수를 되풀이한 뒤에야 한 장을 간신히 만들 수 있었기에 드디어 나는 교직이 나에게 부적합한 직업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품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던 내가 세월의 흐름에 따라 차츰 적응해 간 것을 보면 사람에게는 정말 맞지 않는 직업은 없을지도 모른다고 감탄해 마지 않게 된다.

가끔 나는 지금의 직업이 아닌 다른 직업을 가졌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해 본다. 누구에게든 그런 계기는 많은 적든 있게 마련이다. 나에게도 그런 기회가 몇 번 있었으나 오래도록 잊지 못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은 대학 3학년 때였다.

그 당시 연극에 꽤 심취해 있던 나는 큰 용기를 내어 연극반에 가입했다. 그때 그 연극반은 윌리엄 사로얀이라는 미국 작가의 희곡 <혈거부족(穴居部族)>을 무대에 올릴 준비를 하는 중이었다. 먼저 '책 읽기(대본 읽기)'가 시작되었다. 얼마 후면 험할 낡은 건물에서 거지들끼리 왕이니 왕비니 서로 부르면서 사는, 없는 자들의 생활을 서정적으로 그린 작품이었다.

그 연극의 중심인물은 두말 할 것도 없이 왕이었다. 비록 거지이긴 했으나 왕다운 말투와 몸짓, 그리고 그 대사가 참 멋이 있었다. 희화적(戲畵的)인 내

용 같지만 오히려 쩡한 감동을 주는, 페이스스가 담긴 작품이었다. 나는 신참인 주제에 감히 이 연극의 히어로인 왕 역을 맡으리라 마음먹고 열심히 연습에 참가했다. 내가 왕 역의 대사를 읽을 때가 많았고 나는 그럴 때마다 그럴 듯하게 읽었다. 내 판엔 내가 제일 잘 하는 것 같았다. 어리석게도 나는 내가 주역을, 아니 주역이 아니라도 좀 비중이 큰 역을 맡으리라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보름 후 배역을 발표하는데 나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폐허를 철거하는 공사장 인부 중의 한 사람으로, 그것도 대사 한 마디 없이 망치를 들고 지나가는 남자 역이 내게 돌아온 배역이었던 것이다. 나는 기가 막혔다. 그걸 연극에 출연했다고 구경 올 친지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내 실력을 그렇게 몰라줄 수 없었다. 그때의 내 낙담, 실망, 연출자에 대한 원망, 배신감……. 이런 것이 얼마나 컸었는지는 지금 잘 떠오르지 않는다. 다만 지금도 분명히 기억나는 것은 이튿날 당장 그 연극 연습에서 발을 끊은 사실이다(내 평생 이렇게 과단성이 있는 행동은 전무후무했던 것 같다).

그 후 막을 올린 그 연극을 보러 갔더니 나 대신 다른 사람이 망치를 들고 무대를 지나가고 있었다. 성공적인(?) 장면이었다. 나는 그때 웬일인지 가슴 한 구석으로 아린 통증 같은 것이 지나가는 걸 느꼈다. 내가 저 망치를 들고 지나갔어야 하는 건데…….

왜 그런 생각이 그때 들었는지 나는 그 이유를 오랜 후에야 깨닫게 되었다. 나는 그 일로 인하여 그토록 좋아했던 연극과 영영 거리가 멀어졌던 것이다. 그때 그 연극에 출연했던 인물들과 거기 관계했던 스태프들은 그 후 모두 우리나라 연극계와 방송계의 중진으로 성장했다. 내가 망치를 들고 지나갔으면 나도 그들 중의 하나가 되었으리라.

그렇다. 나는 그때 망치를 들고 지나갔어야 했다. 그랬으면 내 인생은 좀 더 풍요로워졌을지도 모른다. 그랬으면 연극을 지금처럼 배신한 연인인 듯 씹쓰레하게 그리워하진 않았으리라.

오랜 후 내가 뒤늦게 깨달은 것은 모든 사람이 그런 단역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이다. 대극작가 셰익스피어는 극장 손님들의 마차를 지키는 사람이었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겨울철에 자기 상전의 신발을 품속에 넣어 녹여 내놓는 충직한 하인이었다.

그러니 인생은 도박이 아니다. 단역부터 출발하여 차근차근 계단을 밟아 올라가는 것이 삶의 올바른 방식이요, 생의 보람은 그런 데서 찾아야 하는 것이다. 요즈음 젊은이들이 일확천금이나 벼락출세를 꿈꾸는 것을 보고 개탄하다

가도 문득 내 젊은 시절의 어리석음이 떠올라서 낮이 붉어진다.

그래서 나는 가끔 후배들에게 이야기한다. 망치를 들 일이 있으면 주저 없이 들어야 한다고. 지나고 보면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졌던 유일한 기회였을지도 모르는 일이니까. 그리고 하찮은 것일는지 몰라도 그 망치야말로 인생의 질곡을 깨뜨리고 새로운 운명을 개척하는 도구가 될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예시문 분석>

위 글은 글쓴이의 일상생활이나 신변잡기를 소재로 하여 깨달음이나 교훈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수필의 틀을 따르고 있다. 수필은 글쓴이의 개성이 잘 드러나는 글인데, 이 글 또한 글쓴이만의 독특한 체험을 매개로 하여 인생에 대한 깨달음이 드러나고 있다.

① 음운/표기

- 큰따옴표(“ ”)를 통해 실제 대화를 인용하여 현장감 있게 표현하였다.
- 괄호 안에 물음표(?)를 넣은 표현을 통해 해학적이고 엉뚱한 의미를 표현하였다.
- 글쓴이의 목소리를 나타내는 문장에서 말줄임표(...)를 사용함으로써 글쓴이의 감정이나 여운이 있게 표현하였다.
- 쉼표(,)를 통해 수식 구조를 분명하게 하여 문장의 의미를 정확하게 표현하였다.

② 어휘

- ‘세월이 좋다’, ‘발을 끊다’, ‘낮이 붉어지다’, ‘아연실색’, ‘일확천금’ 등의 관용 표현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내용을 적절하게 표현하였다.
- ‘망치’라는 어휘의 지시적, 함축적 의미를 문맥에 맞게 사용하여, 글쓴이의 깨달음이나 교훈을 효과적으로 표현하였다.

③ 문장

- 시제가 없는 형태의 문장을 표현하여 보편적인 사실이나 글쓴이의 깨달음 등을 표현하였다.
- 과거의 사실을 회상하고 있는 현재 글쓴이의 상태는 현재 시제로, 과거의 자신이 느낀 감정이나 생각은 과거 시제로 바꾸어가며 표현

함으로써 체험과 깨달음을 효과적으로 표현하였다.

④ 담화

- ‘체험(사실)–감상’의 글 구조를 통해 글쓴이가 과거의 경험을 통해 느끼거나 깨달은 점을 효과적으로 표현하였다.
- 문단과 문단을 연결할 때, ‘그러니’, ‘그 후’, ‘그래서’ 등의 접속 표현을 통해 글의 전체적인 응집성을 높였다.
- ‘망치’라는 어휘를 각 문단에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글의 통일성과 응집성을 높였다.

【학습 활동】

- ① 다음은 친구와의 대화를 인용하여 수필을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의 효과에 대해 생각해 보자.

“자네, ‘피판’이란 것 아나?”
 “피판이라니, 그게 뭔데……?”
 “중국집에서 배갈 안주로 내는 오리알[鴨卵] 말이야. ‘피판(皮蛋)’이라고 쓰지.”
 “시퍼런 달걀 같은 거 말이지, 그게 오리알이던가?”
 “오리알이지. 비록 오리알일망정, 나는 그 피판을 대할 때마다, 모자를 벗고 절이라도 하고 싶어지거든…….”
 “그건 또 왜?”
 “내가 존경하는 요리니까…….” (하락)

—김소운, <피판문답>—

※ 길잡이

두 사람의 대화를 읽다 보면, 독자가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될 것인지 생각해 본다.

- ② 수필은 다양한 유의어나 관용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글을 읽는 재미를 높이고 문체를 다채롭게 한다. 글의 문맥을 고려하여 빈 칸에 적절한 말을 골라 써 보자.

<보기>

냉소, 박장대소, 선웃음, 못웃음

웃음에는 여러 가지 색채가 있다. 빙그레 웃는 파안대소(破顔大笑)가 있는가 하면, 깔깔대며 웃는 ㉠ 이/가 있다. 깨가 쏟아지는 간간대소(衍衍大笑)가 있는가 하면, 허리가 부러질 정도의 ㉡ 도 있다. ‘아하하’ 소리를 치는 양천대소(仰天大笑)가 있다. 이러한 종류의 웃음들은 우리 인생에 해로울 것이 조금도 없다.

그러나 웃음이 언제나 우리를 복된 동산으로만 인도하는 것은 아니다. 남을 깔보고 비웃는 ㉢ 도 있고, 허풍을 떨고 능청을 부리는 너털웃음도 있다. 대상을 유혹하기 위하여 눈초리에 간사가 흐르는 눈웃음이 있는가 하면, 상대방의 호기심을 사기 위하여 지어서 웃는 ㉣ (이)라는 것도 있다.

—이희승, <웃음의 철학>—

㉠:

㉡:

㉢:

㉣:

※ 길잡이

<보기>에 있는 어휘들을 빈 칸에 넣어보고 문맥에 맞는지 생각해 본다.

- ③ 다음은 어느 수필의 처음-중간-끝을 요약하여 옮긴 것이다. 밑줄 친 끝 부분의 문장 표현이 주는 효과에 대해 생각해 보고, 동일한 명사형의 형식으로 결말에 어울리는 다른 문장을 지어 보자.

나의 어릴 적도 이와 마찬가지로였다. 꽤 클 때까지도 나는 할머니와 어머니의 입김에 의지했던 것 같다. 시골에서 자라서인지 어릴 적에 넘어지거나 다치는 일도 많았지만 그 혼한 머큐로크롬 한번 못 발라 봤다. 넘어져서 무릎이 까지든, 싸워서 얼굴에 손톱자국이 나든 할머니와 어머니의 처방은 마음으로 부터 안쓰러워하면서 그저 입김을 "호오, 호오." 불어 주시는 게 고작이었다.

(중략)

어찌 상처나 뜨거운 먹을 것에만 그분들의 입김이 서렸을까? 그분들의 입김은 온 집안에 서렸었다. 학교 갔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 간혹 어머니가 집에 안 계시면 나는 그것을 대문간에 들어서자마자 알아맞힐 수가 있었다.

(중략)

입김이란 곧 살아있는 표시인 숨결이고 사랑이 아닐까? 싸우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심심해하지 않는 것이 평화가 아니라 그런 일이 입김 속에서, 즉 사랑 속에서 될 수 있는 대로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이 평화가 아닐는지. 세상이 아무리 달라져도 사랑이 없는 곳에 평화가 있다는 것은 억지밖에 안 되리라. 숨결이 없는 곳에 생명이 있다면 억지인 것처럼.

-박완서, <사랑의 입김>-

① 효과:

.....

.....

② 인상적인 결말 지어보기:

.....

.....

.....

.....

※ 길잡이

수필의 끝 부분이 하는 역할이 무엇일지 생각해 본다.

4 다음 작문 상황을 고려하여 일련의 활동을 해 보자.

<상황>
과거의 경험을 회상하고, 그 의미를 되새겨 보는 수필을 쓰는 상황

① 글감으로 삼을 과거의 경험을 메모해 보고, 그 의미를 간단히 정리해 보자.

과거의 경험 정리	인생에서의 의미

※ 길잡이
자신이 직접 체험한 경험을 중심으로 사건의 개요를 한두 문장으로 정리해 보고, 그것의 교훈을 도출해 본다.

② 언어유희나 음운의 첨가, 교체를 활용하여 글의 제목을 지어 보자.

.....

※ 길잡이
음운이나 음절을 바꾸어 보거나 독특하고 개성적인 표현으로 제목을 지어 본다.

③ 문단 단위로 수필의 개요를 짜 보자.

구성	문단	들어갈 내용
도입	문단①	
과거의 경험	문단②	
	문단③	
	문단④	
인생의 의미	문단⑤	
결말	문단⑥	

※ 길잡이

도입에는 글을 쓰게 된 계기, 과거의 경험과 관련된 최근 상황 등을 쓴다. 과거의 경험과 인생의 의미는 문단의 분량을 생각해 내용을 나누어 배치해 본다. 결말에는 여운을 줄 수 있는 말이나 독자에게 당부하는 말, 나의 다짐 등을 쓴다.

④ 앞의 활동 내용을 토대로 한 편의 수필을 써 보자.

제목:

1

2

3

4

[illegible]

※ 길잡이

개요를 중심으로 내용에 살을 붙여 표현하되, 앞서 학습한 문법 내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표현의 효과를 높이도록 한다.

가. 기행문의 개념과 기능

기행문이란 글쓰이가 여행을 하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겪은 것을 적은 글을 말한다. 기행문은 매우 자유로운 형식의 글로서 일기체, 편지, 보고 형식 등 자신이 원하는 다양한 형식을 취하여 쓸 수 있다. 그러므로 기행문 쓰기는 형식에 대한 고민보다는 여행지에서 경험한 것과 그에 대한 자신의 감상을 충실하고 풍부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시된다.

기행문을 쓰게 되면, 여행을 통해서 얻은 값진 추억을 정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서를 풍부하게 하며 여행지를 경험하지 못한 이에게는 귀중한 정보와 색다른 감동을 줄 수 있다.

최근에는 각종 매체가 발달하면서 글쓰기의 기회와 욕구가 늘어나고 있다. 자신의 경험이나 감동을 글로 표현하고 이를 공유하고자 하는 욕구는 SNS 등의 발달로 말미암아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종이에 자신의 추억을 정리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누리집이나 블로그에 여행 등 소중한 체험에 대한 의견이나 감상을 글로 표현하는 일은 새로운 글쓰기의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다.

나. 기행문의 특징

기행문은 글쓰이가 여행 중에서 체험한 사실이나 느낀 것들 가운데, 글로 표현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여 그것을 적절히 표현하는 것이 중시된다.

기행문의 구성은 규범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 일기 형식으로 여행 기간 동안 매일 일기를 쓰는 형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여행 일정을 중심으로 쓸 수 있다. 다만, 일반적인 글이 ‘처음-중간-끝’으로 구성된다고 할 때, 기행문도 이를 따르는 경우가 보편적이다. 처음 부분에는 출발의 흥미, 여행 동기나 목적,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내용을 표현하고, 중간 부분에는 구체적인 일정에 따른 견문이나 감상을 쓴다. 이때 구체적인 사진이나 그림 자료 등을 넣어 여행지의 모습을 보다 구체적으로

담을 수도 있다. 끝 부분에는 여행을 하면서 얻은 다양한 생각이나 깨달음, 향수, 달라진 생각, 각오나 계획 등을 선택적으로 표현하면 된다.

기행문은 여행을 중심으로 한 글이므로, 여행한 국가나 지역의 풍속, 방언 등을 적절히 표현하면 글의 갈래적 특성을 살릴 수 있다.

기행문은 자신의 기억을 더듬어 가며 쓸 수도 있으나 한층 현장감 있고 풍부한 내용의 글을 쓰기 위해서는 메모를 활용하는 것도 좋다. 때때로 여행지의 메모는 그 자체로 훌륭한 글이 되기도 한다.

기행문은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글이지만, 이 또한 어디까지나 글쓰기의 일환이므로, 주제의 통일성, 문단 구분의 명확성과 논리성, 표현의 정확성과 적절성이 요구된다. 특히 본문에서는 여행지의 진행 과정을 고려하여 문단 구분을 하면, 내용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 기행문과 문법

① 어휘

기행문에서는 여행지의 고유한 특성을 드러내는 표현이 중시된다. 이때 방언이나 고유 명사를 빈번하게 사용하면 지역색이나 여행지의 특성 등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을 할 수 있다.

(예) 범일 2동의 경계가 되는 동천. 일제 강점기 조선방직의 경계이기도 했습니다. 부산에서만 쓰이는 '조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세대에 따라 이 단어에 대한 반응이 틀릴 것입니다.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들의 대화 속에서 '조방'은 지역을 뜻합니다. 흔히 '조방 앞'이라고 쓰이며, 서면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나오는 범일동 - 정확하게는 범일 2동을 말합니다. 단, 이 경우 행정구역의 경계와 일치하지는 않지요.(쿨부산 블로그, <맛으로 찾는 부산역사기행: 사라진 조방과 조방이 만든 맛 조방낙지>)

(예) 육지에 있는 베네치아 메스트레(Venezia Mestre)역을 출발한 기차가 속도를 줄이며 다리 위를 지날 즈음, 차창 밖에는 지금까지 보왔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진다. 남국의 밝은 햇살을 머금고 있는 아드리아(Adria) 해가 펼쳐지고, 멀리 바다와 하늘이 맞닿

은 곳에 숨어 있는 듯한 베네치아가 서서히 실루엣을 드러내기 시작한다.(정태남, <이탈리아 도시기행>)

② 문장

기행문은 여행지에서 느낀 글쓴이의 감상이나 고조된 감정을 표현하는 일이 많다. 글쓴이의 생각이나 감정을 강조하여 드러내기 위해 의문문 형식의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면 자신의 감상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

(예) 첫 유배지였던 '청령포'로 향하는 내내 마음이 아팠다. 한양에서 이 깊은 산 속까지 오는 동안 단종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중략) 청령포에 내리자 가슴이 서늘해졌다. 외부와 단절된 이곳에 내렸을 때 단종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김채린, <한국관광공사 기행문 수상작>)

위 예문에서는 어떤 내용을 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상이나 감동을 강조하여 드러내기 위하여 의문문의 형식으로 문장을 표현하고 있다.

기행문은 글쓴이의 체험을 드러내는 글인데, 이를 드러내는 방식에서 시제를 활용할 수 있다. 즉 글쓴이가 여행에서 실제로 체험을 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드러내기 위하여 과거 시제를 사용할 수도 있고, 실제로 글쓴이가 과거에 체험한 내용이지만, 그러한 체험을 독자가 마치 지금 같이 체험하는 것처럼 표현하고자 할 때는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 표현할 수도 있다. 기행문에서 글쓴이가 경험한 여정이나 체험을 사실적으로 전달하고자 할 때는 과거 시제로 표현하는 반면에 여행 당시의 체험이 주는 감동이나 느낌을 현장감 있게 표현하고자 할 때는 현재 시제로 표현할 수 있다.

(예) 아빠께서 시원하게 탁 트인 그곳이 바로 단종의 첫 번째 유배지였던 '청령포'라고 하셨다. 그곳으로 가려면 꼭 배를 타야한다고 하셨다. 그리 크지 않은 배를 타고 안으로 들어갔다. 배에 타서 물 속을 들여다보니 매우 깊어 그 끝이 보이지 않았다.(마정희, <한국관광공사 기행문 수상작>)

(예) 굴 문을 나서니 밖에는 선경(仙境)이 또한 나를 기다린다. 흰하게 터진 눈 아래 어여쁜 파란 산들이 띠엄띠엄 둘레둘레 머리를 조아리고 그 사이사이로 흰 물줄기가 구비구비 골 안개에 싸이었는데 하늘 끝 한 자락이, 꿈결 같은 푸른 빛을 드러낸 여름이 동해 바다라 한다. 오늘같이 흐리지 않은 날이면 동해 바다의 푸른 물결이 공

중에 달린 듯이 떠 보이고 그 위를 지나가는 큰 돛까지 나비의 날개처럼 곱실곱실 움직인다 한다.(현진건, <불국사기행>)

기행문은 여행지에서 얻은 현장의 견문이나 체험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여행지의 견문을 여실히 전달하기 위하여 직접 인용 표현, 간접 인용 표현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직접 인용 표현을 사용하면 현장감 있는 표현을 할 수 있으며, 간접 인용 표현을 하면 대상에 대한 정보를 화자의 관점에서 보다 편리하게 표현할 수 있다.

(예) 이야기를 듣는 중에 괜히 컵라면 이야기가 나와서 라면 생각이 났을 때쯤이었습니다. “너희들 한국에서 왔구나! 어릴 때에 아주 좋은 경험을 하는구나. 그래 다니기에는 힘들지 않니?”(<초등학생 유럽 배낭여행 프랑스편>, 글사랑)

(예) 이 마을에는 풍산 류씨의 종가 건물인 양진당, 임진왜란 때 명재상인 서애 류성룡의 종가 건물인 충효당 등을 비롯하여 여러 채의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한다.(박완서, <잃어버린 여행 가방>)

현장에서 직접 들은 말이나 설명 등을 현장감 있게 전달하고자 할 때는 큰따옴표(“ ”)를 사용하여 직용 인용 표현으로 나타내고, 견문이나 정보를 사실 그대로 전달하고자 할 때는 간접 인용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다.

기행문은 여행지를 묘사하는 일이 많은데, 이때 여행지의 정경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자 할 때는 어떤 대상을 빗대어 표현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은 ~이다’와 같은 형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은 ~같다, 듯하다, 처럼 보인다’ 등의 형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예) 산하는 본래가 인간이 연주할 수 없는 거대한 악기와도 같은 것인데, 겨울의 섬진강과 노령산맥은 수런거리던 모든 리듬을 땅 속 깊이 감추고 있었다. (김훈, <섬진강 기행>)

(예) 식재료의 엄마가 바다이고, 그 바다의 젓이 젓갈이라면, 젓갈이 들어간 김치는 아빠 대지가 만들어낸 푸성귀와 엄마 바다가 만들어낸 젓갈의 환상적인 걸작품이 아닐까 싶다.(손현철 외, <세 PD의 미식 기행, 목표: 역사와 추억이 깃든 우리 맛 체험기>)

위 두 예문에서는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 여행지의 풍광이나 산물을 멋스럽게 표현하고 있다.

③ 담화

기행문의 문단은 내용의 논리적 흐름을 중심으로 전개하되, 갈래의 특성상 시간과 공간의 변화가 내용 전개의 중심이 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문단을 구분하면 통일성과 응집성 있게 표현할 수 있다. 즉 공간이나 시간의 변화에 따라 문단을 구분하면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개할 수 있다.

(예) 루쉰 박물관의 진열관에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여기가 맞나 싶었다. 일층에는 루쉰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그림들을 진열해 놓고 경비원 한 명만 딸랑 지키고 있었으니 전혀 감이 안 올 수밖에. 경비원에게 그 다음엔 어디로 가야하는지를 물어 보았다. 알고 보니 그냥 옆에 있는 계단으로 올라가면 되는 것이었다. 계단 위로 올라가니 그제야 박물관처럼 생긴 장소가 나타났다. 2층으로 올라가자 보이는 이 문구는 루쉰이 했던 말이라고 한다. 루쉰의 개혁적인 모습이 그대로 보이는 문장인데 실제로 루쉰은 중국은 뿌리부터 썩어 있으며 오직 개혁만이 중국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다. 확실히 루쉰은 당시 많은 진보적인 청년들의 정신적 지주 같은 역할을 했었다.(송윤선, <베이징 문학 여행기>)

위 기행문에서는 박물관에서 글쓴이가 공간을 이동한 순서에 따라 단락을 구분하여 글의 통일성과 응집성을 확보하고 있다.

기행문은 글쓴이가 여행지에서 이동한 여정을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간과 공간의 이동을 나타낼 수 있는 표지어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표지어나 어휘를 적절히 사용하면 글의 통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예) 다음 날 아침, 다시 몽마르트르를 찾았다. 어제의 물랭루즈를 뒤로 하고 비스듬히 언덕진 르픽 거리를 걸어 올라갔다. 고흐의 아틀리에를 지나며 불행했던 그의 생과 오늘날 가장 많은 대중적 관심을 받고 있는, 여행지에서 자주 만나곤 했던 그의 그림들을 떠올려 보았다. 르픽 거리를 오르다 보이는 작고 예쁜 기념품, 액세서리 가게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중 가장 예쁜 가게에 들러 머리핀을 샀다. 길은 약간 숨찰 듯 오르막이었고 핑크빛과 자줏빛 베리 종류를 팔고 있었다. 각종 치즈와 생선이 즐비한 길목을 지나, 르픽 거리의 정점에서 물랭 드 라 갈레트를 만났다. 그곳에 닿았을 때 아쉬운 표정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다. 현재는 문이 닫혀 있어 안으로 들어가 볼 수 없고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아쉬웠다. 닫힌 문 너머로 풍차의 윗부분이 보였고, 푸른 나뭇잎이 미안하다는 듯 손짓하고 있었다. 이곳을 즐기고 그리기 위해 언덕을 오르내렸을 화가들 그리고 그들의 그림들

을 떠올려 보았다. 르누아르의 '몰랭드 라 갈레트에서의 무도회'가 가장 먼저 떠올랐다. (동시영, <여행에서 문화를 만나다: 세계문화 관광>)

위 예문에서는 밑줄 친 표현과 같은 시간과 공간의 이동을 나타내는 표지어를 통해 글의 통일성을 높이고 있다.

라. 예시문 분석

저 잔잔한 미소에 어린 뜻은

유홍준

직장인에게 답사란 꿈일 뿐

작년 추석날이었다. 차례 지나고 나서 특별한 일도 없어 낮잠이나 늘어지게 자 보려고 길게 차리고 있는데 막냇동생이 평소와는 달리 제 처와 함께 정중히 찾아와서 부탁하는 것이었다.

“형! 우리도 답사 좀 데려가 줘.”

“누가 오지 말래? 네가 직장이 바빠서 못 따라온 거지.”

“그러니까 오늘 가면 안 돼? 운전은 내가 할게.”

“정신 나가기 전에야 이 연휴에 어딜 간다고 나서냐?”

“그래도 연휴 아니고서야 갈 수 없잖아. 형수하고 우리 넷이서 1박 2일로 갑시다. 엄마, 아버지가 집 봐준다고 했어.”

미리들 다 짜고 조르는 것인 줄 그제야 알고, 나는 본격적으로 안 된다고 방어태세를 갖추는데 제수씨가 앞질러 나온다.

“아주버니, 저도 꼭 가보고 싶었어요.”

그것을 거부할 힘이 내게는 없었다. 직장인. 그것도 소위 괜찮다는 직장의 중간 간부는 사실상 자기 생활이 없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내 아우의 하루는 그야말로 세븐-일레븐이다. 아침 일곱 시에 출근해서 밤 열한 시에 돌아온다. 그런 동생이 맘 먹고 부탁한 걸 교통지옥이 아니라 생지옥이라도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면 어디로 갈 것인가? 동생 내외와 나의 처와 함께 둘러앉아 답사 계획을 짜는데 아우는 폐사지라는 걸 하나 보았으면 좋겠다고 하고, 제수씨는 아무데고 한가한 곳이면 좋겠다고 하는데, 나의 처는 하나를 보아도 제대로 된 감동적인 유물을 보았으면 한다고 했다. 이 세 가지 요구를 다 받아들이는 답사 코스로 내가 서울에서 당일 답사의 영순위로 삼고 있는 서산 마애

불(磨崖佛)과 보원사(普願寺) 터를 제시했고 모두들 거기에 합의했다.

더 없이 평온한 내포 땅의 들판 길

집을 떠나 서울에서 천안을 거쳐 예산으로 들어가는 데 물경 일곱 시간이 걸렸지만 오랜만에 한 공간에 앉아 형제 간에 동서 간에 애기꽃을 피우느라고 지루한 줄 몰랐다. 우리가 이렇게 긴 시간 한 자리에 함께 한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이윽고 우리가 달리는 45번 국도가 흰하게 뚫렸을 때 비로소 우리는 답사 기분을 낼 수 있었다.

내포 땅을 가면서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들판을 바라보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커다란 기쁨이다. 이 길을 지나면서 잠을 잔다거나 한밤중에 이 길을 간다는 것은 거의 비극이라 할 만하다.

창 밖에 스치는 풍광이라고 해 봤자 낮은 산과 넓은 들을 지나는 평범한 들판 길이다. 그러나 이 비산비야(非山非野)의 들판 길은 찾길이 항상 언덕을 올라타고 높은 곳으로 나 있기 때문에 넓게 내려다보는 부감법의 시원한 조망이 제공된다. 아름다운 드라이브 코스란 흔히 강을 따라 난 길, 구절양장(九折羊腸)으로 기어오르는 고갯길을 먼저 떠올리겠지만 그런 고정관념을 깨뜨리면서 평범한 들판길이 오히려 아름답다는 것을 보여주는 곳이 바로 여기다.

(중략)

“중국은 자국이 낳은 훌륭한 종교가 있었지만 남북조시대에 이민족이 지배하면서 불교로 바뀌게 됐고 당나라 때는 오히려 이 이국의 종교를 더욱 발전시켰지요. 요컨대 그것을 수입해서 우리의 삶이 고양된다면 얼마든지 수입해서 쓰는 겁니다. 그것은 주체성의 상실이 아니라 오히려 문화적 포용력의 개방성이라고 해야 해요. 불교 미술은 결코 이교도들의 신앙물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이 살아온 방식의 정직한 표정이고 사상의 산물이지요. 보십시오. 서양 중세의 문화는 기독교 문화입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이 지배했고 기독교 건축과 조각이 발달했지요. 그런데 오늘날 어느 누구도 유럽의 중세 문화를 이스라엘의 아류라고 하지 않아요. 필요하면 얼마든지 갖다 쓰는 것이지요. 백제의 미학은 그래서 빛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 고대국가의 세련된 고전미를 창출해냈거든요. 인도, 중국, 일본에선 볼 수 없는 화강안의 건축과 조각, 즉 석탑과 석불이 그 대표적 예인데 우리는 그중 석불의 아름다움을 답사한 것입니다. 저 잔잔한 ‘백제의 미소’에는 그런 뜻이 서려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는 이곳이 자랑하는 불야성의 덕산온천이 아니라 제수씨

의 희망에 따라 철 지난 한적한 만리포 해수욕장에 숙박지를 잡았다. 만리포에 갔으면 당연히 찾아가야 할 천리포 수목원 구경은 다음날 아침 ‘해장답사’ 감으로 남겨두고 우리는 형제는 형제끼리, 동서는 동서끼리 밤바다를 거닐면서 서울이 어디더냐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크리넥스 휴겍보다도 더 홀가분한 마음으로 하룻밤을 보냈다.

1996. 10.

<예시문 분석>

기행문은 글쓴이가 여행지에서 경험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한 글이다. 이 글은 글쓴이가 여행지로 떠나게 된 동기, 여정과 여행지에서의 경험, 여행을 통해 얻은 감상 등이 드러나 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기행문이라 할 수 있다. 기행문은 여행의 과정에 동반되는 시간과 공간의 변화를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되는데 이 글은 이러한 기행문의 특성을 잘 나타내 준다. 또한 기행문은 여행지의 감상을 여실하게 표현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글 역시도 멋스럽고 비유적인 표현이 적극적으로 사용되었다.

① 어휘

- 비산비야(非山非野), 구절양장(九折羊腸) 등의 관용 표현으로 여행지의 풍경을 효과적으로 묘사하였다.
- ‘해장답사’ 등의 어휘를 지어내어 사용함으로써 여행지의 즐거운 감상과 어울리는 익살스러운 표현을 하는 한편, 방어태세’ 등의 군사 용어를 비유적으로 사용하여 익살스러운 표현을 하고 있다.
- ‘세븐-일레븐, 교통지옥’ 등의 유행어를 사용하여 인물과 상황을 효과적으로 표현하였다.
- 시간의 흐름이나 공간의 변화를 알 수 있는 어휘가 적절히 사용되어 글쓴이의 여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② 문장

- 사건이 일어난 당시의 현장감을 주기 위하여 현재 시제를 사용해 표현하였다.
- 글쓴이의 의견이나 주제를 직접 인용 표현을 통해 표현함으로써 ‘백제의 미소’라는 비교적 어려운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였다.

③ 답화

- ‘처음-중간-끝’의 구성으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 처음 부분에는 여행의 동기가 잘 나타나 있고, 중간 부분에는 공간의 이동에 따른 여정과 견문, 감상이 표현되었으며 끝 부분에는 여행에서 얻은 깨달음과 느낌이 여운이 있게 나타나 있다.
- 서양의 문화와 우리나라의 문화의 특성을 비교, 대조함으로써 여행지에서 얻을 수 있었던 깨달음이나 감상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학습 활동】

- ① 다음은 기행문의 일부를 옮긴 것이다. 글의 종류를 고려할 때, 밑줄 친 표현이 거두고 있는 효과에 대해 말해 보자.

① ‘연곡사 사적기’라는 것이 제대로 전하는 것이 없어도 통일신라 동부도에서부터 조선 말기 부도까지 시대를 점철하는 석조물이 있어서 그 면면한 역사를 읽어낼 수 있으니 그것이 돌의 위대함이 아니고 무엇인가.

—유홍준, <나의 문화 유산 답사기>—

② 단 한 사람만 내려놓고 버스는 먼 길을 돌아갔다. 정류장은 큰길가에 자리 잡은 낡은 카페였다. 테이블 몇 개와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무심한 표정으로 이방인을 쳐다보다 천천히 걸어간다.

—김진영, <그리스 미학 기행>—

③ 아프리카 대륙의 북쪽 끝자락, 유럽 대륙의 건너편에 위치한 알렉산드리아, 그 이름만으로도 역사의 무게와 함께 신비감으로 다가오는 도시!

—유종필, <세계 도서관 기행>—

※ 길잡이

문장의 종결형을 중심으로 글쓴이의 표현 의도를 추측해 본다.

- ② <보기>는 기행문의 특성을 설명한 것이다. 기행문의 각 문장(①~⑤)에 담긴 내용이 ㉠~㉥ 중 어디에 해당하는 지 말해 보자.

<보기>

기행문은 여행지의 과정이나 일정을 중심으로 한 ㉠ 여정(旅程), 여행지에서 보고 들은 내용인 ㉡ 견문(見聞), 여행지에서 글쓴이가 느낀 ㉢ 감상(感想)이 중심이 되는 글이다.

① 다음날 우리는 비룡폭포로 가기로 하였다. 아침부터 하늘이 흐렸지만 개의치 않았다. 비룡폭포로 향하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렸으나 우리는 굴하지 않았다. ② 잠시 하늘을 원망했지만 그 원망이 나중에는 감사로 바뀌게 되었다. 비룡폭포로 향하는 등산로의 나뭇잎들과 꽃잎들이 비를 맞아 더욱 생기 있게 바뀌었기 때문이다. ③ 물방울이 달려있는 나뭇잎

을 바라보며 시원한 숲길을 걸으니 설악의 진경을 발견할 수 있었다. ④ 비룡폭포의 길이는 40미터나 되며, 많은 전설이 담겨 있는 명소라고 한다. 비룡 폭포를 구경하고 고대하고 고대하던 도시락을 먹었다. ⑤ 옛날 이백이 말했다는 별유천지비인간(別有天地非人間)이라는 시구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며, 과거의 조상들이 떠올랐다. ⑥ 우리는 다음 경유지인 케이블카로 향했다.

㉠ : _____ ㉡ : _____ ㉢ : _____

※ 길잡이

글쓴이가 사용하고 있는 표현 방식과 내용을 중심으로 여정, 견문, 감상을 판단해 본다.

- ③ 다음 그림을 보고, <조건>을 고려하여 여행지의 풍경을 묘사하는 기행문의 한 부분을 지어 보자.



<조건>

제시된 그림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시선을 옮겨 간다고 가정하면서 풍경을 묘사할 것.

※ 길잡이

인상적인 사물을 묘사의 대상으로 잡아 한 문장씩 표현해 본다.

4 다음의 절차에 따라 한 편의 기행문을 구상해 보자.

- ① 자신이 여행한 곳 중 추억이 있는 곳을 메모해 보고 그 이유를 말해보자.

장소	이유

- ② 여행지에 대한 나의 감상이 드러나도록 기행문의 제목을 지어 보자.

제목: _____

- ③ 다음 질문을 중심으로 여행지에서 체험했던 내용을 떠올려 보자.

- 여행지에서 방문한 장소와 그 순서는?
- 각 장소에서 느꼈던 감상이나 감동은 무엇이었는가?
- 여행지에서 보고 들었던 사실 가운데, 기억이 남는 것은 무엇인가?

※ 길잡이

여행 장소 이동과 각 장소에서 얻었던 견문, 감상이 기행문의 핵심 내용임을 염두에 둔다.

제2부 글의 종류에 따른 문법

- ④ ③에서 정리한 내용을 중심으로, 여행에서의 일정 순서대로 내용을 배열하여 글 내용을 구상해 보자.

제목: _____

처음

중간

끝

※ 길잡이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각 부분에 들어가기에 적절한 내용을 자유롭게 적어 본다. 각 부분에 들어갈 내용이 여러 가지일 경우에는 번호를 매기는 방식도 좋다.

【학습 활동】 예시 답안 및 해설

제1부 작문을 위한 기초 문법	대단원 1. 맞춤법에 맞게 글쓰기
단원 (1) 한글 맞춤법의 원리 - 소리와 표기의 친소	

- ① 소리대로 적은 것: ‘꼬락서니’, ‘길러’,
어법에 맞게 적은 것: ‘값도’, ‘먹는’

- ② 나도 갈걸! → 나도 갈걸!

- ③ (가)의 ‘반하나’는 ‘ㅎ’ 탈락 현상을 이용하여 광고하고자 하는 대상인 ‘바
나나’를 떠올리게 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나)의 ‘같이’는 축약인 구개음화 현상을 이용하여 ‘가치’와 동음 효과를
거둠으로써 해당 기업이 ‘함께’라는 가치를 중시한다는 표현 효과를 거두
고 있다.

- ④ ① 이르렀지만 ② 일러서

- ⑤ ‘북어국 → 북엇국’
‘순대국 → 순댓국’
‘김치찌개 → 김치찌개’
‘씻가 → 시가’
‘뒷풀이 → 뒤풀이’
‘커피값 → 커피값’

- ⑥ 가. 그러므로/그럼으로(써)
나. 절이다/저리다

제1부 작문을 위한 기초 문법	대단원 1. 맞춤법에 맞게 글쓰기
단원 (2) 띄어쓰기와 문장 부호	

- ① 붙여 쓰는 것: 헌것, 헌숨, 헌책
띄어 쓰는 것: 헌 시계, 헌 가방, 헌 집
- ② (가)의 ‘밖에’는 ‘바깥’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 문장은 ‘저 바깥에는 아무도 없어요.’의 의미를 가지고 (나)는 ‘있는 사람이 저뿐이에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 ③ 가. 지금까지 ∨ 이렇게 ∨ 살아왔는데 ∨ 갈 ∨ 데가 ∨ 있겠나?
나. 내 ∨ 마음대로 ∨ 아까보다 ∨ 더 ∨ 많이 ∨ 가져도 ∨ 되나요?
다. 생각한 ∨ 만큼 ∨ 물건이 ∨ 마음에 ∨ 드는지 ∨ 살펴보세요.
- ④ 가. 상극의 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나. ‘돈’의 의미가 강조되고 있음을 나타내기 어렵다.
다. 어떤 부분이 자신의 생각인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
라. 시험 범위가 378쪽만 해당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
- ⑤ 이 시에서는 우선 ‘꽤맨다’ 다음에 있어야 할 마침표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마침표로 인한 명제 또는 문장 종결을 의도적으로 회피함으로써 신혼 생활의 복합적 감상과 연속성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줄임표도 의도적으로 여러 번 사용하고 있다. 원래 줄임표는 할 말을 줄였을 때나 할 말이 없을 때 사용하는 것이지만 시에서 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전기가 나간 잠깐의 상황을 은유하고 말로 표현될 수 없는 행복의 순간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1부 작문을 위한 기초 문법	대단원 2. 어휘 사용에 유의하며 글쓰기
단원 (1) 어휘의 적절한 선택과 사용	

- ① ① 뻘쳐/뻘쳐, 뻘쳐 ② 검불, 덩불 ③ 곤혹, 곤욕
 ④ 그저, 거저 ⑤ 있다가, 이따가 ⑥ 부시어, 부수고
 ⑦ 아득한, 아득하였다 ⑧ 나비, 넓이, 너비 ⑨ 갈음, 가늠, 가름

- ② ① 그는 한번 결단을 내린 일은 절대로 바꾸지 않는다.
 이젠 집안을 아주 결판을 내려고 하는군.
- ② 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
 우리 집 소가 오늘 아침 송아지를 낳았다.
- ③ 편도선이 부어서 말하기가 어렵다.
 식욕이 왕성하여 몸이 많이 불었다.
- ④ 문짜를 문틀에 맞추었다.
 수수께끼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맞으면 상품을 드립니다.
- ⑤ 문짜를 문틀에 맞추었다.
 수수께끼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맞으면 상품을 드립니다.
- ⑥ 고무줄을 길게 늘였다.
 우리는 넓은 평수로 늘려 이사했다.
- ⑦ 저는 부장님께 결재를 받고 오는 길입니다.
 신용카드를 쓸 때는 좋지만 결제할 때는 괴롭다.
- ⑧ 물색이 좋은 옷감을 골랐습니다.
 공동체를 향한 새롭고 진지한 모색을 바로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 ⑨ 건물주는 건물 전체를 은행에 임대하였습니다.
 은행 돈을 빌려 사무실을 임차하였습니다.
- ⑩ 불우한 아이들을 위하여 보호소가 운영되었다.
 그는 적은 사업 자금이지만 잘 운용하여 갑부가 되었다.

제1부 작문을 위한 기초 문법	대단원 2. 어휘 사용에 유의하며 글쓰기
단원 (2) 어휘의 체계와 양상	

- ① 고유어: 인절미, 장아찌, 갈비찜, 술, 순대, 떡볶이
한자어: 자장면, 전병, 식혜, 잡채, 두부, 청국장, 삼계탕, 생선회
외래어: 오므라이스, 햄버거, 커피, 핫도그
- ② 한자어: 조선, 독립, 자주, 국민, 선언, 세계, 인류, 평등, 자손만대, 존재, 권리, 영원, 반만 년, 역사, 권위, 의지, 이천만, 민중, 중성, 양심, 발로, 개조, 기운, 순응, 명령, 시대, 대세, 인류, 권리, 정당, 발동 (중복되는 경우 생략)
- 선언하는 글은 장중하고 엄숙한 느낌을 주어야 하는데, 한자어나 추상적 개념어를 사용하면 이러한 문제적 효과를 거두는 데 효과가 있다.
- ③ 어휘의 사용은 글의 목적과 부합해야 한다. 제시된 글이 웃음을 주는 것은 김치라는 토속적 대상을 최근 유행하는 외래어 투의 표현으로 묘사하였기 때문이다.
- ④ 소식지: 같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소식지에서 지역 방언을 인용함으로써 친밀감과 유대감을 형성한다.
동아리 안내문: 비교적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한 안내문에서 동아리의 가입을 권유하기 위하여 유행어를 사용함으로써 글의 흥미나 재미를 높였다.
추도문: 죽은 사람에 대한 엄숙한 태도가 요구되는 추도문에서 완곡어를 사용하여 고인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표현하였다.
- 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 부부 싸움은 칼로 물 베기이다. /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제1부 작문을 위한 기초 문법	대단원 2. 어휘 사용에 유의하며 글쓰기
단원 (3) 어휘의 다양한 의미와 의미관계	

① ① 어머니께서 요리를 하다가 손을 다치셨다 - 외연적 의미

이 일은 참 손이 많이 가는 일이야. - 내포적 의미

② 어머니의 눈에 남몰래 맺힌 이슬 - 내포적 의미

이슬은 수증기가 기온이 내려가거나 찬 물체에 부딪힐 때 엉겨 생긴다. - 외연적 의미

- ② ① 반사적 의미
② 정서적 의미
③ 주제적 의미
④ 연어적 의미

③ ① 글에 주로 사용된 의미 관계: 반의 관계

② 폭포 : (분수)
(흐르다, 순응) : 거스르다
도량물, 강물 : 화산, (로켓)

③ 글의 효과: 반의관계를 형성하는 어휘를 두드러지게 사용하면, 부각하여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을 보다 뚜렷하게 표현할 수 있다.

제1부 작문을 위한 기초 문법	대단원 3. 문장 구조에 유의하며 글쓰기
단원 (1) 문장 성분과 어순	

- ① 그는 _____ 주어
- 멀리 서술어
여행을 부사어
떠났다 목적어

②

용언	문장	서술어의 자릿수
푸르다	하늘이 푸르다.	1
보다	동생이 책을 본다.	2
주다	할머니께서 손자에게 용돈을 주신다.	3

- ③ 연주회에서 영희가 열심히 바이올린을 연주했다.
바이올린을 영희가 연주회에서 열심히 연주했다.
열심히 영희가 연주회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했다.
☞ ‘영희가 연주회에서 열심히 바이올린을 연주했다.’에서 강조하는 성분을 문장 앞으로 내세워 강조할 수 있다.

- ④
- ① 아이들은 이미 선생님과 작품 연습을 시작하였습니다. 공연 참가자와 불참자 모두 참가 여부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② 공연 준비에는 극장 대관비, 조명, 의상 대여비, 무대막 대여, 프로그램 제작, 분장비, 인건비, 식비 등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먼저 부모님들께 참가 여부 확인서를 받습니다.

③ 가능한 한 많은 아이들이 무대에 오르는 경험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 ①은 두 문장이 연결되었는데 이들 각 문장의 주어는 생략되었거나 불분명하여 문장 성분 간의 호응에 문제가 있다. 이들 문장은 연결어미로 이어서 표현하기보다는 두 문장으로 나누어 표현하는 것이 명확한 의미 전달에 효과적이다.
- ②에서도 ‘공연을 진행하게 되면’보다는 ‘공연 준비에는’으로, ‘참가 신청을’보다는 ‘참가 여부 확인서를’로 수정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게 의미를 표현한 것이다.
- ③에서는 안긴 문장이 여러 개 있어 전체적으로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어색한 문장이 되었다.

제1부 작문을 위한 기초 문법	대단원 3. 문장 구조에 유의하며 글쓰기
단원 (2) 문장 구조와 의미	

① 받은, 받을. 관형사형 어미 ‘-은, -을’을 결합하여 만들 수 있다.

② ① 영수가 마시는 차(茶, tea)를 샀다.
영수가 교통수단의 차(車, car)를 샀다.

② “영수가 마시는 차를 샀다.”
“영수가 녹차를 샀다.”
“영수가 출근용 차를 샀다.” 등등

③ 중의적 표현: 내복약
표현효과: 사전적 의미가 아닌 참신한 표현을 통해 광고를 읽는 독자로 하여금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게 한다.

제1부 작문을 위한 기초 문법	대단원 3. 문장 구조에 유의하며 글쓰기
단원 (3) 문법 요소의 쓰임	

- ① 피동문: 그에게 아름다운 풍경에 보였다.
사동문: 잔에 물을 가득 채웠다.
- ② 피동표현: 판단된다, 보여짐.
잘못된 표현: 보여짐 → 보임.
☞ ‘보다’의 피동사가 ‘보이다’인데 여기에 또 피동을 표현하는 ‘-어지다’를 결합하여 ‘보여지다’로 쓰는 것은 중첩 피동이 되어 바람직하지 않다.
- ③ 우리 아버지는 부지런해서, 아침마다 마당을 청소하고, 아침 운동을 하신다.
☞ 한 문장에 서술어가 여럿이 있을 경우, 일률적으로 규칙을 세우기는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제일 마지막 서술어에 ‘-(으)시-’를 붙인다.
- ④ “시간이 계신” → “시간이 있으신”
☞ ‘계시다’는 인물을 직접적으로 높일 때만 사용하므로,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일 때는 ‘-시-’를 써서 높임을 나타내야 한다. 위 글에서 ‘계신’의 주어가 사람이 아닌 ‘시간이’이므로 ‘있으신’으로 고쳐야 바른 문장이 된다.
- ⑤ 영수가 선생님께 “크게 말씀해 주세요”라고 소리쳤다.
- ⑥ ① ‘자신했다’는 인용문을 말한 구매담당자의 인용 내용에 대해 자신감을 표현하고 있다.
② 이를 ‘말했다’, ‘추천했다’ 등의 다른 동사로 바꾸면 인용 내용에 대한 다른 태도를 보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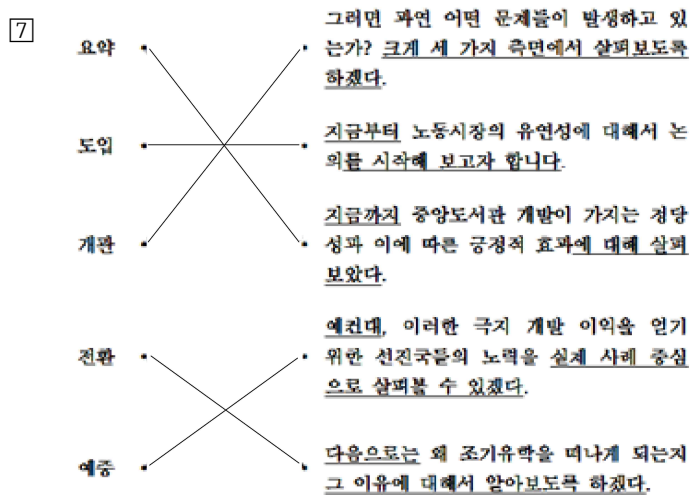
제1부 작문을 위한 기초 문법	대단원 4. 통일성과 응집성에 유의하며 글쓰기
단원 (1) 통일성과 글의 의미	

- ① 북극곰은 사람을 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람이 눈에 띄면 먹이로 간주한다. 게다가 음료수 광고, 동물원의 마스코트 등으로 인간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주지만 실제로 북극곰은 곰과들 중 가장 포악하며 공격성이 매우 높다.

- ② (생략)

제1부 작문을 위한 기초 문법	대단원 4. 통일성과 응집성에 유의하며 글쓰기
단원 (2) 응집성과 표현의 효과	

- ① ‘① 그것’ - ‘쌀밥’
 ② ‘그것’ - ‘쌀 두 되 값’
 ③ ‘이런’=‘호흡장애, 아린감, 심계항진, 불안, 공포, 발한’
 ‘그것’=‘공황장애 증상’
- ② ‘반면’, ‘그러나’, ‘뿐만 아니라’
- ③ ‘컴퓨터를 새로 사는 것’
- ④ “교사들은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수학이 작년 대학수학능력시험보다 어려웠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작년에 비해 수학능력시험의 변별력이 확보 되었다.”
- ⑤ 그녀는 그와 함께 와인을 마시고 스테이크를 먹었다.
 인간은 자연에 복종하기도 하고, 자연을 지배하기도 한다.
- ⑥ ‘요컨대’는 앞선 주장이나 설명을 요약하여 반복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내용을 압축하고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제2부 글의 종류에 따른 문법	단원 1. 보고서
---------------------	-----------

- ①
- -일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 -일 가능성이 있다.
 -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개선이 필요하다.
 - 좋은 기회가 아닐까요? → 좋은 기회입니다.

②

구분	잘못된 이유	수정 결과
①	‘:’는 앞은 붙이고 뒤는 띄어쓰.	‘보고 일자: 00년 0월 0일
②	‘잔업시간’은 구이므로 띄어쓰고, ‘-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표현이므로 삭제함.	‘잔업 시간의 단축’
③	- 팀장이므로 ‘당 부서를 대표하여 참석하였으므로’는 불필요한 내용임.	4월 정기 사내 팀장 회의에서 협의 결정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보고드립니다.
④	‘일시’는 날짜와 시간을 함께 가리키는 어휘임.	‘날짜’로 수정하거나 ‘시간’을 추가함.
⑤	종결어미 ‘결정을 내렸다.’보다는 명사형이 보다 간결한 표현임.	결정을 내림.

- ③ ①
- 문제: 지하철 호선마다 약냉방칸의 위치가 제각각이다, 스크린 도어에 표시해 놓은 곳도 일정하지 않다.

호선	약냉방칸 위치
1, 3, 4호선	4번째칸, 7번째칸
5, 6, 7호선	4, 5번째 칸
8호선	3, 4번째 칸
부산 1, 2호선	2번째 칸
대구 1, 2호선	2번째 칸

제2부 글의 종류에 따른 문법	단원 1. 보고서
---------------------	-----------



②

문제점	해결방안
지하철 호선마다 약냉방칸의 위치가 제각각이다.	모든 지하철의 약냉방칸의 위치를 통일한다.
약냉방칸에 대한 안내문이 부족하다	스크린 도어, 지하철 내부에 안내문을 부착한다.
스크린 도어에 표시해 놓은 곳도 일정하지 않다.	스크린 도어, 지하철 내부의 안내문을 모든 지하철에 동일한 위치에 부착하도록 한다.

③ 생략

④ 생략

제2부 글의 종류에 따른 문법	단원 2. 안내문
---------------------	-----------

- ① ① 공원 내에서는 취사를 할 수 없습니다.(→없습니다)
 ② 주민 여러분께서는 주차시 주요(→중요) 보관품 등을 차량내에 보관하지 마십시오.
 ③ 공사로 인하여 먼지가 발생되는(→발생하는) 경우에는 즉각 아래 번호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다른 고객이 자동화기기를 이용하고 있을 때 대기선 밖에서 기다리는 미덕을 지켜 상호간에 안심한(→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② ① 어색한 부분: 진료 휴진 하십시오

어색한 부분	- 진료 휴진 하십시오 - '□□□ 대표 원장님 해외 출장으로 인하여'의 글자 크기와 글자색
이유	- 발신자를 높이고 있어 어색하게 느껴진다. - 전달하는 정보에 대한 강조가 잘못되었다. 수신자는 휴진 이유가 궁금한 것이 아니라 휴진 기간이 훨씬 중요하다. 따라서 휴진 기간에 대한 내용을 더 강조하는 것이 좋다.

②

진료 휴진 안내
<p>○○○ 대표원장의 해외 출장으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휴진하오니 예약 및 내원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아래 -</p> <p style="text-align: center;">휴진 기간: 6월 9일(월)~6월 16일(월)</p> <p style="text-align: center;">문의번호: 000-0000</p> <p style="text-align: right;">00병원</p>

- ③ ① 운동장 개방의 목적, 개방 시간, 개방 공간
 ② 00초등학교 운동장 방과후 개방 안내
 ③ 생략

제2부 글의 종류에 따른 문법	단원 3. 논설문
---------------------	-----------

① 연료 만큼→연료만큼

☞ ‘만큼’은 명사 뒤에서 ‘조사’로 쓰일 때는 앞말에 붙여 쓰고, ‘~(하)나/르’와 같은 관형사형 어미 뒤에서는 명사로 쓰여 띄어 쓴다.

폐기물 → 폐기물(廢棄物)

☞ ‘폐기’는 버리는 것을 의미함.

있을뿐 → 있을 뿐

☞ ‘뿐’은 명사이므로, 관형사형 수식어인 ‘있을’과 띄어 쓴다.

문제시되고 → 문제시 되고

☞ ‘되고’는 동사이므로 띄어 쓴다.

② 대책 → 상책

☞ 대책: 어떤 일에 대처할 계획이나 수단

상책: 가장 좋은 대책이나 방책

승률 → 사망률

☞ 승률: 경기 따위에서 이긴 비율, 사망률: 사망할 확률

③ ①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간절히 바라면 우주가 나서서 도와준다.

→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간절히 바라면 우주가 나서서 도와준다는 것이다.

② 국민은 이 정책을 피하기도 했지만, 맞서 싸우기도 했다.

→ 국민은 이 정책을 피하기도 했지만, 정책에 맞서 싸우기도 했다.

④ ① 이우환이 미술계의 세계적 거장이다. → 이우환은 미술계의 세계적 거장이다.

② ‘위작 시비’를 ‘불미스러운 일’로 바꿔 ‘대용’이 사용되었다. 이는 완곡하게 표현하는 효과가 있다.

⑤ 생략

제2부 글의 종류에 따른 문법	단원 4. 건의문
---------------------	-----------

- ① ① 지금 가을걷이가 **한창**(→한참)입니다.
 ☞ 한창은 ‘일이 왕성하고 무르익을 때’라는 뜻.
- ② 제 생각은 좀 **틀립니다**(→다릅니다).
 ☞ 틀리다는 ‘잘못됨’이란 뜻.
- ③ 정부가 **벌린**(→벌인)사업이 연간 1조의 손실을 내고 있습니다.
 ☞ 벌いだ는 ‘영업을 하려고 시설을 차리다’의 뜻.
- ④ 최근에는 **웬지**(→웬지) 어두운 골목길을 가기가 두렵습니다.
 ☞ ‘웬지’는 ‘왜인지’의 뜻이고, ‘웬지’는 ‘어떠한, 어찌 된’의 뜻.
- ② ① 우리는 국가의 이 정책을 거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대를 걸기도 한다.
 ☞ 이 정책에 기대를 ~ : 현재 문장 구조로는 ‘정책을 기대를 걸다’로 읽히기 때문에, 부사어 ‘정책에’를 살린다.
- ② 특이한 점은 이번 일로 사람들의 안전 의식이 더욱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 ~는 것이다. : ‘특이한 점은’의 서술어가 없어서 문장이 호응이 잘못 되었다.
- ③ ㉠ : 게다가, 또한, 그리고 등. 첨가의 의미를 지닌 접속사
 ㉡ : 따라서, 그러므로, 그래서 등. 인과의 의미를 지닌 접속사
- ④ 주장에 대한 근거나 이유가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았다, 건의문의 형식을 갖추지 않아 내용이 중언부언하다. 등.
- ⑤ 생략

제2부 글의 종류에 따른 문법	단원 5. 초대글
---------------------	-----------

- ① ① ‘뜻깊은’ → ‘뜻 깊은’
 ② ‘하려합니다’ → ‘하려 합니다’
 ③ ‘힘 입어’ → ‘힘입어’, ‘바쁘실줄’ → ‘바쁘실 줄’
 ④ ‘홀로서기 보다는’ → ‘홀로서기보다는’, ‘마주보기’ → ‘마주 보기’
 ⑤ ‘새 봄’ → ‘새봄’, ‘귀 댁’ → ‘귀댁’
 ⑥ ‘본지’ → ‘본 지’, ‘일년’ → ‘일 년’
 ⑦ ‘다칠 세라’ → ‘다칠세라’
- ② ‘호상(護喪)’이란 초상 치르는 데에 관한 온갖 일을 책임지고 맡아 보살피는 사람이라는 의미로서 부고를 보낼 때 사용하는 이름이다.
- ※ 참고: ‘호상(好喪)’은 ‘복을 누리고 오래 산 사람의 상사(喪事)’를 뜻하는 말이다.
- ③ 가. ‘하시기를’ → ‘하기를’
 나. ‘번창하시기를’ → ‘번창하기를’
- ④ 속지: ‘여기’
 봉투: ‘서상무, 송회연’ 혹은 ‘박형수, 정영미’
- ⑤ 생략

제2부 글의 종류에 따른 문법	단원 6. 감사글
---------------------	-----------

- ① 가. ‘찾아 뵙고’ → ‘찾아 뵈고’,
 ‘도리 이오나’ → ‘도리이오나’,
 ‘양해 하여’ → ‘양해하여’
 나. ‘보내주신’ → ‘보내 주신’

- ②
- | | |
|------|--------------------------------|
| 공사다망 | ● 마음이 몹시 급하여 당황하고 허둥지둥하는 면이 있음 |
| 후회 | ● 공적·사적인 일 따위로 매우 바쁨 |
| 황망 | ● 남에게 두터이 인정을 베푸는 마음 |

- ③ ‘불구하시고’ → ‘불구하고’
 ➡ ‘불구하다’는 ‘바쁜 것’에 대해 얹매어 거리끼지 아니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행위의 주체를 높이는 ‘-시-’가 결합하기 어렵다. 따라서 ‘불구하시고’를 ‘불구하고’로 수정해야 한다.

- ④ 언제나 선생님을 존중하고 선생님께 감사하고 있는 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 ‘존중하고’에서 사용된 어미 ‘-고’는 ‘감사하고’와 연결되어 ‘제가’를 수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존중하다’는 ‘선생님을 존중하다’와 같이 쓰일 수 있으나 ‘감사하다’는 ‘선생님을 감사하다’와 같이 쓰일 수 없으므로 이 문장은 비문법적이거나 의미가 모호해질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장은 ‘언제나 선생님을 존중하고 선생님께 감사하고 있는’ 처럼 ‘감사하고’와 어울릴 수 있는 ‘선생님께’를 넣어야 한다.

- ⑤ 생략

제2부 글의 종류에 따른 문법	단원 7. 수필
---------------------	----------

- ① 인물 간의 대화는 수필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 방식이다. 특히 수필의 시작 부분에 사용되는 경우는 독자가 글에 흥미를 갖고 계속 집중하여 독서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 ② ㉠ 박장대소
㉡ 포복절도
㉢ 냉소
㉣ 선웃음

- ③ ① 문장의 종결 표현에는 주로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게 된다. 수필과 같이 문예적인 글에서 문장이 종결 표현이 없이 명사형으로 종결하게 되면 여운을 주거나 글의 감동을 강조하는 효과를 거두는 데 도움이 된다.

- ② 생략

- ④ 생략

제2부 글의 종류에 따른 문법	단원 8. 기행문
---------------------	-----------

- ① ① 문장의 내용을 물어 보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글쓴이의 주장이나 생각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② 과거에 체험한 사실이지만, 현재형으로 표현함으로써 현장감을 높이고, 마치 독자가 지금 여행지를 경험하는 것처럼 표현할 수 있다.
 ③ 문장을 명사(형)으로 종결함으로써 내용을 강조하고 여운을 주는 효과가 있다.

② ㉠: ①, ⑥

㉡: ③, ④

㉢: ②, ⑤

- ③ (예) 낙타의 등처럼 길게 굽은 고속도로가 얹혀 있었다. 멀리 보이는 황량한 산은 아득하게만 여겨진다. 고개를 조금 돌리니 길과는 반대 방향으로 굽은 강이 이어졌고, 조금씩 자라고 있는 풀들이 보였다. 멀리 보이는 바위산은 쓸쓸한 내 마음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만 같았다.

④ 생략

연구 책임자: 이삼형 (한양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공동 연구원: 김혜정 (경북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최형용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김정선 (한양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연구 보조원: 김시정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수료)
김형석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담당 연구원: 최용기 (국립국어원 학예연구관)

작문(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문법 교육 자료 개발

발 행 인	송 철 의
발 행 처	국립국어원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방화 3동 827) 전화: 02-2669-9775 전송: 02-2669-9747
인 쇄 일	2016년 11월 29일
발 행 일	2016년 11월 29일